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EFFECTIVE STRATEGY FOR THE RECOVERY OF COMMUNAL CHARACTER OF THE CHURCH THROUGH HOUSE CHURCH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OKSU FULL GOSPEL CHURCH

written by

BYONGDO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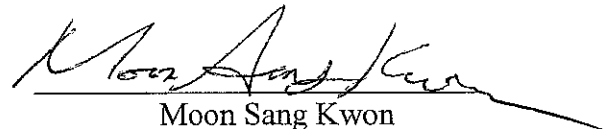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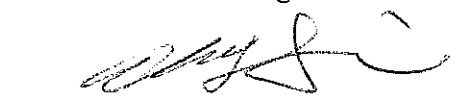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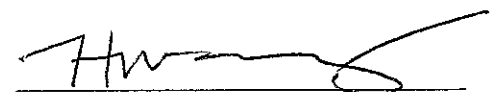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Ah Young Kim


Jin Ki Hwang

December 24, 2012

**AN EFFECTIVE STRATEGY FOR THE RECOVERY
OF COMMUNAL CHARACTER OF THE CHURCH
THROUGH HOUSE CHURCH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OKSU FULL
GOSPEL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BYONGDO PARK

DECEMBER 2012

가정교회 사역을 통한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 방안
- 순복음옥수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 문 상 교수

박 병 도

2012년 12월

Abstract
An Effective Strategy for Recovery of Communal Character of the Church through
House Church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Oksu Full Gospel Church
Byongdo Park
Doctor of Ministry
2012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Korean church today is fac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Among the many reasons mentioned as sources of the troubles, the most fundamental reason is that the Korean church has lost its communal character. The Korean church must regain its communal character. Thus, this ministry focus paper argues that house church ministry can be a very effective way for Korean churches to regain the communal character they lack.

This ministry focus paper has six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explores biblical and theological concepts of the church as community. This chapter argues that the church, as the people of God, the body of the Christ, and the kingdom of God, is an embodiment of the Triune God. Chapter 3 deals with the concept of the house church. By surveying a definition, theological meaning, and functions of the house church, this chapter insists that the house church can improve the communal character of the church. It also examines two local churches' house church ministries.

Chapter 4 scrutinizes the Oksu Full Gospel Church's house church ministry after describing the church's history, mission, and current state. It demonstrates both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current ministry. Chapter 5 then presents a pastoral strategy that can improve the Oksu Full Gospel Church's house church

ministry.

Chapter 6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D

Ah Young Kim, PhD

Jin Ki Hwang, PhD

감사의 글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에 입학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학위 논문까지 쓰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족하지만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많은 축복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은평중앙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이 교회에 온지 한 달 만에 아들(나준)을 주셨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만에 주신 사무엘 같은 귀한 아들입니다. 신학생과 결혼하여 지금까지 목회적 동역자로 학비를 지원하며 사랑으로 후원해준 사랑하는 아내 오지연, 나준이 엄마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주고 삶의 비타민이 되어준 아들 나준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 풀러신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윤중숙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도 늘 친절하게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격려로 지도해주신 권문상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늘 채찍질 해주시고 용기를 주신 김태석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늘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섬겨주신 풀러신학교 스태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고 교정과 자료 등 도움을 주신 문호주, 정지은 전도사님 부부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배려해 주신 최기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신학으로 학문의 지경을 넓혀주신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운 박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이 셀 논문이 나오기 까지 셀에 대한 도전과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황진기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건강한 몸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늘 중보해주시는 은평중앙교회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11월 박병도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동기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 3 절 연구 방법론	3
제 4 절 연구의 개요	3
제 2 장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고찰	5
제 1 절 교회의 정의	5
1. 교회의 어의	6
2. 교회의 신학적 의미	10
가. 하나님의 현존 및 백성의 연합	10
나. 그리스도의 몸	13
다. 하나님 나라	15
제 2 절 공동체의 정의	17
1. 공동체의 어의	17
2. 공동체의 신학적 의미	20
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실현	21
나. 유기체의 실현	23
제 3 장 가정교회에 대한 고찰	26
제 1 절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26
1. 가정교회의 정의	26
2. 가정교회의 기능	29
3. 현대사회에서의 가정교회의 필요성	33
제 2 절 가정교회 사역을 통한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 사례	38

1. 열린문교회의 가정교회 사역	38
가. 교회 소개 및 가정교회로의 전환 동기	38
나. 교회의 가정교회 사역	39
다. 가정교회 사역 결과	43
2.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사역	44
가. 교회 소개 및 가정교회로의 전환 동기	44
나. 교회의 가정교회 사역	45
다. 가정교회 사역 결과	50
제 4 장 순복음옥수교회의 역사와 목회 사역 연구	52
제 1 절 역사와 비전	52
1. 교회의 설립과 역사	52
2. 교회의 비전	54
제 2 절 목회적 상황	55
1. 교회의 지역 사회 이해	56
2. 교회의 일반적 사역	62
제 3 절 가정교회 사역	66
1. 목장 사역	67
2. 교육사역	72
3. 전도 및 선교 사역	73
제 4 절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평가 및 과제	74
1. 하나님의 백성의 목장	74
2. 하나님 안에서의 인성 교육	77
3. 인격적인 전도	79
4. 열방을 향한 선교	81
제 5 장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가정교회 사역의 대안: 순복음옥수교회를 중심으로	85

제 1 절 사례 연구 범위와 방법	85
1. 연구 대상 및 도구	86
2. 설문조사 방법 및 범위	86
3. 설문조사 기간	86
4. 설문 자료 처리 방법 및 제한	86
제 2 절 설문내용 분석	86
1. 설문 자료 분석	86
2. 설문 자료 종합 정리	101
제 3 절 가정교회의 목장 사역 개발	106
1. 리더십 개발	106
2. 가정교회 구성원의 교육	110
3. 가정교회 구성원의 전도와 선교의 개발과 적용	113
제 6 장 결론	119
부록	122
참고 문헌	127
Vita	131

표 목 차

<표 1> 성동구 연도별 인구수	57
<표 2> 성동구 연도별 인구의 나이	58
<표 3> 성동구의 외국인 현황	59
<표 4> 성동구의 학교 및 학생 현황	60
<표 5> 성동구의 체육시설	61
<표 6> 성동구의 자동차 등록	62
<표 7> 목장 사역 인지 여부	88
<표 8> 목장 사역 동참 여부	89
<표 9> 목장 사역의 장점	90
<표 10> 목장 사역을 통한 신앙의 변화와 성숙의 요소	91
<표 11> 목장 사역의 장애물	91
<표 12> 목장 사역이 교회에 미치는 도움의 여부	92
<표 13> 참석 예배 종류	93
<표 14> 목장 모임을 통한 공예배 참석의 동기부여 여부	93
<표 15> 삶공부 교육의 참여 여부	94
<표 16> 교육 기간	95
<표 17> 교육의 장점	95
<표 18> 기도의 유익	97
<표 19> 목장 사역이 기도생활에 미치는 도움의 여부	98
<표 20> 가정교회 사역이 전도에 미치는 도움의 여부	99
<표 21> 가정교회 사역이 선교에 미치는 도움의 여부	101
<표 22> 이전 교회 이탈 이유(전체)	103
<표 23> 성도 유형별 교인의식 특성	104
<표 24> 수정된 삶공부 과정 개요	111
<표 25> 인간의 삶 과정의 개요	112

<표 26> 인간의 삶 과정의 커리큘럼	112
<표 27> 노인대학 프로그램	114
<표 28> 목장 모임 순서	115
<표 29> 목장 모임 범주	11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

1884 년 서구의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128년의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발적인 수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교회는 경이적인 수적 성장이 무색할 만큼 한국 사회에서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분열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회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더 분열되고 상처를 안고 있다.

지금, 한국에는 약 오천만 명의 인구에 60,000개에 가까운 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개신교 교단 수가 많게는 약 300개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분열 현황 가운데서 교회의 일치는 한국 교회에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교회의 반목과 분열과 경쟁을 초래하는 현재의 개교회주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이는 즉, 교회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공동체 의식의 결여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공동체 의식이 전혀 결여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민족 중심의 국가주의적 결집력이 쇠퇴하였다. 대신 순수한 이념이나 사상이 주는 결집력이 더 강해졌다. 이는 현대인들이 물리적인 공동체 보다는 이념과 사상적인 공동체를 원하는 것에 기인한다. 이것을 충족시켜줄 때, 공동체 의식은 더욱 더 고취될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이 고취되고, 각 교회들의 이념과 사상이 일치한다면 개교회의 일치에서 나아가 한국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는 현대인들이 공동체에 요구하는 것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됨의 근본을 개교회가 아니라 더 작은 교회에서 찾는 것이 필요하다. 개교회는 기초 공동체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확장 시키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개교회를 중시하는 것의 문제는 이를 중요시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교회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져 타 교회와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과 개교회 안에서도 서로 통합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개교회주의에 집착함으로 인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교회 내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개교회만이 가지는 공동체성이 아닌 어느 교회에서나 기초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 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한 가정교회의 사역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현재 한국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어려움의 원인이 본 연구자는 한국교회의 공동체성의 부재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교회의 사역은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가정교회 사역의 장점은 친밀성과 개인의 존중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은 공동체성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회복시킬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사회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안녕과 이익을 챙기는 일 때문에 발생한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생각을 전환하여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관심을 가진다면 개인은 상생을 꿈꿀 수 있게 된다. 교회 내에서는 가정교회 사역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바람직한 가정교회의 사역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한 실례로써, 화평교회, 열린문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살펴봄으로써 이론 및 실제적 가정교회의 사역을 통한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본 연구자가 섬겼던 순복음옥수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쳐 나갈 것이다. 먼저, 옥수교회의 역사 및 비전 등을 살펴보고, 교회의 목회 사역 특히

가정교회 사역에 대해 분석한 후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 논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순복음옥수교회를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공동체성의 회복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 방법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은 먼저 문헌 조사 방법론을 사용하여 가정교회의 사역의 정의 및 특징 등을 고찰한다. 또한 모범적인 가정교회 사역을 알기 위해서, 사례 조사 방법론을 통하여 화평교회와 열린문교회,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살펴볼 것이다. 계속해서 설문 통계 조사를 행하여 문헌 조사 및 사례 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효과적인 가정교회 사역에 대해 모색할 것이다.

제 4 절 연구의 개요

먼저, 1장은 본 연구의 서론으로서 문제제기 및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한국 교회의 분열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 교회의 일치의 필요성을 주지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가정교회 사역을 통한 한국 교회 공동체성 회복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2장에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고찰을 한다. 이 장에서는 교회의 어의 및 신학적 의미를 연구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전이해를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 어의 및 신학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공동체와 교회와의 관계를 논할 것이다. 3장에서는 가정교회에 대한 고찰을 한다. 가정교회의 정의 및 신학적 의미를 고찰하여 일반적인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가정교회의 기능 연구를 하여 공동체와의 관계성을 살펴 볼 수 있다. 가정교회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가정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이며, 섬김의 공동체이고 선교 공동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통하여 이 사역의 장점과 단점을 고찰한다. 동시에 한국 교회에서 가정교회 사역의 어려움도 논의한다. 또한 화평교회, 열린문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살펴봄으로써 이 가정교회 사역이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 방안이 됨을 밝힐 것이다. 4장에서는 순복음옥수교회 사역을 분석한다. 여

기에서는 순복음옥수교회의 설립, 역사, 비전 등을 살펴본 후, 교회가 놓인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교회의 일반적 사역 등 목회적 상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 특히, 목장 사역, 교육사역, 전도 및 선교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에 대해 평가하고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과제를 모색한다. 5장에서는 순복음옥수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가정교회 사역을 고찰한다. 위에서 살펴본 성공적인 가정교회 사역을 통한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한 예와 더불어 가정교회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순복음옥수교회의 바람직한 가정교회 사역을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은 가정교회의 리더십 개발, 가정교회 구성원의 교육, 가정교회 구성원의 전도와 선교이다. 6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앞에서 논의하였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결론으로 연구를 마무리한다.

제 2 장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고찰

교회란 한자어로 가르칠 교(敎), 모일 회(會)로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의 교회는 사전적인 의미로 기독교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를 의미한다. 즉 교회를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예배당 혹은 교회당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를 특정 분파 혹은 교단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는 교회라는 단어의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해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성서에서 나타나는 단어로서의 교회의 용례를 살펴보고, 그 신학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단어로서의 공동체의 성서 용례와 신학적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교회의 정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가정교회 사역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가정교회 사역과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회복하는 방법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가정교회 사역이 이뤄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성서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고, 신학적 의미를 고찰하여 교회의 정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교회의 어의

교회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구약성서의 단어는 ‘קָהָל(카할)’, ‘עֵדָה(에다)’이다. 먼저 카할은 그 어원이 √קָהָל, 즉 소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어원으로 미루어보아 카할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모인 자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구약성서에서 카할은 124회 나타난다.¹⁾ 카할의 대표적인 모임은 모세 시대 시내산에서 모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신명기 4장 10절은 “내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아졌고 하나님은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한다. 또한 이 단어는 특수한 목적이나 목표를 위해 모인 모임 또는 모인 무리를 말한다. 시편 26편 5절은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씀한다. ‘집회’라는 말이 카할인데 이 역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인 무리를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신명기에 따르면, 모인 자들의 모임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다. 신명기 4장에 이어 5장 22절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른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인 십계명을 전달한다(신 9:10; 10:4; 18:16; 33:4). 그리고 뒤이어 신명기 23장 2-9절은 이런 모임을 하나님 여호와와 백성, 즉 오늘날 교회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러한 모임인 교회에 속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며, 정결한 자들이다. 예레미야애가 1장 10절은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라고 말씀한다.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또한 느헤미야 13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1)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rans, John T. Willis, David E. Green (Michigan: William Eerdmans Pub., 1988), 529.

그 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도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참조. 스 9:10-12). 이방 민족이나 부정한 자들, 약탈하는 자들은 이 모임에 속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여호와와의 모임에는 부정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히 시편에서 카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시편 22편 26[25]절은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라고 말씀한다. 이 모임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를 경외한다(시 40:10; 107:32). 카할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시 89:6), 경건한 모임(시 149:1) 등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구약성서에 카할은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를 위해 모인 모임 또는 모인 무리를 의미하며 이 모임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이 무리를 모은 자는 하나님이기에 이 무리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 자들 즉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없다.

교회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또 다른 구약성서의 단어인 에다는 $\sqrt{\text{עדה}}$ 이 그 어근이다. 이 의미는 “가리키다, 정하다” 등이다. 이 단어는 구약성서에서 149번 나타나는데 주로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타난다(81회). 또한 역사서에서는 7번, 예언서에서 3번, 시편에서 10번 나타난다. 즉 에다는 지정된 때와 장소에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²⁾

출애굽기 12장 3절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에다는 유월절에 참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또 출애굽기에서 에다는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다(출 16:1, 22; 17:1; 34:31; 레 4:15). 레위기 8장 3-5절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

2) 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3), 17.

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라고 말씀한다. 여기에서는 제사장 임명식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에다는 여호와와의 절기나 성일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한다(참조. 출 23:17; 레 23:4).³⁾

그러나 에다는 위에서 살펴본 카할과 다른 용례를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출애굽기 12장 3절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말씀한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절기와 관련된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에다가 사용된다. 이어서 나오는 6절은 “이 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카할)이 그 양을 잡고”라고 말씀한다. 같은 장에서 같은 대상을 지칭할 때 한 번은 에다가 한 번은 카할이 사용된다.⁴⁾ 그러므로 이 두 단어의 구분은 어렵다.

또한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성서에서 ‘εκκλησια(에클레시아)’와 ‘συναγωγη(쉬나고게)’라는 두 단어가 있다. 먼저, 에클레시아는 ‘~으로부터’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 εκ(에크)와 ‘부르다, 소환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καλεω(칼레오)의 합성어이다. 유추해보건데 에클레시아는 ‘~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을 지닌다.⁵⁾

사도행전 19장 39절은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지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민회’라고 번역된 것이 에클레시아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교회’라고 번역된 것이 에클레시아이다. 신약성서에서 에클레시아는 구약성서의 카할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모임을 의미한다.

좀 더 자세히 고전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는 단어가 일찍이 주전 5세기의 저술들에서부터 발견되는데, 그 뜻은 폴리스(polis)의 시민들의 집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스에서는 남자 자유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도시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이를 가리켜 에클레시아라 한다. 한마디로 남자

3) 이원우, *성서(기록한 글들의 도서관)* (서울: 살림, 2005), 75.

4) 이는 다른 구절에서도 나타난다. 레위기 4장 13-14절은 카할, 15절은 에다가 사용되었다.

5) L. F. Church, *매튜 헨리 요약 주석 9*, 신현학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224.

시민들로만 이루어진 세속적이고 정치적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칠십인역에서 에클레시아로 옮겨진 용어는 위에서 살펴본 카할이다.

에클레시아의 본래 의미는 집에서 어떤 공공적인 장소로 불러낸 모임이나 회합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정규적으로 소집된 정치적 단체로서의 백성들의 모임과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⁶⁾

카할은 에클레시아와 달리 때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하는 일반 백성의 모임(느 8:2)이란 뜻으로도 쓰인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그리스의 에클레시아 단어를 받아들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누구의 집에서 ‘모임’(약 2:2에서만 쉬나고게 사용)을 갖거나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리킬 때 이 용어를 사용한다.⁷⁾

교회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또 다른 신약성서의 단어인 ‘συναγωγή(쉬나고게)’는 ‘~과 함께’라는 뜻의 ‘συν(쑤)’과 ‘인도하다, 오다’라는 뜻의 동사인 ‘αγω(아고)’의 합성어다.⁸⁾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 보건데 그 뜻은 ‘함께 인도하다’ 혹은 ‘함께 오다’라는 것이다. 쉬나고게의 일반적인 의미는 기본적으로 함께 모으는 것이나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열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의미를 나타내는 종말론적 의미로도 쓰인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쉬나고게로 묘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유대인을 뿌리로 하여 발생한 집단(유대인들의 집회, 또는 장소)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회피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 단어는 개역성서에서 “회당”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는 전적으로 유대인의 종교적 집합이나 공예배를 위해 모인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한다. 물론 회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의미하기는 하나, 신약성서에서 쉬나고게는 주로 유대인들이 예배하기 위한 곳임을 의미한다(마 6:2, 5; 9:35; 12:9; 13:54; 막 1:39; 3:1; 6:2; 눅 4:15; 6:6; 요 18:20 등).

6) 고영민, *신약성서 헬라어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5), 127.

7)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로 정착한 *ἐκκλησία*가 바울 이전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용된 점은 분명하나, 언제부터 쓰였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8) 하문호, *기초교의신학: 교회론*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0), 19.

신약성서에서 교회는 구약성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이 모임에서도 역시 모인 이들을 부른 자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성서에 나타난 교회에 관한 단어들을 통해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의미는 첫 번째, 교회는 이방인과 부정한 자들이 제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 모인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임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다. 그렇다고 교회가 단순히 인간의 단체가 아니라 이 모임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부른 자들의 모임이다. 세 번째, 교회는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자들의 모임 즉 공동체를 의미한다. 동시에 모임의 사건과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즉, 교회의 존재는 정체되어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구현되는 사건과 과정 속에 있으며, 그의 존재는 철저하게 행위 속에 있는 존재이다.

2. 교회의 신학적 의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교회에 대한 성서적 용례를 바탕으로 한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항에서는 교회의 신학적 의미를 알아보려고 한다. 성서적 용례 고찰은 그 단어의 사용 배경까지 그 연구 범위가 될 수 있지만, 신학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고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하나님의 현존 및 백성의 연합

출애굽기 33장 7-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처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회막’에서 여호와를 만난다. 그리고 여호와와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회막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였다. 회막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만남의 장소가 된다.⁹⁾

또한 회막은 하나님을 찾는 이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민수기 2장 17절은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기를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 밖이 아니라 중심에 존재한다. 회막 안쪽에는 레위인들의 장막, 모세의 장막, 아론과 그의 자녀들의 장막이 있었고, 바깥쪽에는 각 지파별 장막이 있었다(참조. 민 3:38).

이 회막은 모세와의 만남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현존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한다. ‘여호와의 영광’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곳이다. 제의, 성소, 성막 등에 여호와의 영광이 존재해야만 합법적인 장소가 된다.¹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성서에서 교회를 예표하는 성막이나 성전은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역할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성서에서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이야기한다. 베냐민 지파의 만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개하여 이들과 전쟁을 결심하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와 길르앗 땅에서 미스바로 전쟁을 위해 모인다. 성서는 이 모인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칭한다. 여기에 모인 이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모이지 않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9) Walther Eichrodt,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1 (London: SCM Press, 1975), 104.

10) Werner H. Schmidt, *구약성서입문* 1, 차준희, 채홍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58.

군대가 아니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의 용사가 된다. 그리고 이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다.

또한 출애굽기 6장 7절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고 말씀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속해 있는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에 행동하셨던 하나님은 선조들을 택하실 때에도 행동하셨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였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렘 31:31-34). 이는 종말론적 기다림으로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이방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는 신약성서에도 동일하다. 누가복음 1장 68절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라고 말씀한다. 또한 77절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말씀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란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행위를 강조한다.¹¹⁾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을 그들과 연관 지으셨으며 그의 역사적인 백성의 연속과 성취로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인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

11) Millard J. Erickson, *교회론*, 이은수 역 (서울: CLC, 1999), 34.

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다. 교회의 모든 신자는 그들의 사회적 신분에 상관 없이 하나님 안에서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참으로 교회가 만민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부르심을 전제로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의 시작은 경건한 신자 개인에게서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된다. 물론 교회는 신자 개인들에 의해 성립된다. 그러나 교회의 부분으로서의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될 때에만 교회는 개인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 개인 그 자체가 아니라, 부름 받은 개인이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부름은 신앙을 포함한 개인의 모든 행위에 선행하고 하나님의 온 백성을 상대로 행해지므로 신자 개인은 공동체 내에서 존재하며, 나아가 각 개별 공동체도 교회라는 한 공동체 내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욕구나 종교적 욕구의 소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교도들 자유인과 노예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 등 상이한 모든 부류가 집결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하나의 제도로써 본질적으로 전체성을 강조한다.¹²⁾

나. 그리스도의 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한다.¹³⁾ 로마서 7장 4절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다.

바울은 율법을 결혼과 연관을 지어 설명하고 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 남편의 아내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풀려나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2-3절). 이렇듯 그리스도

12) Hans Küng, *교회*, 정지런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173-174.

13) 참조. 롬 7:4; 12:4-5; 고전 10:16-17; 12:12-27; 골 1:18,24; 2:16-19; 3:15; 엡 1:23; 4:4-6,5 등.

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한다(4절). 즉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는 문자와 같으면서 우리를 옳아맺던 율법에 대해서 풀려났고 성령이 주신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권면한다(6절).

또한 로마서 12장 4-5절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한 몸($\sigma\omega\mu\alpha\ \epsilon\sigma\mu\epsilon\nu$, 소마에스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4절과 함께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

본 구절이 속한 12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를 제시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취할 태도로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다. 바울이 제시하는 권면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전반에 걸쳐 폭넓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먼저 다루는 주제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동료 신자들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바울은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진 많은 구성원들에게 각각 다른 기능을 갖는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듯이(3-5절), 교회 안에서의 각양 은사는 서로 섬기라는 봉사의 직분으로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원칙(6-8절)과 구체적인 권면(9-13절)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17절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씀한다. 본문은 서신으로 항의해 온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답변들 중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교훈하는 내용에 속해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피하라고 권면한다. 마찬가지로 성만찬에 참여하여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성만찬에 대한 바울의 구원론적 접근은 그의 교회론과 잘 어울린다. 16절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의 사건에 참여케 되는 구원론적 언급이라면, 17절은 이러한 구원의 사건에 참여한 각 그리스도인이 이제 소외된 개인의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전체에 연합되었음을 교회론적으로 말해준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한다. 본 구절은 서신으로 항의해 온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답변들 중에 은사 문제에 대해 교훈하는 내용에 속해있다.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였지만 은사가 많은 공동체였다. 그러나 그 은사들을 질서 있게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바울은 다양하게 주시는 은사는 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다양한 은사는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졌음을 가르치고 있다.

바울에 의해 고백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율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이 주신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이 되며 특별히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다양하며 각각 다양한 기능을 하는 은사로 봉사해야 한다. 동시에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므로 다양한 은사는 공동체에 필요해 의해서 주어진 것이 된다. 그리고 구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 중 하나가 성만찬이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떼는 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행위가 된다.

다. 하나님 나라

예수의 공생애 시작의 선포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는 것이다.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예수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이다.¹⁴⁾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구약성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구약성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14) 볼트만(R. Bultmann)은 ‘예수의 메시지의 가장 지배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the Reign of God)이다’라고 말한다. 참조. Rudolf Bultmann, *신약성서신학*, 허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76), 2.

또한 페린(N. Perrin)도 ‘예수의 가르침의 중심적 측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사실상 현대의 학자들에게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한다. 참조. Norman Perrin, *Rediscovering the Teaching of Jesus* (London: S.C.M. Press, 1967), 54.

크로산(J. D. Crossan) 역시 역사적 예수의 생애에 대한 그의 논의를 ‘중개자 없는 하나님의 나라’(Brokerless Kingdom)라는 명제 아래에서 전개하였다. 참조. John Dominic Crossan, *The historical Jesus: the life of a Mediterranean Jewish peasant*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1), 225. 보그(Marcus J. Borg) 역시 예수 교훈의 중심적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한다. 참조. Marcus J. Borg, *Jesus in Contemporary Scholarship*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4), 52.

그 개념은 구약전체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약성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 곧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그가 온 우주 위에 군림하시는 왕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심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왕적인 통치 아래의 백성, 곧 그의 왕국이 된다(출 19:5 이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구약성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곳은 41번에 이르고 있다.¹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리고 특별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사상은 구약의 한 중심 사상이 된다.

동시에 성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한다.¹⁶⁾ 바울은 신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기록한다. 교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¹⁷⁾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의 왕권은 사람들 위에 실현된다. 하나님의 왕권 개념은 그를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의 존재와 그의 은혜로운 능력이 명백히 드러나는 사람들의 영역의 설립을 모두 암시한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없다. 물론 교회는 다가올 완성될 나라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살고, 기다리고, 순례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친교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고 기다린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는 하나님 통치라는 실제의 표징이요, 아직 미래의 일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키는 전조이다. 교회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없다.

15)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참말, 1993), 42-43.

16) 참조. 레 26:12; 출 29:45; 겔 37:27; 렘 31:1.

17) D. Watson, *교회의 진정한 표상*, 오광만 역 (서울: 여수문출판사, 1993), 108.

제 2 절 공동체의 정의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다. 교회는 하나님의 현존이 존재하는 곳이며, 이 하나님의 현존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른 백성들이다. 동시에 교회는 성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모인 백성들은 몸의 일부분이 될 수 있고, 이 몸의 일부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또한 교회는 예수가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현재화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곳이 된다.

이러한 교회는 개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서 존재한다. 이 공동체의 정의 및 신학적 의미를 고찰할 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정의할 수 있고, 나아가 바람직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

1. 공동체의 어의

공동체(community)란 단어는 중세 영어에서 comunte(커뮌트)라고 쓰였던 명사로 라틴어의 comunitas(코뮤니타스)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코뮤니타스는 같은 라틴어의 comunis(코뮤니스)라는 말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코뮤니스는 ‘나누다, 공동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등의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코뮤니타스는 공동생활(communion), 친교(fellowship) 등의 비교적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¹⁸⁾ 물론 성서에서 공동체를 지칭하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상징하기는 어렵지만, 그 개념은 분명하게 성서에 나타난다.

먼저 구약성서에서의 공동체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개개인의 생활보다는 가족과 족장 혹은 지파의 삶을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구약 시대의 사회에서의 가족의 중요성은 이와 관련된 수많은 제도들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 출생, 사춘기, 혼인, 자녀, 재산, 유산, 노령, 죽음 등의 사회 관습들은 가족의 모든 중요한 분야들에서 구약성서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규정짓는다.¹⁹⁾

18) G. & C. Merriam Company,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Mass.: G. & C. Merriam Co.,1981), 168.

19) Brevard S. Childs, *구약신학*, 박문재 역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208.

이것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아들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창세기 16장 1절 이하에는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고 말씀한다. 아브람은 자신의 혈통을 잇기 위하여 여종을 택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을 잇기 위하여 자기 이웃들과 다양한 형태로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보여준다.²⁰⁾

또한 창세기 10장 6절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라고 말씀한다. 또 22절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함의 아들의 가나안과 셈의 아들 아람은 모두 노아의 아들 개인의 이름과 동시에 민족의 이름이다.

이처럼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다. 개인은 자기 가족의 일원이었다. 구약성서는 가족을 집(בַּיִת, 바이트)이나 아버지의 집(בֵּית אָבִי, 베이트 아브)이라고 묘사한다. 창세기 24장 38절은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한다. 또한 40절은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고 말씀한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집이 가족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가족은 4대가 함께 살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남자들이 있고, 그 남자들의 아내들이 함께 살며,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함께 살고, 남종들과 여종들, 거류민들과 외국의 노동자들도 함께 살았다.²¹⁾ 이런 가족 구성원을 이뤘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개인보다는 가족이 더 중시되었다.

로빈슨(H. W. Robinson)에 따르면, 공동체 안에 속한 개인은 단지 통합된 전체의 한 부분만은 아니었다. 그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인격이었다. 그러나 공동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는 공동체와 하나였고,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었다. 즉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생각될 수 있고, 공동체는 한 개인 안에서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²²⁾

20) Childs, *구약신학*, 208.

21) Hans Walter Wolff,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6), 368.

또한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공동체에 관해 살펴보면, 신약성서는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에서 서쪽을 퍼져나갔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의 지배와 경제적 착취를 증오하여 직접 저항운동에 가담해 싸우든지 아니면 정치력이 흥하거나 쇠하거나 하여 발생하는 불안과 사회적 불안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의 길을 떠나야 했다. 고향과 집을 떠나 낯선 땅에 기거하며 돌아갈 날을 고대하던 무리 중에서 종교적 의미를 찾아 메시아 운동에 가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예수는 이러한 사회를 향해 메시아적, 예언자적, 혹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로서 이 땅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포했다.²³⁾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와 함께 모였고 그와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참조. 마 10:1, 5-15; 막 6:7-14; 눅 9:1-6). 예수의 공동체는 공동체의 이상과 내용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와 일치한다. 즉 예수의 공동체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촉구는 예수가 그의 공동체에 당부한 그의 유언 혹은 지상 명령(마 28:19-20; 참조. 사 1:8)에 따라 계승된다.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부활 이후에도 그 공동체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당부한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교회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종말 사상이 퇴조하고 일상성에 빠져, 종말적 의식으로 살아가던 처음 제자들의 역동적인 삶의 공동체가 생명력을 상실하고 ‘교회’라는 제도적 조직체로 화석화하는 과정이 여기서 일어난다.²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교회는 예수의 임박한 재림이 지연되면서 제도적 교회로 변해간다. 이러한 제도화의 과정을 안병무는 그의 책, *민중신학 이야기*에서 세례와 성찬의 의식화와 사도권의 확립으로 지적한다.²⁵⁾ 또한 서남동은 이러한 제도적, 행정적인 종교 특수화한 교단이 들어서면서 그것을 합리화, 나아가서 절대화하는 기능으로 교리와 신학이 들어선다고 주장한다.²⁶⁾

22) H. W. Robinson, *Corporate Personality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1964), 31-32.

23) 박익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발전,” *기독교사상*, 1989년 5월호, 15.

24) 크리스찬 아카데미 신학연구 위원회 편, *공동체 신학의 모색* (서울: 전망사, 1992), 81.

25) 안병무, *민중신학 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158.

예수 이후 바울 역시 많은 구절에서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전 11:16; 14:33; 고후 8:18; 11:8; 12:13; 갈 1:2, 22; 롬 16:4; 16). 바울은 이를 단수형과 복수형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때로는 관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교회의 장소는 다양하게 거론된다. 테살로니가(살전 1:1; 살후 1:1), 고린도(고전 1:2; 고후 1:1), 겐그레아(롬 16:1), 라오디게아(골 4:16) 교회 등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며, 아시아(고전 16:19), 갈라디아(고전 16:1; 갈 1:2), 마게도냐(고후 8:1), 유대(갈 1:22; 살전 2:14) 교회 등은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이다. 바울은 큰 공동체에 속한 작은 가정교회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예배를 위해 모인 모임을 지칭했다(고전 11:18; 14:23, 34). 형태는 다양하나, 모두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의 모임이다.(참조. 고전 12:28).²⁷⁾

신약성서의 공동체는 모습이나 위치가 다양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는 모임이다.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살전 2:14; 갈 1:22)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다(롬 16:1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의미한다.²⁸⁾

위에서 살펴본 대로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며, 이 모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공동체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임이고,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2. 공동체의 신학적 의미

위에서 살펴본 대로 공동체의 성서적 용례를 바탕으로 현 공동체의 의미는 가족과도 유사한 모임이며,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항에서는 공동체의 신학적 의미를 알아보려고 한다. 성서적 용례 고찰은 그 단어의 사용 배경까지 그 연구 범위가 될 수 있지만, 신학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고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서울: 한길사, 1983), 16.

27) Küng, *교회*, 111-112.

28) Ibid.

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실현

우리가 믿는 자신의 존재론적 근거가 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본질에 기원을 두기 때문이다.²⁹⁾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의 실체(實體, *substantia*) 안에 세 위격(位格, *personae*)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하는 말이다.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서 존재하시는데, 이 위격들은 하나의 하나님의 본성(本性, *natura*)이시고, 하나의 하나님 본질(本質, *essentia*)이시며, 하나의 하나님 실체이시라는 것이다.³⁰⁾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해 몰트만(J. Moltmann)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소통과 사귄으로 본다.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에 따르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상응하는 것은 한 지배자의 단일군주체제가 아니라, 특권과 억압이 없는 인간의 사귄이다. 세 신적인 위격들은 그들이 가진 위격의 특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 이러한 삼위일체와 상응하는 것은 그 안에서 위격들의 권력과 소유를 통하여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상호 간의 관계와 서로를 위한 의미를 통하여 정의되는 사귄이다.³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을 형성하는 것을 설명하는 신학적 개념은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 침투 혹은 순환)’이다. 이 용어는 다마스쿠스의 요한(John of Damascus, 약 주후 675-749년)이 만들어낸 개념이다.³²⁾ 이는 침투와 공재의 의미가 혼합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상호 침투하셔서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성부와 성자는 성령 안에 거하시는 공재적 삶을 형성하고 계신다.³³⁾

요한복음 14장 7-11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29)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유교적 가족주의를 극복할 공동체 교회가 답이다* (성남: 브니엘, 2006), 237.

30) 배승록,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복음과 문화*, 71.

31) Jürgen Moltmann,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6), 237.

32)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250.

33) 김명용, “교회를 위한 삼위일체신학,” *교회와 신학* (2001): 59.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삼위가 일체인 것은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성령이 되고 성령이 성부가 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9절의 의미는 ‘예수가 아버지이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온전히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그러므로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한다. 본 구절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재하고 계신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기 자유로운 존재이고, 독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각 위격의 특징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서로 동등, 서로 존중, 서로 의존, 서로 신뢰하는 관계 즉 사권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동체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적으로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 삼위일체가 서로 사권의 공동체 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이를 따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은 서로 다른 원리나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교회에 공존한다. 때때로 이들은 서로 다른 원리와 가치관으로 서로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을 수 있고, 혹은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다. 공동체는 이러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더욱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공동체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힘써

야 한다.

나. 유기체의 실현

유기체(有機體)란 생물체, 즉 살아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말로서 “생물처럼 물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생활 기능을 가지게 된 조직체”를 의미한다. ‘유기적’이란 용어는 1800년경 프랑스 병리학자 비샤(Bichat)에 의해 처음으로 정의되었으며 그는 동물골격의 대칭보다는 내장기관이나 식물의 비대칭성을 유기적 구조의 특성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이후 생물학자와 동물학자들에 의해 동물의 형태, 성장, 변이 등이 환경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정의되고 설명되면서 자연과학이 유기적 이론의 핵심을 이루었다. 유기주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유기적 조직은 전체가 부분의 합으로 배열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유기체의 개념은 몸과 유사한 의미이다. 그러나 몸보다 구체적인 의미로 각각의 부분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깊은 관계를 가지는 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유기체는 각각의 부분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기체들 간의)관계를 의미한다.³⁴⁾

이는 위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12장 4-5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2-26절에서 유기체적 공동체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구절에 본 구절들도 포함하여 로마서 7장 4절과 고린도 전서 10장 16-17절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로마서 7장 4절은 그리스도 안의 새 존재를 율법과의 관계를 의미하며, 고린도전서 10장 16-17절은 성만찬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성례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언급하는 본문으로써 유기체들 간의 관계의 의미가 다소 부족하다.

반면 로마서 12장 4절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한다. 본 구절에 따르면, 바울은 몸과 지체의 관계를 설명한다. 한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그 각 지체들이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한 몸에 존재하고 있는 각 지체는 각자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시에 그 지체들은 다양하다.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결코 획일

34) 손철송, 김용성, “현대건축의 유기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집* (1998, vol 20): 578-579.

적이지 않다. 몸 안에서의 각각의 지체들은 자신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독특한 역할을 해낸다. 5절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한다. 본 구절에 따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묘사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공동체의 하나됨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2-26절은 은사문제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는 구절이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바울은 다양한 은사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고린도전서 전체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는 권면으로 시작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일치’를 호소하는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³⁵⁾ 12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한다. 본 구절에 따르면 바울은 몸과 지체의 관계는 개체와 전체의 관계가 아니라, 다양하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다양한 유기적인 관계임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개체로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선언한다.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27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 은유에서 앞부분(14-20절)은 여러 지체로 구성된 한 몸 공동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21-26절)은 공동체 내의 다양한 지체들의 상호의존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므로 유기체는 각각의 부분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깊은 관계를 가지는 몸으로써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의 유기체로서 공동체는 다양성을 가지며 획일성을 배제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공동체 내에서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공동체의 하나됨의 근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체는 바람직한 유기체를 실현해야 한다.

공동체의 신학적 의미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발현하는 것이다. 삼위

35) Margaret M. Mitchell, *Paul and Rhetoric of Reconciliation* (Louisville: Westminster / John Knox Press, 1991), 1-64, 유승원, “그레코 - 로마 세계의 몸 메타포와 바울의 교회 공동체 개념,” *신약논단* (2001): 155쪽에서 재인용.

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귀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듯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도 이 공동체를 발현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는 각각의 부분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깊은 관계를 가지는 몸인 유기체의 모습을 실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성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인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며, 이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과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율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이 주신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와 하나의 몸이 된 자들을 의미한다.

또한 성서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가족을 포함하기도 하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함께 행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 혹은 공동체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교회와 동일한 역할이다.

특히 공동체는 삼위일체가 서로 사귀의 공동체 이듯이 서로 개인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등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개인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깊은 관계를 이루는 유기체적 모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삼위의 서로 사귀의 모습을 닮고, 유기체적 모습을 간직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더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기억하며 간직해야 한다.

현재의 교회는 이러한 본질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가정교회의 사역을 실행하는 것이 있다. 가정교회 사역이 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 수 있는 지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제 3 장

가정교회에 대한 고찰

예수의 부활 후 초대교회는 가정에 회중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사도행전 2장 46 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한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전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도 모임을 가진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은 모임 중에 성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떡을 떼고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정교회 사역은 비단 초대교회가 최초는 아닐 것이다. 또한 오늘날 가정교회의 사역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른 점은 교회가 처한 시대와 상황, 문화 등에 따른 이유로 나타나는 것이다.

본 장은 이러한 가정교회 사역을 다룰 것이다. 먼저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정의를 한 후, 가정교회의 기능에 관하여 논의한 후, 현대사회에서 가정교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그 후 한국에서 가정교회 사역을 행하고 있는 열린문교회와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고찰할 것이다. 이는 성서와 교회 역사에서 나타나는 가정교회의 사역을 살핌과 동시에 현재 가정교회의 사역을 살피는 역할을 하게 한다.

제 1 절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가정교회 사역을 통하여 한국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교회 및 공동체의 정의를 확인하였고, 신학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가정교회에 대한 정의를 고찰할 것이다. 가정교회의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은 한국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가정교회 사역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이

다.

1. 가정교회의 정의

‘가정교회’라는 용어는 오늘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³⁶⁾ 이러한 용어를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의 정의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찾는다면 그 기원을 초대교회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한 정해진 건물보다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나누고 전도에 힘썼던 것을 지역교회의 형태로 접목하여,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 평신도가 사역 주체로 기능하게 하는 교회를 뜻한다.³⁷⁾

가정교회라는 용어는 오늘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사용된다. 첫째는 ‘작은 교회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교회와 완전히 분리되어 규모가 작은 교회를 선호하는 독립된 가정교회이다. 이러한 가정교회는 완전한 교회의 형태를 가정 안에 갖추고 있어서 지역교회의 대부분의 사역을 독립된 가정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사역한다. 두 번째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의 개념으로 기존의 교회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교회 안의 세포(cell)로 기능하고 소그룹을 양육하기 위해 초대교회의 기능적 장점을 차용한 개념이다.³⁸⁾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규모상 소그룹 형태를 띤다. 일반적으로 소그룹 운동은 성경공부, 친교, 제자훈련 등 어떤 한 가지 목적으로 위해 기능한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이러한 소그룹 모임의 기능적 제한을 넘어서서, 그 자체로서 교회의 기능 중 성례와 성찬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³⁹⁾ 만약 가정교회가 성례와 성찬까지 수행한다면 그것은 지역교회와 독립된 하나의 완전한 교회의 개념을 성립하

36) 가정교회를 지칭하는 용어는 형식이나 내용상의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랄프 네이버와 윌리엄 백햄의 ‘셀교회’, 둘째 로버트 벅크스의 ‘가정(Home) 교회’, 셋째 최영기의 ‘가정(House) 교회’이다.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정 목장’이라는 용어는 이미 라일 샬러(Lyle E. Schaller)에 의해 사용되었고, 후에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와 조지 헌터(George G. Hunter)가 사용하였다. 참조. Peter, C. Wagner,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김선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69.

37) 최상태,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66.

38)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서울: 에벤에셀, 2004), 17.

39) 윤삼득, “가정교회 활성화를 통한 교회성장 방법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6.

는 것이므로, 교회의 정통성을 위협한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성찬과 성례를 제외한 교회의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독립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지역교회의 기능을 평신도들에게 상당부분 부여하여 수행하는 공동체이다. 개신교회의 대표적인 표지인 말씀 선포, 권징, 성례와 성찬이 가정교회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교회는 우주적 교회의 한 부분이요 기초단위로서 기능한다. 가정교회가 명확히 수행하지 못하는 권징과 성례, 성찬은 더 큰 공동체인 지역교회 혹은 모교회에서 실행하여 보충할 수 있다.

또한 가정교회는 사역방식에 있어서 지역교회와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진다. 가정교회는 단순히 종교적 생활을 위한 공간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구현된다. 다시 말해 가정교회는 일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공동체적으로 기독교적인 신앙적 삶을 사는 방식인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개별적인 독립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생활 방식을 벗어나 공동체적인 생활방식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가정교회는 진정으로 회심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따라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 때, 자신의 삶과 자원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 주변의 비 그리스도인들과 공유하기 시작할 때 구현된다.⁴⁰⁾

이러한 가정교회의 공동체 생활은 관계적이고, 유기적이며, 혈연적 가족을 확장한 영적 확대가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가정교회는 가정의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가족보다 큰 상위단체의 조직이나 직급 혹은 대 집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많은 부분에서 친지나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반영한다.⁴¹⁾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대그룹 교회가 가지는 한계, 다시 말해 서로 돌보고 교제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채워줄 수 있다.

이러한 친밀성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는 단지 관계가 가까운 친족집단 혹은 친밀집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조된 교회이다. 따라서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해 사랑과 진리, 용서, 믿음 자비 등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이는 기존의

40) Wolfgang Jimjon, *가정교회: 침투적 교회 개척론*,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141.

41) 김덕렬, “개혁주의 교회론으로 본 가정교회”(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38.

지역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가정교회는 이러한 속성을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가정교회의 기능

가정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이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42-47절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정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성만찬과 기도예행사에 힘썼다. 또한 모두 함께 지내고, 개인의 것을 공동의 소유로 한다. 또한 공동의 재산이 된 소유를 팔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대로 나눠준다. 또한 날마다 성전에 모이며 예배에 힘쓴다.

가정교회의 기능은 첫째, 공동식사를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교제하기에 힘쓴다. 교제라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떡을 떼며 행하는 것이다. 이는 ‘주의 만찬(Lord’s Supper)’에 대한 바울의 표현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라고 말씀한다. 바울은 확실하게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사용된 ‘δειπνον(데이프논)’은 예수를 기념하는 식사라든지 식사의 일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평범한 식사였다.⁴²⁾ 또한 이는 손님을 초대하여 손님과 함께 저녁에 먹는 중요한 식사를 지칭한다.⁴³⁾ 이 중요한 식사는 공동체로 모인 모든 자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42) Robert Bank, *바울의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IVP, 2007), 149.

43) 참조. 눅 14:12; 요 13:4; 21:20. Vincent P. Branick,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홍인규 역,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5), 155.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먹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식사 그 자체는 식사에 참여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시적으로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 고린도전서 11장 24-25절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한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씀한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는 식탁 교제를 통해 더욱 돈독하게 될 수 있다. 바울은 공동체를 향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롬 6:8; 고후 7:3),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며(롬 8:17),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롬 6:6; 갈 2:19),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고후 7:3),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내고(롬 6:4; 골 2:12),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고(롬 8:17), 그리스도와 함께 깨워지며(골 2:12; 3:1; 엡 2:6),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고(골 2:13; 엡 2:5), 그리스도와 함께 지배하게(딤후 2:12)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와 삶과 죽음을 같이 하는 이러한 교제는 이 식탁 교제에서 나타나는 것이다.⁴⁴⁾

또한 이 식탁 교제에서 행해지는 떡 자체의 어떤 효능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떡을 나누기 때문에 떡을 떼는 자들은 하나가 된다. 떡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기보다는 함께 모여 하나의 떡을 나누는 행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다.⁴⁵⁾ 이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 상호간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고, 그 관계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서로의 유대를 돈독하게 하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가정교회의 기능은 가정교회가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대교회 예배 모임은 특정하게 정해진 형식이 있다라기 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발적 예배 형식이었다(고전 14:26-33). 오히려 당시의 유대교 제사 관습과는 아주 차별화 될 수 있었는데, 이는 초대교회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어떠한 중재자도 필요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당시 유대교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것이라 여기고 그곳을 제사장에게만 제한된 공간으로 인식했다. 뿐만 아니

44) Küng, *교회*, 315.

45) 서중석, *바울서신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38.

라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가 집전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총은 제사장을 통해 일반 성도들에게 흘러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 이후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는 더 이상 제사장들의 전유 공간이었던 성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없음을 깨닫고,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생각 아래 자신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⁴⁶⁾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단지 성소라는 건축물 개념에서 벗어나 어디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성스러운 교회임을 확인시켜주는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양육과 제자화에 힘쓰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양육과 제자화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몸을 경험하는 것, 서로 사귀는 것,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등이 있었다. 특히 예수의 지상명령(마 28:19-20)을 따라 모든 족속을 향한 제자화와 전도는 교회의 존립 목적이었고, 이를 위해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적 역량이 기울여 졌다. 특히 초대교회는 예수의 직속 제자였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사, 예언자 등의 직분을 세분화하여 각 직분에 맞는 제자화와 양육을 특성화하였다.⁴⁷⁾ 또한 사도행전에 기술된 초대교회의 모임의 핵심은 함께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연속적 경험이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인 영적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성도간의 친밀한 경험을 확장시켰으며, 떡을 떼므로 이 두 가지 경험이 서로 하나임을 확인하는 전인적 양육의 구조(system)를 구축하였다.⁴⁸⁾

넷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사역과 서로를 위한 봉사 사역을 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사도행전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그들의 가정교회에서 물질적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준다. 이는 비단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러한 구제와 봉사사역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⁹⁾ 이러한 경험 속에서,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종교집단에 들어가 소속감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가족 혹은 친족에 갖는 마땅한 의무를 느끼고 사랑의 헌신을 하는 아주 밀접하고 원초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되었다.⁵⁰⁾

46) 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282-288.

47) Branick,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124.

48)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287.

49) 엡 4:12-16.

50) 윤삼득, *가정교회 활성화를 통한 교회성장 방법론 연구*, 10.

다섯째, 초대교회는 교회 자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공동체로 헌신하였다. 당시 유대교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담대한 모습을 보였다.⁵¹⁾ 특히 제자화와 전도를 연관시키고, 전도와 선교를 분업화하여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전도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바울 스스로가 자영업자인 동시에 이방인 선교사로서 자신의 직분을 이해하였다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이중적 정체성, 다시 말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회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복합적 정체성을 공유하였음을 암시해준다. 또한 그의 선교팀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물질적으로 공경에 처해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등 복합적인 선교 모형을 창출하였다.⁵²⁾

여섯째, 은사를 나누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 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한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구절이 많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고린도 교회 모임에서 이 두 은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많은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행해져야 한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속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용하도록 된 것이다.⁵³⁾ 따라서 은사는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독특한 삶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며,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⁵⁴⁾

이러한 은사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다. 은사는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은사가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은사의 사용에 대한 오용이 생기게 된다. 은사가 올바르게 사용되는 경우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11절은 이 은사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51) 김덕렬, *개혁주의 교회론으로 본 가정교회*, 54.

52) Ron Nicholas,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2001), 144.

53) C. Peter, Wagn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41.

54) 오성춘, *은사와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49.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처럼 다양한 은사는 유익을 위한 것이며 그것은 성령의 뜻이다. 가정교회는 독립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지역교회의 기능을 평신도들에게 상당 부분 부여하여 수행하는 공동체이다. 이는 예수의 사역에서도 나타난다. 예수에게 있어서 가정은 주요 사역 장소요,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된다. 예수는 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 때 그 가정 공동체의 구성원은 예수의 사역에 동참한다. 이러한 가정교회 사역은 기독교 역사 내에서 지속된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대를 지나 중세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모임은 주로 가정에서 성서를 읽고 해석하며, 기도하며, 상호 격려하고 양육하는 영적 모임이다. 이러한 가정교회의 사역의 기능은 공동식사를 하는 것, 가정교회가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양육과 제자화에 힘쓰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사역과 서로를 위한 봉사 사역을 하는 것, 교회 자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공동체로 헌신하는 것, 은사를 나누는 것 등이다.

3. 현대사회에서의 가정교회의 필요성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간 개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사상이 주도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인간 개개인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동시에 개별 인간 스스로의 사고와 판단을 중시하는 자율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의무보다는 권리를 중시하며 자신과 가까운 가족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자율성과 자아 충만을 강조하고 개인의 성취와 자신을 동일시하는데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태도가 그 행동을 결정한다.⁵⁵⁾ 이러한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교회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

55) 김주엽,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연세경영연구* (2004): 175-176.

하고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관점과 욕구, 개인의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과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

이는 교회들 간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에서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급성장하였다. 개교회주의는 원리적으로 팽창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한국 교회의 양적 부흥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개교회주의의 지나친 경쟁은 목적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목적전치 현상을 낳았다. 교회는 예산의 확대, 시설의 확장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본래의 목적인 복음 선포, 교회 구성원들을 성숙한 신도로 만드는 일,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 구현 등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더불어 교회들 간의 무한 경쟁은 약육강식의 패권주의가 새로운 구조로 정착되면서 작은 교단의 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대형교회들이 출현하고, 교권과 교단분열로 불신을 받던 교단의 제약을 넘어서서 개교회주의를 형성하였고, 이런 개교회주의는 한국교계에 확산되었다.

이러한 작금의 한국 사회 내 교회의 모습을 타파하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역중 하나가 가정교회 사역이다. 가정교회 사역은 교회 공동체를 중시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모습, 유기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면서 사역하는 것은 각 교회 안 구성원들 간에서도 나타나야 하지만, 동시에 각 교회들 안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그리하여 각각의 교회 내에서 이 가정교회 사역은 그 기초 공동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각 교회에 국한되어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를 넘어서 전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지지하는 기초 공동체로서의 사역으로 될 수 있다.

또한 한국 교회 내에서는 가정교회와 유사한 사역들이 진행되어 왔다. 셀교회, 구역 등이 그것이다. 셀이란 개방적이고 복음전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그룹으로서 사회생활에 함께 얽혀 있는 것이다.⁵⁶⁾ 셀 목회의 연구자인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 Jr.)에 따르면, “셀은 비전통적인 교회로서 교회 안에 있는 셀 그룹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가정에서 모여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신자들 간의 사랑의 교제, 양육, 그리고 서로 간의 돌봄과 사역을 시행하는 교회이다.”⁵⁷⁾ 이는 세포가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것처럼 셀은 교회의 기본단위가 된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셀에서 양육되

56) Joel, Comiskey,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0), 22-23.

57) Ralph W. Neighbour, Jr. *셀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261.

며, 섬기도록 훈련 받고, 교회된다.⁵⁸⁾

그러나 이러한 셀 교회는 조직과 계급이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리더 중심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셀교회는 많은 단계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물론 교회 내 사역에서 리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리더가 조직 안의 대표가 되고, 계급의 최상위에 있다는 것은 리더의 본질이 아니다. 반면 가정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리더의 지도를 받기 보다는 영적 부모들로부터 양육을 받는다. 지도하는 것은 아버지가 할 일일 수 있지만, 아버지가 되는 것이 반드시 리더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⁵⁹⁾ 또한 셀교회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셀그룹을 형성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셀교회 내 프로그램은 주로 젊은이들을 위주로 짜여 있으며, 젊은이들을 위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교회 내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한국 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가정교회와 유사한 사역 중에는 구역이 있다. 구역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외적인 생활 속에서도 선별된 자로서의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믿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 친교는 물론 전도생활을 통한 구체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장이다. 따라서 구역관리는 교인들의 거주분포를 중심으로 하여 적절히 구역을 조직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교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신도 지도자들과 더불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조직적인 목회활동이다.⁶⁰⁾

이러한 구역 모임은 한국 교회 내에서 주로 여성 리더십이 중심이 되어 왔다. 많은 구역 모임들은 남성들이 회사 생활을 하는 평일 낮에 이루어 졌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구역 모임을 주도하며, 교회 내 남성들의 모임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물론 남성이 구역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운 것은 한국사회가 남성에게 지우는 짐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의 회사 내 업무는 야근과 같은 과중하고 혹독한 업무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많은 경우 한국사회의 회사원들은 회사 내에서 업무를 끝내지 못하고, 집에 와서 조차도 업무 처리를 하거나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해 여가시간을 즐기지 못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구역 모임은 회사나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들로 구성될 수밖에

58) Neighbour, Jr. *셀목회 지침서*, 262.

59) Jimjon, *가정교회: 침투적 교회 개척론*, 223.

60)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2001), 20.

없었다.

이렇게 진행되던 구역 모임은 구역 모임 자체에도 단점을 갖게 되었다. 점차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여성들도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구역 모임은 다문화 및 다변화 사회에서 변화하지 못하였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된 성도들의 다양한 요구와 사상의 변화들을 이해하고 흡수하지 못한 채 이전의 방식들로 진행되었다. 또한 구역 편성 시에 행정지역 위주로 획일화 된 편성이 계속되므로 구역원간의 동질성이 적은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하여 구성원들 사이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구역 모임에 흥미가 떨어지는 단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한국 교회 내 사역은 가정교회 사역을 출현시켰다. 가정교회 사역은 위에서 살핀 대로 공동체성을 지향하면서 개인주의를 존중한다. 왜냐하면 가정교회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귀는 공동체의 참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가 서로 자신의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통일성이 있는 사귀는 것처럼 가정교회는 구성원들의 개인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면서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한다. 또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가정교회 사역은 구역 모임의 단점들을 타파하여 진행된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배경과 문화 사상들을 내포하고, 나아가 현대 사회에 발맞추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교회 구성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추어 사역이 진행된다.

그리고 특별히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성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실현, 유기체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회와 공동체는 상이한 모든 부류가 모여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로 친밀한 사귀는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교회는 이러한 본질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가정교회의 사역을 실행하는 것이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가정교회의 사역에는 목장 사역이 포함된다. 목장사역은 성서의 교회가 상이한 사람들이 모였던 특징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목장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나이와 성별 가치관과 문화, 직업 등 서로 다양한 배경 및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목장 사역은 이를 인정하고 시작한다. 목장을 이루는 다양한 성도들과 함께 바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리더

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성서의 교회나 공동체가 서로 친밀한 사귀를 나누고 있는 특징은 가정 교회 사역에서도 드러난다. 가정교회 사역 중 교육과 양육의 부분은 이러한 사귀를 더욱 발전시켜 줄 수 있다. 특별히 인성 교육에 관심을 두는 것은 그러하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회에서 많은 문제들은 인성 교육의 부재로 인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인성 교육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자각과 함께 자신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자연의 생명체에 대한 존중함과 돌봄에 대한 삶의 정신과 태도를 갖게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게 한다. 이는 공동체의 구성원들과의 사귀를 바람직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 세상을 이해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그들과 바람직한 사귀를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가정 교회 사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가정 교회의 사역은 전도와 선교에도 힘쓰기 때문이다. 가정교회 사역으로서의 전도는 인간 관계망을 따라 일상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기 위한 관계 중심 생활전도를 가능하게 한다.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전도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전도와 선교 사역을 힘쓰게 될 때 성서가 말하는 교회 혹은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을 요약하면 가정교회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의 개념으로 기존의 교회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교회 안의 세포(cell)로 기능하고 소그룹을 양육하기 위해 초대교회의 기능적 장점을 차용한 개념이다. 이러한 가정교회의 기능은 공동식사를 하는 것, 가정교회가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양육과 제자화에 힘쓰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사역과 서로를 위한 봉사 사역을 하는 것, 교회 자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공동체로 헌신하는 것, 은사를 나누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가정교회의 필요성은 개인주의를 타파하고, 셀 사역이나 구역 사역의 단점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사역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다음 절에서는 바람직한 가정교회 사역을 행하여 교회 공동체성을 간직하는 현재의 한국 교회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제 2 절 가정교회 사역을 통한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 사례

가정교회의 사역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가 공동식사를 하는 것, 가정교회가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양육과 제자화에 힘쓰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사역과 서로를 위한 봉사 사역을 하는 것, 교회 자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공동체로 헌신하는 것, 은사를 나누는 것 등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열린문교회와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두 교회는 앞에서 살펴본 가정교회의 사역을 진행하는 교회로서 가정교회 사역을 통하여 성장하였고, 바람직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1. 열린문교회의 가정교회 사역

본 단에서는 가정교회 사역을 통하여 교회의 성장을 이루고, 바람직한 교회의 사역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는 열린문교회의 가정교회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한다.

가. 교회 소개 및 가정교회로의 전환 동기

현재 이재철 목사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는 열린문 교회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 3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재철 목사는 이문동에 오기 전인 1992년 성북구 창동에 있는 건물, 지하 25평에서 개척 팀도 없이 개척을 시작하였고, 1998년도에 현재의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이전을 하였다. 그리고 2000년도에 교회 사역을 가정교회 사역으로 전환하였다. 가정교회 사역으로 사역을 전환하게 된 주요 동기는 첫째, 목사 자신이 성서적인 교회 사역을 하기를 원했고, 둘째, 열린문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길 원했던 것이다.

가정교회 사역으로 전환하면서 이 목사는 설교 및 모임의 시간에 가정교회 사역의 필요성과 장점, 결과들을 성도들과 나누면서 성도들을 가정교회 사역을 위해 준비시켰다. 또한 목자를 위해서는 2년 6개월 동안 작은 목자훈련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가정교회 사역의 실례들을 서로 나눌 수 있었다.

열린문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이 바람직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은 담임목사 자

신의 준비와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이 담임목사에게 있었던 것이다. 또한 목자를 철저히 준비시킨 것과 기도가 함께 되었기 때문이다.⁶¹⁾

나. 교회의 가정교회 사역

열린문교회는 가정교회 사역의 필수조건을 체계적인 삶 공부(지), 가족공동체를 경험하는 목장(정), 은혜로운 주일 예배(의) 등으로 삼고 있다. 체계적인 삶 공부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확신의 삶, 경험의 삶, 부부의 삶 등 여섯 단계로 나뉜다. 가족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은 정적인 부분 특별히 내적 치유에 관심을 둔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는 의지적인 부분을 강조한다.⁶²⁾ 또한 핵심 가치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첫째,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다.

둘째,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는다.

셋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에 둔다(마 28:18-20).

넷째, 삶을 보여 제자 삼는 방법을 선호한다(막 3:14-15).

다섯째,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성도들이 가정교회를 목양하여 교회를 세운다(엡 4:11-12).⁶³⁾

이러한 열린문교회의 프로그램은 크게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먼저, 필수 프로그램은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부부의 삶 등 네 개의 그룹 공부와 확신의 삶, 경험의 삶(일대일 양육을 위한 과정) 등이 있다. 필수과정은 믿음의 기초에서부터 단계별로 훈련받아 훈련받는 이로 하여금 영적 성장과 성숙에 이르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 구성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명의 삶은 생명의 삶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12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성도이다. 본 과정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신앙의 근본을 바로 잡는 이 과정을 통해 본 과정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61) 유병용, “21세기 교회성장 방안으로서 가정교회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5), 66-67.

62) 2010년 7월 1일 이재철 목사의 ‘신약성경의 원형회복을 위한 가정교회’ 강연.

63) 가정교회사역원 홈페이지.<http://www.housechurchministries.org/html/info/info03.htm>.

분명히 정립하고 있다.

새로운 삶은 내 삶을 새롭게 해주는 새로운 삶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13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생명의 삶을 수료한 자로서 날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이다. 그 내용은 새로운 삶에 맞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성서적 개념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과정은 수강자로 하여금 매일 큐티의 첫 걸음을 잘 시작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건의 삶은 내 삶을 자유롭게 해주는 경건의 삶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13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새로운 삶을 수료한 자로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 성도이다. 본 과정은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 있는 예수님의 계명을 좇아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배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확신의 삶은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는 확신의 삶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7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목장교사로서 새 가족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일대일로 양육하고 싶은 자이다. 본 과정은 목장에서 일대일로 만나 새 가족이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험의 삶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는 경험의 삶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13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경건의 삶을 마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목자부부이다. 본 과정은 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매일 삶에서 경험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훈련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목적이 있다.

부부의 삶은 부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형성을 위한 부부의 삶을 부제로 가지고 있다. 13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결혼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결혼한 지 20년 이내 부부 다섯 쌍이다. 본 과정은 부부간에 서로를 알아주고, 또 이해 받으며,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선택 프로그램은 리더의 삶, 부모의 삶, 예비부부의 삶, 교사의 삶, 큐티하

는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목자목녀의 삶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택 과정들은 각 분야에 필요한 실제적이면서도 성경적인 훈련을 시켜주는 과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리더의 삶은 6주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자신의 헬퍼십과 리더십을 개발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목자목녀이다. 본 과정은 먼저 리더의 조력자가 되는 ‘헬퍼십’과 더 나아가 리더를 리더 되게 하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개발하여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역과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부모의 삶은 6주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임신한 예비부모부터 아동부 자녀를 둔 부모까지로서 생명의 삶을 수료한 성도이다. 본 과정은 부모교육이 부모들에게 기독교인 가정과 부모로서의 정체감을 형성케 하고, 자녀교육의 책임을 바르게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책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데 있음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비부부의 삶은 4주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결혼이 예정된 커플로서 본 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주례로 결혼하기를 원하는 성도이다. 본 과정은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없애고, 본인과 상대방, 그리고 결혼에 대한 실제적인 개념을 갖게 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 또한 본 과정에서는 결혼 후 예상되는 문제들, 즉 성격 차이, 성생활, 재정 관리, 배우자의 부모를 보는 눈 등을 미리 짚어 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하게 한다.

교사의 삶은 6주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교회학교 교육목자로 섬기는 성도와 섬길 성도이다. 본 과정은 교회학교 교사에게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그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게 해서 교사로서 혹은 믿음의 부모로서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시키고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다.

큐티하는 삶은 1주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모든 성도이다. 본 과정은 매일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신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훈련자를 훈련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기도의 삶은 7주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생명의 삶을 이수한 성도이다. 본 과정은 훈련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의 원리, 기도의 방법, 기도의 유형에

대해 숙지하도록 교육하며, 그의 기도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말씀의 삶은 13주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성경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이다. 본 과정은 훈련자가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성경 1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훈련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말씀으로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목자목녀의 삶은 10주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목장 사역 3년 이상 된 목자목녀이다. 본 과정은 사역자가 힘들고 지쳐 넘어지려 할 때, 사역자의 내면세계를 점검하고 영적질서와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하나님나라 군사로서 피해자가 아닌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⁶⁴⁾

열린문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의 모임에는 연합 예배, 새벽기도 모임, 예수 영접 모임, 중보기도 사역회 등이 있다. 연합 예배의 순서는 교회 소식, 찬양드림, 기도인도, 간증, 성경교독, 설교, 찬양과 헌신, 축복기도이다. 새벽기도 모임의 순서는 기도, 찬양, 말씀봉독, 간증(큐티), 목장을 위한 기도, 설교, 기도 시간이다. 이는 한 성도가 (목자) 앞에 나가 큐티 나눔을 하고, 담임목사가 그 본문에 관련된 내용을 설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⁶⁵⁾ 예수 영접 모임은 식사 후 강의이다.⁶⁶⁾ 중보기도 사역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세 명이 짝을 지어서 예배 후 자신의 짝과 기도하는 세겹줄 기도회⁶⁷⁾, 1월과 9월 첫 주 3일 동안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회 격인 영적 비타민 새벽기도회, 주일 연합 예배를 위해서 각 예배 1시간 전 중보기도하는 주일 연합 중보기도, 새벽기도를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오전 10:30-11:30에 열리는 오전 큐티 기

64) 열린문교회 홈페이지. <http://www.ylmc.net/>.

65) 가정교회사역원 홈페이지

.http://www.housechurchministries.org/html/community/community02.htm?id=3702&code=b24&cate=&start=20&category=body&word=열린문&viewType=&category_id=&category_name=&gfile=view.

66) 가정교회사역원 홈페이지.

http://www.housechurchministries.org/html/community/community02.htm?id=3703&code=b24&cate=&start=0&category=name&word=박태용&viewType=&category_id=&category_name=&gfile=view.

67) 가정교회사역원 홈페이지.

http://www.housechurchministries.org/html/community/community02.htm?id=3702&code=b24&cate=&start=20&category=body&word=열린문&viewType=&category_id=&category_name=&gfile=view.

도, 하루 세 번 9초 동안 목자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139 기도 등이 있다.⁶⁸⁾

열린문교회는 담임목사의 리더십과 성경공부, 목장조직, 주일 연합 목장 예배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담임목사의 리더십의 내용은 가정교회의 비전 제시와 인도,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델, 영혼 구원 사역이다. 성경공부의 내용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성경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목장조직의 내용은 보고 배워 실제적인 제자가 되어 가는 현장, 섬기는 삶의 연습장,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주일 연합 목장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설교이다.⁶⁹⁾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열린문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은 바람직한 가정교회 사역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열린문교회는 등록 교인 중 약 90퍼센트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16개 목장에서 75개 목장으로 분가하였고, 매년 이 사역을 통해 ‘가정교회 목회자세미나’와 ‘평신도세미나’를 열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다. 또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연수관 운영 사역도 행한다. 또한 성도가 예수의 삶을 전수받아 성도와 이웃에게 전수해 주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며, 자연스러운 영성과 생활화 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목자 자신이 작은 가정교회 평신도 목회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가정교회 정신이 자연스럽게 타문화권 선교에로 이어지게 하는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 가정교회 사역 결과

2000년도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열린문교회의 성도의 수가 170명 정도였으나, 가정교회를 시작한 후인 2000년도에는 230명, 2001년도에는 300명, 2002년도에는 360명, 2003년도에는 420명, 2004년도에는 450명, 2005년도에는 500명이 되었다. 그 후 해마다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여 2012년 현재 900명의 성도가 모이고 있다.

68) 가정교회사역원 홈페이지.

http://www.housechurchministries.org/html/community/community02.htm?id=3703&code=b24&cate=&start=0&category=name&word=박태용&viewType=&category_id=&category_name=&gfile=view.

69) 가정교회사역원 홈페이지.

http://www.housechurchministries.org/html/info/info03_2.htm.

또한 목장의 수도 2000년 처음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는 16개이었으나, 현재는 53 개로 크게 늘었다.

2.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사역

본 단에서는 가정교회 사역을 통하여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한 화평교회의 가정교회의 사역을 논하려고 한다.

가. 교회 소개 및 가정교회로의 전환 동기

결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화평교회는 최상태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이다. 화평교회는 1988년 1월 30일 담임목사와 그의 가족 그리고 세 명의 성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개척 초기에는 교회가 위치한 일산이 작고 농촌과 유사한 읍 소재지였기에 교회가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교인들은 일자리나 교육을 위하여 서울 혹은 타 도시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분당지역과 함께 일산지역도 신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초기 5만에서 2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이렇게 도시가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화평교회는 가르치는 일과 훈련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 사역을 행한다. 개척 초기에는 인구 유동이 심한 환경과 목회 경험의 부족으로 목회에 어려움이 있었다.

설립 이후 5년까지는 시행착오와 지역 환경으로 인해 열매를 얻기 보다는 잃는 때가 많았으며 갈등까지 존재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훈련 사역을 충실히 행하고, 지역도 안정화 되어 교세가 확장되면서 교회는 꾸준히 성장한다.⁷⁰⁾

이러한 역사를 가진 화평교회는 제자훈련을 가정교회에 접목시킨 교회로서 제자훈련을 가정교회의 기초를 닦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게 되면서 1998년 9월부터는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 가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했다.⁷¹⁾ 개척 초기에는 목사가 제자훈련을 진행하였으나 자원 부족과 열의만 앞선 사역이라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자훈련 사역은 실패하였

70)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02), 37-39.

71) Ibid., 53-54.

다. 또한 화평교회 개척 당시 교회의 지리적 상황 때문에도 실패하게 되었다. 교회는 일산에 위치해 있었는데 당시 일산은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일산에 정착하는 인구보다는 일산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성도가 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⁷²⁾

또한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목사의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비롯된 것이다. 첫째, 전체 성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보며 섬길 수 있겠는가? 온 교회 성도들을 헌신자 혹은 사역자로 만들 수 있겠는가? 둘째, 훈련된 성도들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이나 환경이 무엇일까? 셋째, 제자훈련 과정을 마친 성도들이 지속적인 훈련을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 넷째, 형편상 제자훈련 받지 못한 사람과 받은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며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다섯째, 제자훈련 받지 못해도 받은 은사대로 헌신·봉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일까?⁷³⁾

그리고 화평교회가 지향하는 가정교회 사역의 모습은 첫째, 초대 가정교회를 모델로 하되 그 정신과 역동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둘째, 성숙한 공동체의 삶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 것이다. 셋째,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가 목회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전도와 선교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여섯째, 매주 1회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곱째, 분담사역을 중요시한다. 여덟째, 제자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교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⁷⁴⁾

나. 교회의 가정교회 사역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살피기 전에, 먼저 교육 및 훈련 사역에 대해 살펴보면, 교회에는 새 가족반, 양육반, 제자훈련반, 지도자 훈련반, 부부성장반, 전도폭발 훈련반, 중보기도팀의 사역이 있다.⁷⁵⁾ 새 가족반은 교회 내 프로그램의 기본반이다.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참여하는 반으로서 본 프로그램에서 새 신자는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나누고,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나누게 된다. 이 과정은 전체 5주이고 매 주일

72)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40-41.

73) Ibid., 50-51.

74) Ibid., 70.

75) Ibid., 54-55.

오전에 진행된다. 각 주마다 배우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원의 확신, 바람직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중요성, 화평교회의 비전과 소망 등이다.

양육반은 새 가족반을 마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및 교회생활과 일상생활의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이 되는 것에 있다. 이 과정은 전체 13주이고 매주 화요일 낮과 저녁 중 1번을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자반은 양육반의 다음 과정으로써 교회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중 가장 심도 깊은 과정이며, 교회에서 가장 주력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목표는 사람을 세우는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전체 약 35주이고, 그 내용은 기초편, 교리편, 생활편 등이다.

지도자 훈련반은 제자반을 거친 자 중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의 목표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에 있다. 이 과정은 전체 16주이고, 그 내용은 리더십, 소그룹 인도법, 성경개론, 교회론, 인간관계론, 멘토링, 모델링 등이다.

부부성장반은 성서적인 결혼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과정은 전체 13주이고, 그 내용은 자아 치유, 관계 회복, 영적인 인격 성숙, 자녀 교육 및 교육관 등이다.

전도폭발 훈련반은 전도의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전도자를 세우는 것에 그 목표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전체 16주이고, 그 내용은 전도폭발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4주 동안은 훈련자의 전도 모습을 관찰하여 훈련을 익히고 5주차부터 실제로 복음 제시에 동참하고, 후반부에는 훈련생 자신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팀은 중보기도자 역할을 원하는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매주 월요일 2시간 이상 기도한다. 진행 순서는 찬양, 말씀, 중보기도 순이지만 이순서는 상황에 따라 변형되기도 한다.⁷⁶⁾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의 조직과 임무를 살펴보면, 먼저 가정교회 모임을 주관하며 가원들을 돌보는 가장이 있다. 이 가장은 교회 전반적인 일을 담당한다. 예비 가장은 가장의 후계자로 지목을 받고, 이에 대한 훈련을 하는 가원이다. 총무는 가장

76)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54-58.

을 보좌하며 가원들을 기도와 봉사로 섬기는 임무가 주 임무이다. 새 가족담당은 새 가족이나 방문객을 환영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들과 교체하는 역할이 그 임무이다. 어려운 이웃이나 가정 내 환자를 방문하는 역할과 교회의 봉사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봉사담당자가 있다. 또한 가정교회 모임 때에 찬양을 인도하며 찬양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는 찬양 담당자가 있다. 전도 담당자는 화평교회에서 진행되는 전도 이벤트를 관장하며 전도 대상자들을 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선교 담당자는 선교 헌금을 송금하거나 선교사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선교사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성경담당자는 가원의 성경 읽기를 주관한다. 생일 담당자는 가원이나 가원의 자녀들의 생일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그들을 축하하는 일을 담당한다. 야유회, 스포츠 행사, 음악회, 연극 및 영화 관람 등 친교의 모임을 담당하는 친교 담당자가 있다. 기도 카드 관리나 기도 목록 작성 및 배부, 긴급 기도 역할을 하는 중보기도 담당자가 있다.

가정교회의 모임 순서는 첫째,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만 식사부터 행한다. 둘째, 2-3곡의 찬양을 한다. 셋째, 지난 주 있었던 일을 나눈다. 넷째, 교재에 따라 성경공부를 한다. 다섯째, 선교나 전도에 관한 보고 및 나눔을 한다. 여섯째,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한다. 일곱째, 교회나 가원들과 관련한 광고를 한다. 여덟째, 가원의 성경 읽기를 확인한다. 아홉째, 가장이 파송기도를 한다. 이러한 순서는 상황에 따라 수정되거나 생략이 가능하다. 수정과 생략은 새 가족의 참석 여부와 관련되는데 왜냐하면 새 가족을 왕처럼 모시는 것이 가정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 모임은 2-3시간 정도 소요된다.⁷⁷⁾

화평교회가 가정교회 사역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 영적 리더 자신이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는 가정교회 사역의 중요성과 가치를 성서를 토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여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가정교회의 생명력은 지도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교회 역시 교회이므로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셋째,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핵심 구성원이 필요하다. 핵심이 되는 구성원 부재 시 성장은 더디게 되고 사역자는 지치게 되고,

77)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115-118.

좋은 분위기 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새 가족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넷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한다. 위에서 살핀 대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휴식 제공 등의 교제가 중요하다. 다섯째, 가정교회의 허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가정교회가 살려면 기존의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이나 행사, 그룹 등을 과감하게 축소 혹은 삭제해야 한다. 이는 가정교회에 참여할 에너지와 시간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담임목사는 가정교회 사역보고서를 매 주일 보고받아야 한다.⁷⁸⁾

또한 실제적인 것으로는 첫째,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먼저는 목회자 자신이 준비하고, 다음으로 제자를 훈련시켜야 한다. 예수는 먼저 세 자자 다음으로 열두 제자, 다음으로 70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다. 이러한 예수의 모델을 상기하며 목회자는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가정교회 사역이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 내 그룹 모임, 행사, 각종 교육, 훈련 등은 가정교회 사역보다 앞설 수 없다. 셋째, 구성원들끼리 서로 친밀하게 알아 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원들은 처음부터 서로 친밀할 수 없다. 리더는 자원해서 가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 등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을 해야 한다. 넷째, 영적 재생산(분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가정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다섯째, 인내해야 한다. 건강한 가정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안에는 고민과 갈등 등의 고통이 따른다. 이러한 때를 소망 중에 인내로써 이겨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정교회 사역의 순기능은 첫째, 평신도 사역자들로 인하여 교인들을 돌보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평신도 사역자들로 인해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은 구역 혹은 교구별 전화 및 방문 심방의 사역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대신 리더 교육과 훈련에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신도 사역자들의 돌봄 사역으로 인하여 돌봄의 대상이 제외되는 일이 없게 되고, 돌봄의 대상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 돌볼 수 있게 된다. 둘째, 평신도지도자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온다. 담임목사가 교인을 대하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리더는 가원들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또 가정

78)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158-160.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 등의 목회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가원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혈육의 가족과 유사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평신도지도자는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한다. 셋째, 전체 성도의 사역화를 이룰 수 있다. 화평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전체 교인의 80-90퍼센트 이상이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교인 개개인은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을 맡게 되어 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교회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넷째, 관계속에서의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은 중요하다. 이러한 친밀감 때문에 공동체라는 말이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모임이며, 이 하나님의 위격은 교제하신다. 참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인 가정교회는 이 교제를 할 수 있으며, 교제를 통해 친밀감은 상승한다. 다섯째, 유무상통을 이룰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대로 초대교회는 각 필요에 따라 공동체의 것을 나누었다. 이와 유사하게 가정교회 내에서도 유무상통이 이루어진다. 다른 가원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자신의 것을 가원을 위해 나누는 일이 행해진다. 여섯째, 전도와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가정교회 사역이 중요시 하는 것 중 하나는 '관계'이다. 이 관계는 물론 먼저는 가정교회 내에서 중요하지만, 나아가 가원의 사회나 지역에서도 중요하다. 가원이 맺고 있는 가정교회 밖에서의 소중한 관계를 통하여 전도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가정교회는 선교지와 의 관계를 맺어 실질적이고 세세한 도움을 선교에 줄 수 있다. 나아가 가원들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며 교육과 훈련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화평교회는 제자훈련을 가정교회에 접목시킨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정교회 사역은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거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사역이 아니다. 진심으로 가원들을 대하고, 가원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바람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역이다. 이를 위해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가장은 가원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시키는 사역을 행한다. 이러한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에 큰 역할을 한다.

다. 가정교회 사역 결과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최 목사 가정과 단 세 명의 성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화평교회는 꾸준한 제자훈련과 가정교회를 통하여 2000년도 말에는 장년 500여 명과 주일학교 학생 400여명, 사역자 7명, 평신도 사역자 100여 명을 가진 교회로 성장하였다. 또한 당시 화평교회에는 36개의 가정교회가 있었고, 교회 건물은 상가 800m²를 매입 및 임대하여 예배실 및 교육공간으로 사용하였다. 교회는 일 년 예산 5억 원 중 1억 원을 선교비로 지원할 만큼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게 되었다.⁷⁹⁾

1998년에 24개로 시작한 가정교회는 2012년 현재 85개(청년 광역 제외)가 되었다. 또한 99명의 평신도 사역자와 1광-4광역 및 청년광역으로 구성된 가정교회 광역으로 가정교회 사역이 확대 되었다. 또한 6명의 파송선교사와 80여 협력선교지를 두고 있으며, 현재 20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구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⁸⁰⁾

지금까지 본 장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장에서 본 연구자는 가정교회는 독립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지역교회의 기능을 평신도들에게 상당부분 부여하여 수행하는 공동체임을 서술하였다. 또한 가정교회의 기능은 공동식사를 하는 것, 가정교회가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양육과 제자화에 힘쓰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사역과 서로를 위한 봉사 사역을 하는 것, 교회 자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공동체로 헌신하는 것, 은사를 나누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현재 가정교회 사역을 살펴보기 위해 열린문교회와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고찰한다면, 먼저 열린문교회의 프로그램은 크게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의 기초에서부터 단계별로 훈련받아 훈련받는 이로 하여금 영적 성장과 성숙에 이르도록 하며, 각 분야에 필요한 실제적이면서도 성경적인 훈련이 되도록 한다. 또한 화평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며 교육과 훈련을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제자훈련을 가정교회에 접목시킨 교회이다. 교회 내에는 새 가족반, 양육반, 제자훈련반, 지도자 훈련반, 부부성장반, 전도폭발 훈련반, 중보기도팀의 사역 등이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가정교회 사역을 행한다. 열린문교회와 화평교회는 바람직한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성서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79)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37-39.

80) 화평교회 홈페이지. Online: <http://www.hwapyung21.org/>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 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제 4 장

순복음옥수교회의 역사와 목회 사역

본 연구는 가정교회 사역을 통하여 한국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교회 및 공동체의 정의를 확인하였고, 신학적 의미 파악하였다. 또한 가정교회의 정의를 논하고, 한국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가정교회 사역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가정교회의 사역을 진행하는 교회로서 가정교회 사역을 통하여 성장하였고, 바람직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열린문교회와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섬겼던 순복음옥수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먼저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본 교회의 역사와 비전, 목회적 상황 등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 후 가정교회의 사역을 심도 있게 다루고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내릴 것이다.

제 1 절 역사와 비전

본 절에서는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살피기 전에 선이해를 위해 먼저, 순복음옥수교회의 역사와 비전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1. 교회의 설립과 역사

순복음옥수교회는 1968년 5월 26일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424번지에서 시작하였다. 당시 순복음신학교 학장 솔티스 선교사의 3만원과 그 아내가 결혼반지를 판 3만원으로 무허가 판잣집을 전세 얻어 교회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해 12월 사채 15

만원을 빌려 329-4번지 현 교회 건물 옆 전셋집 2층으로 예배당을 옮겼다. 당시 인원은 대략 80명쯤 되었다. 교회의 단독건물이 아닌 2 층집에서 예배를 드리니 주인인 아래층 중화요리 집에서 시끄러워서 영업을 못하겠으니 당장 방을 빼라고 하였다.⁸¹⁾

이런 어려운 상황가운데에도 교회가 지속되다가 다음 해 5월 한 장로가 헌납한 대지 60평에 건물 25평을 교회당으로 건축하여 교회다운 교회건물을 비로서 가지게 되었다. 그 후 1972년 5월에 현 담임목사인 최기순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교회 재정이 나아져 같은 해 9월 24일 현 교회 건물 주택 매입을 할 수 있었다. 당시 교회는 교인이 날로 늘어 앉을 자리가 없었다. 대표기도자들의 공통 기도는 앉을 자리가 없다는 문구였다. 이에 11월에는 교육관을 증축하였다. 1980년도 4월에 교회 내부 수리를 진행하였고, 당시 세례자 147명이 되었다. 1982년도부터 1990년도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부흥기였다. 당시에는 1년에 500-600명씩 교회에 새신자들이 등록하였다. 새신자가 많아져 교회는 본래 4부로 진행되던 예배를 7부로 늘리게 되었다. 1994년 새 예배당 입당 및 창립 26주년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1995년 6월 건축위원회로부터 교회 건축업체가 부도가 나 사채로 인해 이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다. 또한 교회 종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무리한 건축공사로 인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시련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에는 교인들이 밖에서 서로 피하기에 바쁠 정도로 어려웠다.

이러한 시련을 이기고 교회는 2004년부터 가정교회로 전환하였다. 전통적으로 교회 내에서 행해지던 행사나 활동들을 대폭 줄이고 가정교회 사역에 주력하였다. 가정교회를 하게 된 동기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배양하고, 예수처럼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같이 먹고 잠자고 실천공행하는 삶,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요 13:15) 사역하는 것이다. 전통적 교회는 건물과 예배가 중심이다 보니 교인의 사권이 적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가정에서 삶을 나누며 친밀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사권이 더 많아질 수 있다.⁸²⁾

가정교회의 모임에서 교인의 삶을 서로 나누고, 서로 신앙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했던 이웃을 모임에 초청해

81) 순복음옥수교회 편집사역부, *순복음옥수교회 40년사*, 85-89.

82) Ibid., 102.

예수 믿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요 제자가 되게 한다.

이러한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순복음옥수교회는 장로 17명, 권사 84명, 안수집사 26명, 서리집사 279명, 권찰 57명 등 463명의 교회 재직과 300여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⁸³⁾

2. 교회의 비전

80년대에 한국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이 본격화되기 전만 해도 개교회에서 평신도의 역할과 중요성은 그리 크게 인식되지 않았다. 일찍이 고향 교회에서 평신도의 역할과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담임목사는 평신도를 깨우는 사역을 그의 주된 목회 비전으로 삼았다.

또한 2004년도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비전은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화되었다. 그 비전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 내에는 지도자나 추종자가 없어야 하며 모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한다. 둘째, 성경 중심의 교회이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많을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셋째, 중생교인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대신자를 품고 교회 행사에 초청하고, 새 가족반 교육을 통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영접하도록 돕는다. 이로써 구원에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는 세례를 행한다. 중생하는 교인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넷째, 성령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영성 집회를 열어 이를 통해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일을 교회는 해야 한다. 다섯째, 전도하는 교회이다. 교인은 자신이 믿고 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요원이 되고, 생활 선교사가 되어 이를 통해 전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하며 교회는 다양한 문화 사역을 통해 전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여섯째, 신임 받는 지도력을 갖춘 당회, 목장교회사역부, 일반사역부, 제직회 기원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일곱째, 성경적인 재정정책을 갖추는 것이다. 교회는 십일조와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의 성업을 이루는 것에 힘써야 한다. 여덟째, 충분한 직원 전문적인 직원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게 한

83) 순복음옥수교회 편집사역부, *순복음옥수교회 40년사*, 184-225.

다. 아홉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초점을 영혼구원과 주님 제자되고 예수 닮아가는 데 둔다.

예수의 지상 최대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핵심은 영혼구원,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다. 예수의 제자 훈련은 교실에서 하는 지식전달이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보고 배우도록 하여 본을 보여주며 따르게 한 것이다. 목사의 역할도 동일할 것이다. 목사는 교인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평신도 사역을 분담하게 해야 한다.

교회는 신자들이 새 가족 교육과 생명의 삶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고, 새로운 삶을 통해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건의 삶을 통해 섬기는 훈련을 쌓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사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목자 훈련을 통해 성도가 평신도 사역자가 되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목사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육 훈련을 받고 가정교회를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가정교회는 주일 날 교회에서 하는 대그룹 예배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힘쓴다.

이처럼 순복음옥수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며,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성서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이며,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로 교회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비전이 있다. 또한 참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처럼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서로 참다운 교제를 해야 하며, 개개인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깊은 관계를 이루는 유기체적 모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2 절 목회적 상황

순복음옥수교회는 2004년부터 가정교회 사역을 행해왔다. 이 가정교회 사역은 ‘구역예배’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이 스스로 가정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모임이며 또 다른 교회 동공체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살피기 전에, 먼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일반적 사역을 살

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회의 지역 사회 이해

순복음옥수교회가 위치한 성동구 옥수동은 한강을 끼고 있는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 싸여 있어서 서울시 내에서는 아주 드물게 한적한 곳이며, 또한 많은 유적과 일화가 남아 있는 유서가 깊은 동네이다. 동호대교와 강변북로를 통해 동, 서, 남, 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한강과 접한 구릉지에 자리 잡고 있고, 한강, 응봉산, 매봉산 등 주변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옥수동의 면적은 1.95km²이며, 인구는 21,018명(남: 10,208명, 여: 10,810명), 세대수는 8,654세대, 통반조직 35통 299반, 주택 총 주택 수는 1,661 가구(단독: 1,539, 연립: 64, 아파트: 58, 기타)이다.⁸⁴⁾

옥수동은 성동구 내에 있는데, 성동구는 왕십리를 중심으로 강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2호선, 3호선, 5호선, 분당선의 지하철과 국철이 통과하고 있으며, 동호대교, 성수대교를 축으로 강남, 강북을 연결하는 서울 동북부의 교통 중심지이다. 청계천, 중랑천, 한강 등 총 14.2km의 수변과 접하고 있는 물의 도시로, 성동구는 수변구간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수변도시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2.17km²의 성수 준공업 지역의 생산 기능과 용답동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마장동 축산물시장의 유통 기능, 금호동, 옥수동, 행당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거 기능을 고루 갖추고 있다.⁸⁵⁾

성동구의 인구는 대략 316,891명이다. 이 인구는 과거 인구와 비교할 때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1>은 성동구의 연도별 인구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에 따르면, 성동구의 인구는 2001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성동구 전체 인구는 2001년도 343,471명에서 2010년도 316,892명으로 약 3만 명가량이 줄어들었다.

84) 옥수동주민센터 홈페이지.

<http://sd.go.kr/sd/main.do?op=mainSub&mCode=12K030020000>.

85) 성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sd.go.kr/main/main.do?op=mainSub&lay=5&mCode=1E020040000&displayId=02004>.

<표 1> 성동구 연도별 인구수⁸⁶⁾

연도	세대	계(명)			한국인(명)
		인구	남자	여자	인구
2010	129,644	316,892	158,771	158,121	309,093
2009	126,670	316,064	158,203	157,861	308,058
2008	128,658	322,679	161,744	160,935	314,212
2007	135,655	341,620	171,404	170,216	333,535
2006	133,864	340,895	170,965	169,930	334,437
2004	128,964	343,992	173,076	170,916	339,113
2003	126,592	343,929	173,182	170,747	339,368
2002	123,394	343,018	173,092	169,926	340,773
2001	121,565	343,471	173,713	169,758	341,375

이는 서울시 인구가 2012년 2분기 등록 인구는 1,049만 8,693명으로 1분기의 1,051만 9,780명에 비해 2만1,087명(0.2퍼센트) 줄어들었다. 이는 2010년 말 이후 5분기 연속의 감속이다. 서울시 인구가 2010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에 반해 성동구의 인구는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감소는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⁸⁷⁾

좀 더 자세히 성동구의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인구의 나이에 대해 조사를 위해 <표 2>를 작성하였다.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동구의 2000년도의 미취학 아동은 45,168명, 2006년도에는 34,506명, 2010년도에는 26,450명으로 대략 2000년도 대비 2006년도에는 34퍼센트 감소, 2010년도에는 48퍼센트가 감소하였다. 2000년도의 75세-89세 인구는 5,448명, 2006년도에는 7,608명, 2010년도에는 9,526명으로 대략 2000년도 대비 139퍼센트 증가, 2010년도에는 174퍼센트가 증가하였다. 미취학 아동 인구는 총인구 대비 2001년도 12.6퍼센트, 2006년도 10.1퍼센트, 2010년도 7.7퍼센트를 차지한다. 매년 미취학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86) 성동구 통계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http://st.sd.go.kr/st.do?op=mainSub&lay=5&mCode=3B030020000&displayId=030020>.

참조. 2005년도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음.

87) “서울 인구 5분기째 감소…총 1,049만8,693명,” *한국일보*, 2012년 7월 29일자, 인용.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207/e20120729123029120400.htm>.

<표 2> 성동구 연도별 인구의 나이⁸⁸⁾

연도	0-4세	5-9세	75-79세	80-84세	85-89세
2010	13,283	13,126	5,395	2,821	1,310
2009	13,714	14,428	4,910	2,569	2,569
2008	14,735	15,459	4,470	2,367	2,367
2007	15,990	17,287	4,404	2,364	1,074
2006	16,092	18,414	4,170	2,189	1,019
2005	17,073	19,578	3,942	2,209	957
2004	18,372	20,070	3,659	2,121	909
2002	19,240	20,643	3,390	1,966	848
2001	21,546	22,060	3,162	1,744	764
2000	22,538	22,630	3,042	1,663	743

반면 노령 인구는 총인구 대비 2001년도 1.6퍼센트, 2006년 2.2퍼센트 2010년도 3.0퍼센트를 차지한다. 2001년도 대비 노령 인구는 약 두 배 가량이 증가하였다. 노령화와 저출산은 인구의 감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아동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의 구성 비율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특징은 비단 성동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순복음음수교회 역시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 가운데 노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순복음음수교회는 노인 사역에 대한 관심과 노인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표 3>은 성동구의 외국인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인데, 이 <표 3>을 통해 성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다.

<표 3>에 나타나듯이, 성동구의 외국인 수는 2004년도 이후 크게 증가하여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2001년도에 불과 2,096명이었던 외국인은 2010년에 약 8,000명에 가깝다. 이렇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비단 성동구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012년 8월 9일자 *국제신문*에 실린 아래의 기사를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얼마나 많은 지 보다 명확히 알 수가 있다.

88) 성동구 통계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http://st.sd.go.kr/st.do?op=mainSub&lay=5&mCode=3B030020020&displayId=030020>.

<표 3> 성동구의 외국인 현황⁸⁹⁾

연도	외국인(명)		
	인구	남자	여자
2010	7,799	3,704	4,095
2009	8,006	3,870	4,136
2008	8,467	4,142	4,325
2007	8,085	3,980	4,105
2006	6,458	3,202	3,256
2004	4,879	2,511	2,368
2003	4,561	2,365	2,196
2002	2,245	1,226	1,019
2001	2,096	1,160	936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40만 명을 돌파해 울산광역시(113만 5494명) 주민 수보다 많아졌다. 행정안전부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모두 140만9577명으로, 지난해보다 11.4퍼센트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 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5073만4284명)의 2.8퍼센트에 달한다. 외국인 주민은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머무르는 장기체류 등록 외국인과 한국 국적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 등을 포함한다.⁹⁰⁾

또한 이로 인해 한국에 거주하는 인구 중 외국인과 한국인 부모 혹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는 168,583명으로, 작년보다 17,429명 늘었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 44,258명보다는 무려 3.8배나 늘어난 것이다.⁹¹⁾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광역시의 인구를 넘어서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순복음옥수교회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들은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의 나이와 성별, 환경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89) 성동구 통계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http://st.sd.go.kr/st.do?op=mainSub&lay=5&mCode=3B030020020&displayId=030020>.

90) “국내 거주 외국인, 울산인구보다 많다,” *국제신문*, 2012년 8월 9일자 인용.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810.22009210406>.

91) “국내 거주 외국인 140만 명 돌파...광역시 수준,” *연합뉴스*, 2012년 8월 9일자 인용.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퍼센트ea퍼센트b5퍼센트ad퍼센트eb퍼센트82퍼센트b4퍼센트20퍼센트ea퍼센트b1퍼센트b0퍼센트ec퍼센트a3퍼센트bc퍼센트20퍼센트ec퍼센트99퍼센트b8퍼센트ea퍼센트b5퍼센트ad퍼센트ec퍼센트9d퍼센트b8&contents_id=AKR20120809090000004.

또한 <표 4>를 통해 성동구의 학교 및 학생의 현황을 살펴 성동구 교육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표 4> 성동구의 학교 및 학생 현황⁹²⁾

연도별 (연)	유치원 수(개)	원아수 (명)	초등학교 수(개)	학생수 (명)	대학원 수(개)	석사과정 수(명)	박사과정 수(명)
1996	49	2,685	15	22,790	9	132	54
1997	49	2,575	15	21,930	10	134	60
2008	33	2,711	18	19,640	11	197	91
2009	33	2,583	19	18,193	13	164	98
2010	31	2,402	20	17,202	12	196	104

<표 4>가 보여 주듯이, 성동구의 유치원은 1996년 49개에서 2010년 31개로 줄었고, 원아수 역시 1996년 2,685명에서 2010년 2,402명으로 줄었다. 또한 초등학교는 1996년도에 15개에서 2010년도에 20개로 늘었으나 학생수는 1996년도 22,790명에서 2010년도 17,202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대학원은 1996년도 9개에서 2010년 12개로 석사과정 학생은 1996년 132명에서 196명으로, 박사과정 학생은 54명에서 104명으로 늘었다. 유치원의 수와 유치원생의 수가 감소한 것은 미취학 아동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등학교의 수가 증가한 것은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서 학급 정원이 줄어서 생긴 일이지, 초등학교 인원 또한 유치원생과 마찬가지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수가 증가한 것은 고학력을 요구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박사과정생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순복음음육수교회는 교회학교 학생의 감소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여 이에 대한 대책 혹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교회학교 사역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나은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장년부의 학력

92) 성동구 통계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http://st.sd.go.kr/st.do?op=mainSub&lay=5&mCode=3B010120000&displayId=010120>.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교회 사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5> 성동구의 체육시설⁹³⁾

연도	합계	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간이운동장 (동네체육시설)
2010	48	-	4	5	22
2009	43	-	4	4	22
2007	36	4	2	2	20
2006	-	3	2	2	-
2005	-	3	2	2	-
2004	-	2	-	1	-

<표 5> 성동구의 체육시설을 표로 정리한 것인데, <표 5>에 따르면 성동구의 체육시설은 2004년에 비해 2010년도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성동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으로 본 표는 사설시설과 개인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 지불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나 체육시설 이용 가능한 인구 대비 체육시설의 개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것 등과 같은 어려움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순복음음악교회는 성동구의 체육시설 미비에 관심을 가져 교회 내 체육시설에 대해 고려하고, 이를 전도와 연관 지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표 6>은 성동구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정리한 것인데, <표 6>을 보면, 2002년도 등록된 자동차의 수는 83,501대, 2007년도에는 89,667대, 2010년도에는 87,277대이며, 영업용 차량은 4,528대, 2007도년에는 4,956대, 2010년도에는 4,793대이다. 또한 자가용 차량은 2002년도에 78,754대, 2007년에는 79,990대, 2010년도에는 82,176대이다.

자동차의 용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영업용 차량의 수는 2002년도에 비해 2010년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자가용의 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가정의 개인 차량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93) 성동구 통계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http://st.sd.go.kr/st.do?op=mainSub&lay=5&mCode=3B010120000&displayId=010120>.

<표 6> 성동구의 자동차 등록⁹⁵⁾

연도별	합계(대) ⁹⁴⁾			
	소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2010	87,277	308	82,176	4,793
2009	85,647	240	80,613	4,794
2008	85,259	237	79,990	5,032
2007	89,667	228	84,483	4,956
2006	88,741	262	83,579	4,900
2005	88,033	234	82,939	4,860
2003	86,048	235	81,158	4,655
2002	83,501	219	78,754	4,528

순복음옥수교회는 성동구의 개인 차량이 증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 내 주차시설에 대해 고려하고, 이를 전도와 연관 지어 볼 필요성이 있다. 교회에 예배가 있을 시 쾌적한 주차 환경에 대해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 예배가 없을 시 지역사회에 주차장을 제공하는 등의 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교회의 일반적 사역⁹⁶⁾

본 단에서는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살피기 전에, 먼저 교회의 일반적이며 전체적인 사역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순복음옥수교회의 사역 부서에는 먼저 사역부 연합회가 있다. 회장은 담임목사이다. 이 연합회에서는 담임목사와 초원지도 교역자, 각 사역부장, 초원지기 등이 모여 각 사역부의 행사보고를 듣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교회 전반적인 사역을 논의한다.

새 가족 사역부는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한다. 매 주일 교회를 새로 방문한 가족을 안내하고, 예배 전 로비에서 ‘새 가족등록증’을 작성하여 광고 시 새 가족을 소개할 수 있도록 강단에 올려놓는다. 예배가 끝난 후 새 가족실에서 환영회를 준비하고 교회를 소개해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새 가족 성경공부에 필요한 제반 행정을 담당하고 성경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세례식(장년, 유아)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한다.

94) 합계에 이륜자동차는 미포함.

95) 성동구 통계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http://st.sd.go.kr/st.do?op=mainSub&lay=5&mCode=3B010080000&displayId=010080>.

96) 순복음옥수교회 편집사역부, *순복음옥수교회 40년사*, 286-293.

전도 사역부는 전도에 관한 제반 일을 담당하며 교회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모여 말씀과 기도회를 갖는다. 전도 폭발훈련과 기도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충전을 가지며, 전도에 대한 활동 보고와 전도성과에 대해 친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해 전도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한다. 전도 대상자에게 화장지와 물티슈, 사탕 등을 전도지와 함께 전해주고, 그들에게 3분 복음제시와 같이 간단하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선교 사역부는 해외, 국내 제반 사역을 담당하고, 성도들의 선교의식을 고취시키며, 그들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감당하도록 한다. 선교사 파송에 관한 일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각 목장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선교지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후원한다. 선교사 등을 위한 정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선교지에서 오는 선교 소식 등을 발간해 홍보한다.

문화선교 사역부는 전도를 목표로 한 전교인 체육대회와 요가, 어린이 인형극, 웃음치료 및 크리스마스이브 행사를 주관한다. 어린이 구연동화, 교회 연합 체육대회, 악기 강습 등 제반 문화 사역을 감당한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노인 대학, 농악, 스포츠 댄스, 에어로빅 등을 마련해 주민과 교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재정 사역부는 교회 재정,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사역을 담당한다. 그리고 십일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 헌금, 기타 헌금 등을 분리해 그 행사에 맞게 헌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역자의 사례비와 각 기관들의 재정신청 보고를 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헌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월말이 되었을 때에는 각종 회계 감사를 통해 헌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파악하고 교회 관리자들에게 보고한다.

관리 사역부는 차량, 수도, 전기, 에어컨, 선풍기 등을 포함하여 교회 내 각종 시설을 수리하고 보존하는 일을 담당한다. 겨울에는 난방을, 여름에는 냉방을 적절하게 유지해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또한 교회의 환경미화와 대청소, 쓰레기 분리수거를 담당하고 있다.

경조 사역부는 교회 내 장례의 소식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예식을 돕는 등 성도

들의 경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성도 가정의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내고 각 목장의 장례 소식을 성도들에게 알린다. 그리고 유가족이 기독교장으로 예식을 하기 원할 시에 이 장례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평소에 상조비를 관리하여 상을 당한 유족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

건축 위원회는 새 교회 건축에 관련한 사역을 맡고 있다. 교회의 재건축 사업이 있을 때 직접 교회를 탐방하며 설계도면에 도입하고 주변 위치가 좋은 곳, 교통편이 편한 곳에 교회가 위치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이동하기 전에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교회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현금과 후원금 등을 모아서 더 좋은 예배당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기획 사역부는 교회 행사를 기획하고, 각 사역부와 연계하여 행사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회의 사업과 업무를 분할하고, 40주년 행사와 크리스마스, 부활절 예배, 창립기념 예배 등 교회의 큰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업무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필요시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부서별 사역을 진단하고 평가하며 미래의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준다.

출판편집 사역부는 오이코스 및 교회 신문 발간 등 출판에 관한 모든 일을 도맡고 있다. 목사의 말씀을 잘 요약해 목장 모임시간에 말씀과 친교를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눔의 4문항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목사의 말씀과 밀접하게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교회 행사들을 매주 오이코스에 넣어 줌으로써, 전교인이 교회 소식과 지역주민들의 행사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순복음옥수교회의 뉴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나눔 사역부는 매주 성도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사역부이다. 연중 겨울 김장과 간장을 담는 등 식사에 관한 일을 전담하며, 일 년에 한 번씩 전교인 대상 바자회를 통해 남는 이익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음악 사역부는 임마누엘 찬양대, 예배 찬양팀 등을 관리하며, 교회의 음악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한다. 수요 예배와 목요 찬양, 주일 열린예배 찬양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배가 시작되기 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향할 수 있도록 찬양을 한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찬양을 선별해 예배 시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는다.

자원봉사 사역부는 성동구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봉사하고, 교회 안

밖의 일들에 관해 앞장서서 활동한다. 주된 업무는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쌀과 김치를 전해 드리고 동사무소와 연대감을 가지며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다.

방송 사역부는 교회 예배 및 각종 행사에 관해 방송을 하며 방송시설을 관리한다. 목사의 말씀을 녹음해서 편집한 다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과 지역주민, 말씀을 듣고 싶은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한다. 새벽기도 시간에는 음악을 틀어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해준다.

이웃사랑실천 사역부는 금호, 옥수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고, 옥정 초등학교 학생 중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 수재민 등을 돕기 위해 전교인들을 상대로 모금을 전개하고, 생필품도 보내주고 있다. 또한 일 년에 두 번씩 노인들을 초청해 야외나들이를 진행하고 있다. 연말에는 성동지역 틈새 가족 돕기를 통해 봉사하고 있다.

목장 사역부는 각 목장의 행사와 행정적인 업무,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며 각 초원을 총괄하는 사역부이다. 목장 컨퍼런스와 목자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각 목장의 활동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또 각 목장의 애로 사항을 파악해 해결점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매 년 한 해 동안 수고한 목자들을 위해 연초에 축복예배를 준비한다. 또한 목자 수련회를 통해 목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중보기도 사역부는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하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 문제, 큰 산과 같은 장애물, 성도들의 아픔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는 사역부이다. 매일 저녁 9시에 2층 중보기도실에서 모임을 가지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를 위한 중보기도를 행하고 있다.

홈페이지관리 사역부는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관리에 필요한 기술력을 제공한다. 예배와 행사에 대해 글과 시즌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

예배 사역부는 모든 예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돕는다. 매 주일 예배를 집례 하는 목회자들의 가운을 준비하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식을 준비한다. 또한 교회당의 환경을 정화하고 예배 시 질서와 순서, 환경 등을 관리하고 있다.

장학 사역부는 교회 안과 밖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 장학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업 성적과 주일 성수, 봉사, 신앙 성숙, 집안 형편 등을 기준하여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한다. 외적으로는 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초, 중, 고등학교에 학업이 우수한 학생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교육 사역부는 교회학교 부서를 행정적으로 총괄하고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을 세우며, 각 부서가 원활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매달 마지막 주에 교회학교 월례회를 개최하여 각 부서별 행사, 회계 보고를 하고 평가회를 가지며, 앞으로 진행할 행사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각 교회학교의 애로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 보고하여 돕는다.

임마누엘 찬양대는 매 주일 11시 예배 때 찬양을 부르며, 부활절과 성탄절과 같은 교회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성가를 준비해 찬양을 한다. 매 주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여 11시 예배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2시까지 연습한다.

사무행정 사역부는 재정이나 주보 발행, 제직회, 사무총회 등 교회의 항시적 일반적인 사무 행정을 행하며, 또 목회자를 도와 여러 가지 목회에 필요한 행정적인 일에 도움을 주는 사역을 한다.

제 3 절 가정교회 사역

순복음옥수교회는 2004년부터 가정교회 사역으로 사역을 전환하였다. 가정교회는 구역예배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이 스스로 가정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모임이며, 또 다른 교회 공동체이다. 매주 모이는 모임을 통하여 경건훈련 및 친교, 교제, 전도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상담과 심방, 교육까지 기존의 교회 내에서만 행해지던 모든 사역을 이 가정교회 사역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 순복음옥수교회는 이를 통해 평신도 사역자들을 깨우고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가정교회 사역으로의 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 땅에 세워진 원초적인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과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초점을 둔 가정교회를 통하여 신약 교회의 회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⁹⁷⁾

순복음음수교회의 가정교회의 필요성은 첫째, 교인들이 한 가족이 되기 위함이다. 둘째, 교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교인들이 모두 전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넷째, 남녀가 같이 모이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불신자도 같이 모이는 것이다. 여섯째, 삶을 나누기 위함이다.⁹⁸⁾ 순복음음수교회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가정교회 사역의 목표를 분명히 하여 사역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정교회의 직책에는 목자, 예비목자, 교사, 목원이다. 목자는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의 자격은 교회의 필수과목인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아직 목자로서 이수해야 할 과정은 마치지 못했으나 목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대행목자’라 칭하고, 대행목자는 목자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비목자는 목원이 12명 이상이 돼 분가할 때, 분가목장의 목자가 될 후보자이다. 그의 자격은 ‘생명의 삶’을 이수해야 주어진다. 교사는 ‘생명의 삶’을 이수한 사람 중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목원은 앞서 말한 직책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교회의 선교, 찬양, 봉사, 출판, 서기 회계 등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봉사하는 자이다.⁹⁹⁾ 목원의 선택에는 원칙이 있다. 그것은 첫째, 모든 목원은 목장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목자 선택은 목원의 자유이다. 셋째, 선택지를 제출할 때 1-4순위까지 적어야 한다. 이 후 목장의 정원이 초과 되었을 때에는 초신자 우선, 지역별 안배, 연령 고려, 친분 고려의 원칙에 따라 1-4순위 안에서 목장이 정해진다. 넷째, 선택하면 철저히 목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¹⁰⁰⁾

1. 목장 사역

본 단에서는 순복음음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의 목장 사역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목장이란 구역이나 순 모임과 유사한 모임이다. 그러나 이런 모임과는 달리 목장은 가정교회 사역에 속하므로 교회 내의 한 조직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척교회와도 같다. 이러한 이상 위에 놓인 목장 사역에 대한 고찰로써 사역의 철학, 구조, 구성에

97) 순복음음수교회 편집사역부, *순복음음수교회 40년사*, 165.

98) Ibid.

99) Ibid., 166.

100) Ibid., 169.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사역 철학

목장 사역의 철학은 목장 사역이야말로 성경적 요구이며, 사회 문화적 요구라고 믿는 것에서 출발한다. 목장 사역의 정착과 확장이야말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위대한 선교명령(마 28:19-20)과 위대한 사랑계명(마 22:37-39)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도 행전적 교회의 이상(행 2:42-27)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성취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장 사역에 대한 헌신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구체적인 삶의 양식이요, 사역의 방법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장 사역의 열매는 영혼구원과 예수의 제자로의 전인적 성숙, 목장의 재생산으로 나타나야 한다.¹⁰¹⁾

나. 구조

가정교회의 구조는 ‘목장’과 ‘연합목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장은 예배의 기능에서 경배와 찬양을 위주로 한다. 또한 지난주일 목사의 말씀을 상고한다. 또 말씀을 생활에서 산 제사(예배)로 적용하고 이를 목장에서 나눈다. 연합 목장은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지역 교회를 향한 사명과 비전을 전달한다. 회중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 경험과 각성, 은혜를 체험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회중 예배의 경배와 찬양, 헌신과 간증, 성찬, 세례 등을 돕는다.

교제와 치유의 기능에서 목장은 나눔과 격려를 통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간증과 체험을 통한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인적인 기도를 통한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에 사역의 초점을 맞춘다. 반면 연합 목장은 사역과 섬김을 통해 범 교회적 폭넓은 교제를 나눈다. 회중 예배 시간을 통해 성도들이 치유 역사를 경험하도록 한다.

교육 및 훈련의 기능에서 목장은 성도의 주일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 목장 성경공부를 실시한다. 또한 성도들이 섬김, 순종, 희생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연합 목장은 주일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한 삶공부의 수강에 힘쓴다. 목장 성경공부 교사 교육 및 목자를 훈련한다.

101) 순복음옥수교회 편집사역부, *순복음옥수교회 40년사*, 173.

섬김과 사역의 기능에서 목장은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섬김의 기회를 제공한다. 평신도 사역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변화되는 삶을 통해 평신도 제자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연합 목장은 성도에게 폭넓은 대상에 대한 섬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봉사 등에 힘쓴다. 성도에게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도와 선교의 기능에서 목장은 불신자를 목장에 초청함으로 전도한다. 성도들이 목장별 선교를 통해 직접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선교지와 긴밀한 연락을 통해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인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한다. 연합 목장은 목장에 인도된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전문적인 선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¹⁰²⁾

다. 구성

목장은 기혼자와 미혼자, 남자와 여자, 성인과 어린이들을 혼합하여 구성할 수 있고 또는 연령, 취미, 특정 직업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이 모임에서는 더 나은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위해 서로를 돕는다. 주일 설교 말씀의 실생활 적용을 강조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나눔을 갖는다.

(1) 가족구조의 형성

교회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집(딤후전 3:15),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권속(엡 2:19), 하나님의 자녀(요 1:12), 족속(엡 3:14) 등의 말은 영어로 'household', 즉 가족(가구, 식솔)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이다. 다시 말해 성경적인 교회, 참된 교회란 바로 가족으로서('가족 같은'이 아닌)의 관계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목장은 바로 이 필요에 대한 대답이며 교회의 교회됨을 온전하게 하는 구조이다.

(2) 인적 구성

최소 3명, 최고 12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15명 이상이 되면 목장이 분가를 준비한다.

102) 순복음옥수교회 홈페이지. <http://www.ok-su.org/>.

(3) 지역적 또는 특징적 구성

지역적 구성은 가능한 가까운 이웃과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단, 신생자(오이코스)와 함께 목장으로 온 사람은 지역과 관계없이 둘 다 같은 목장에 편성할 수 있다. 또한 연령중심의 목장, 사역중심의 목장(교회학교 교사 등), 같은 직종의 목장, 취미별목장, 부부목장, 자매목장, 형제목장 등 자신의 특성에 맞는 목장에 참여할 수 있다.

(4) 목장에서의 역할 구성

목자: 목장을 돌보며 예비목자를 키운다.

예비목자: 목자의 역할을 배우며 분가 시 새로운 목자로서 섬길 준비를 한다.

서기: 목장 보고서 등 자료를 기록 및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회계: 목장의 현금을 관리한다.

중보기도 담당: 기도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 사역을 한다.

선교담당: 선교사와 선교지에 관심을 가지고 목장에서 선교를 위해 활동한다.

새 가족 담당: 새 가족들을 보살핀다.

그 외에도 찬양 인도자 등 은사를 따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5) 순서

공동체, 복음전파, 리더십, 상호책임성, 새신자 양육이라는 목장의 다섯 가지 요소들은 생명력을 갖고 목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요소이다. 목장의 다섯 가지 요소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마 18:20).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공동체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바로 그의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각오를 바탕으로 목장 모임의 순서는 첫째, 환영, 마음 문 열기이다. 여기에는 애찬이 포함된다. 애찬은 반드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애찬은 모이는 집에서 준비하거나 상황에 따라 목원들이 한 가지씩 준비한다. 그러나 간단해야 한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음식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찬양을 통한 경배이다. 이 시간은 대략 20-25분으로 한다. 목장 구성원에

따라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자유롭게 선택한다. 음악적 소양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이 좋다.

셋째, 광고 및 환영이다. 3분 정도를 할애하여 ‘연합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한다.

넷째, 성경공부이다. 여기에는 교회의 오이코스지가 사용된다. 이는 대략 20분 정도 한다. 깊이 있는 성경공부는 연합 교회에서 제공하는 삶교육에서 하도록 하고, 이 때에는 가볍게 한다. 성경 지식이 부족한 새신자들을 위해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목장 교사는 주일 날 성경공부 담당자에게 먼저 배워서 목장 식구에게 전달한다.

다섯째, 나눔이다. 이는 대략 1시간-1시간 반 정도 진행한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감사한 일을 나눈다. 감사한 일을 주제로 삼을 때에 이야기가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속 깊은 이야기가 나오기 싶기 때문이다.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노출시켜야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인도자는 투명하게 자신을 노출해야 한다. 또 인도자는 노출 수위를 결정한다. 인도자는 간증과 질문만을 한다. 이때 인도자는 상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비취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나눔의 시간에 나누어지는 이야기는 비밀임을 목원에게 수시로 주지시킨다.

여섯째, 중보기도이다. 여기에는 10-15분 정도 할애한다. 나눔 시간에 나누어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 기도응답을 받았으면 그는 간증하여 은혜를 공유한다.

일곱째, 선교와 전도 도전이다. 이는 5-10분 정도 진행한다. 가정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다. 목장 모임이 끼리끼리의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목원의 시선을 전도의 관점에서 세상으로 향하고 목장 모임을 끝내야 한다. 이순서 시 전도 보고 및 선교지에서 온 편지 낭독을 한다. 마지막으로 선교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분(전도 대상자)을 위하여 기도한다.¹⁰³⁾

현재 순복음옥수교회에는 15개의 초원과 72개의 목장이 있으며, 이 목장들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이 목장 사역을 위해 목자 수련회, 목자 위로회, 목장 시상식, 목자 축복 예배 등을 하여 더욱 목장 사역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3) 순복음옥수교회 편집사역부, *순복음옥수교회 40년사*.

2. 교육사역

지금부터는 가정교회의 사역 중 교육사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살핀 대로 순복음교회의 가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가 무엇인지 알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알기 위해 교육사역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를 위한 교육사역의 내용이다.

가. 필수과정

이 과정은 믿음의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훈련받아 믿음을 굳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정식 목자로 안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과정에는 다섯 개의 과정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의 삶(13주): 이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지금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주는 과정이다. 신앙의 근본을 바로 잡는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삶(13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새로운 삶에 맞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

셋째, 경건의 삶(13주): 기도는 어떻게 하고, 금식은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등 기독교인에게 필수적인 신앙 훈련을 연습해 보며 소그룹이 친밀한 나눔을 통하여 내적치유를 꾀한다.

넷째,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다섯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13주):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서 과연 그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체험적으로 깨닫는 일대일 훈련이다.

나. 선택과정

이 과정은 이수를 원하는 자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이는 실제적이면서도 성경적인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여섯 개의 과정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삶(13주): 부부간에 서로를 알아주고, 또 이해 받으며,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부모의 삶(13주): 부모님들은 이 과정을 통해 생활 가운데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육하고 가르치는 법을 상세히 배우게 된다.

셋째, 교사의 삶(13주): 어린이를 양육하는 법, 교사로서 가져야 할 사명과 교수 방법을 상세히 배운다. 교사들에게 필수 과정이다.

넷째, 예비부부의 삶(6주):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없애고, 본인과 상대방, 그리고 결혼에 대한 실제적인 개념을 갖게 한다.

다섯째, 제자의 삶(13주): 좀 더 깊은 주제별 성경공부, 매일 성경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의 습관화, 매일의 묵상에서 받은 교훈의 생활화,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인식과 나의 성찰을 한다.

여섯째, 구약개관¹⁰⁴⁾

현재 순복음옥수교회는 제 243차 평신도 세미나 및 삶공부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향상되고, 더욱 예수의 제자 되는 살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3. 전도 및 선교 사역

본 단에서는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의 전도 및 선교 사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다. 가정교회 역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순복음옥수교회의 전도 및 선교는 1972년부터 자치회(남여선교회)를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역이 자리 잡지 못하여 주먹구구식으로 하였으나 차츰 발전하였다. 1975년 육군 8139부대를 위문 방문하는 것으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였다. 위문품 마련을 위해 성도들은 장사까지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런 정성 때문에 군부대에서는 군용트럭까지 동원시켜 주었다. 이후 적극적인 전도헌금 및 모금 활동으로 홀트 아동복지원, 평화의집(장애인 거주)을 후원할 수 있었다.

체계적인 전도 및 선교 사역의 일환으로 1986년에는 선교장학회가 설립되었다.

104) 순복음옥수교회 편집사역부, *순복음옥수교회 40년사*.

남녀전도회와 성도들의 도움으로 교회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농어촌 미자립 교회와 개척교회를 지원할 수 있었다. 강원도 정선의 고한순복음교회, 송탄 큰사랑교회, 여수 대울푸른교회 등 국내 13개 교회와 4개 선교단체를 지원하였다. 가깝게는 인근 옥수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각종 캠페인, 환경미화, 차 대접 등의 방법을 통해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 멀게는 아프리카 가나, 카자흐스탄, 필리핀, 중국 대련, 중국 홍성, 상해, 심천, 교단 세계 선교회 등 9개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는 선교사 및 그 지역 교회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모든 전도 및 선교의 활동은 교회의 전도·선교 사역부 뿐만 아니라 각 목장에서 직접 맡아서 하고 있다.

제 4 절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평가 및 과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라는 목회철학 아래 1968년 5월 26일 첫 예배를 시작으로 올해로 44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순복음옥수교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음화에 앞장서 온 교회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를 위하여 2004년도에 가정교회 사역을 한 것이다.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핀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목장과, 교육, 전도, 선교라는 주제로 나누어서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이 평가를 바탕으로 사역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펼칠 것이다.

1. 하나님의 백성의 목장

순복음옥수교회는 2004년부터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100개 목장 분과, 목자 교육 강화, 예비 목자 교육 강화를 통해 가정교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목표 아래에서 초원 및 목장, 목자, 예비 목자, 목원 등은 생활하고 사역하고 있다.

목장은 단순히 교회 내의 모임이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 자체로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현존하

시고, 이 교회는 백성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목장이 예배를 위해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가장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 는 것이지만, 이 뿐만 아니라 목장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것 또한 목장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목장은 모임 시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나눔을 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쓴다.

또한 목장은 회막이 하나님을 찾는 이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처럼(민 2:17) 만민에게 열린 모임이다. 동시에 초대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자유인과 노예들, 남자와 여자들 등 상이한 모든 부류가 집결될 수 있는 전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 역시 목장의 목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순복음옥수교회 목장은 기혼자와 미혼자, 남자와 여자, 성인과 어린이들을 혼합하여 구성할 수 있고 또는 연령, 취미, 특정 직업으로도 구성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을 중심으로 한 실버 초원을 만들었고, 이 초원 안에는 데고 목장, 빌립 목장, 안나 목장, 임마누엘2 목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미혼 청년들의 초원을 만들었고, 청년1 목장, 청년2 목장, 청년 3목장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연령에 따른 구분으로 목장을 만들어서 가정교회 사역을 진행한다. 그리고 밤목장과 낮목장, 주일목장 등 목원의 생활 패턴에 맞춘 목장도 만들어서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목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목자 세우는 것을 신중히 한다. 목자의 역할은 목장 모임에서 중요하다. 목자는 목장의 리더이기 때문이다. 또한 목장 모임이 변질되고, 중구난방이 되지 않고, 예배, 교육, 친교, 선교, 전도, 심방 등 일반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교회와 가정교회의 가교 역할을 하여 가정교회의 모습과 순복음옥수교회 본 교회의 모습이 일치하며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목장의 자격을 세우고 있다. 그 자격은 교회의 삶공부 중 필수 과목을 이수한 자이다. 이 과목들을 이수한 성도여야만 목자가 될 자격이 있다. 피치 못해 이수해야 할 과정을 다 이수하지 못한 성도 중 목자의 책임을 맡게 되어야 하는 성도는 대행목자라는 다른 직책으로 맡겨서 목자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목자와 함께 사역해야 하는 목원들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힘쓴다. 목원들이 목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목자의 후보는 교회가 임명하지만, 자신의 목자를 선택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그 선택권을 제공한다. 교회 내에서 목자 투표를 진행하여 목원들의 요구에 충족되는 목자를 4순위까지 정하여 목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교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투명성을 더한다. 만약 목자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는 역으로 목자가 목원을 선택하도록 한다. 10월 마지막 주 주일과 11월 첫째 주일 두 주간을 걸쳐 이러한 목자 투표가 진행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자와 목원들이 정해지고, 목장 모임이 진행된다.

이렇게 구성된 목장에서는 좀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 질 수 있도록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의 바람직한 모습을 찾으려고 애쓰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배하고, 또 자신의 삶을 나누며 목원 자신이 느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고 있다.

그러나 순복음옥수교회의 목장 모임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외국인을 향한 사역이다. 앞에서 살핀 대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현상은 성동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성동구에 위치한 순복음옥수교회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목장에 초대하고, 목원으로 삼아주어야 한다. 이 사역을 위해 교회는 어떻게 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목장 모임을 통해 순복음옥수교회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이라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부름은 성도들의 모든 활동과 행위보다 선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성도들과 나아가 온 자신의 백성을 상대로 그 부름을 행하신다. 여기에는 성도의 자격, 지위, 모습, 신앙의 고저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 이처럼 순복음옥수교회의 목장 모임에서는 교회의 신학적 의미인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 즉 상이한 모든 부류가 집결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하나님 안에서의 인성 교육

교회는 2장에서 논의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한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림의 관계라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하며, 유기체와 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은 가정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동일하다. 가정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해야 하며, 성도들 간의 관계는 서로 동등, 서로 존중, 서로 의존, 서로 신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 순복음옥수교회는 교육을 강조한다. 삶공부라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육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섯 개의 필수과정과 여섯 개의 선택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과정에는 기간, 교재, 진도분량, 과제, 재수강, 시험, 졸업 등 상세한 커리큘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필수과정인 첫 번째 과정인 생명의 삶 과정의 기간은 13주이고, 교재는 새신자 훈련 총서이다. 진도분량은 1주 서론, 2주는 1-1 죄, 1-2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4장(행 1-4), 3주는 1-3 회개, 1-4 신앙 요한복음 5-8장(행 5-8), 4주는 2-1 중생, 2-2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9-12장(행 9-12), 5주는 2-3 그리스도인의 생활, 3-1 믿음의 성장 요한복음 13-16장(행 13-16), 6주는 3-2 성경, 3-3 하나님 요한복음 17-21장(행 17-20), 7주는 3-4 그리스도, 3-5 성령 야고보서 1-5장(행 21-24), 8주는 4-1 교회, 4-2 교회 로마서 1-4장(행 25-28), 9주는 4-3 교회 회원, 4-4 교회 생활 로마서 5-8장(고전 1-4), 10주는 5-1 그리스도인의 신분, 5-2 그리스도인의 행실, 5-3 승리의 생활, 로마서 9-12장(고전 5-8), 11주는 6-1 헌신의 동기, 6-2 헌신의 방법 로마서 13-16장(고전 9-12), 12주는 6-3 헌신의 결심, 6-4 헌신의 보상 요한1서 1-5장(고전 13-16), 13주는 시험이다. 과제는 그날에 배울 과의 답을 미리 적는 것과 진도표에 나타난 대로 예습을 하고,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며, 재수강은 첫 번째 네 번의 강의 중 두 개를 수강하지 않은 성도, 결석 일수가 4번 이상 되는 성도, 요약 숙제가 4주일 치 이상 밀린 성도이다. 시험은 50퍼센트 단답형, 25퍼센트 성경 구절 암기, 25퍼센트 OX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화요일에 치른다. 졸업은 최종 성적이 60점 이상이고(출석 25퍼센트, 과제 25퍼센트, 시험 50퍼센트), 결석 일수가 세 번 이하이고, 성경 요약을 완료한 성도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가정교회는 그 본질을 잃지 않으

며,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참된 가정교회의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순복음교회의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시하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아래와 같은 존속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YTN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8살 A군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 흥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뒤 8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A군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¹⁰⁵⁾

이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는 범행의 이유나 대상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 이른바 괴물들의 문제로 충격에 빠져있다.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우리 사회의 인성 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본다. 인성 교육의 부재는 한 개인의 불행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는 그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다.

오늘날 내 아이만 생각하는 배타적인 가족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가족 해체의 위기뿐만 아니라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는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 극단적으로는 폐륜적 범죄나 아무 가책 없이 사람을 죽이는 범죄도 결국 인성 교육의 부재로 인간성이 실종된 우리 사회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인성 교육의 부재는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양 과목들을 살펴보면, 컴퓨터나 영어회화 등과 같은 실용교육 과목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이 입시중심의 지식교육이라면, 고등교육인 대학은 취업을 준비하는 기술교육으로 치우쳐 있다. 특히 취업위주의 대학교육 풍토 때문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인성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105) “어머니 살해 뒤 방치 고3 구속,” YTN뉴스, 2012년 1월 16일자 인용.
http://www.ytn.co.kr/_ln/0103_201201161931284674.

우리 사회가 경제는 발전하고 있지만, 건강, 행복, 인성 교육의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는 더 삭막해지고, 인간이 모여 살지만 인간답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실종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간성 회복은 곧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인성 교육이 작금의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어느 해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교육을 행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그 분의 본성을 교회의 인성 교육을 통해 성도는 성경과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자각과 함께 자신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자연의 생명체에 대한 존중함과 돌봄에 대한 삶의 정신과 태도를 갖게 한다.

순복음옥수교회는 인성 교육을 포함한 참된 신앙교육을 실행하여 이 시대를 변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들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분명한 인식아래 순복음옥수교회의 교육이 인간의 타고난 성품을 발현하도록 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교육까지 나아갈 때, 본 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은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의미인 몸으로써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자들이 서로 친밀한 사귀의 공동체를 발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

3. 인격적인 전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줄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인하여 돌아가신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참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순복음옥수교회는 이러한 전도의 본질에 따라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매주 기도회를 가지고 전도를 준비하며, 전도를 하고, 전도성과에 대해 분석하여 전도를 발전시키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순복음옥수교회는 전도가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대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불확정성의 성격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는 절대적 진리의 부정으로 나타나고 상대주의로

나타남과 아울러 자신이 스스로 그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기준에 의한 가치평가가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과 기준에 맞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현대 사회인에게 전하는 전도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이러한 사회의 모습 속에서 전도는 절대적인 진리를 전하는 어리석은 외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상대적인 진리로 인해 진리의 홍수를 초래한다. 이런 진리의 홍수 시대에서 현대 사회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집단에 기반을 둔 진리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진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게 된다.

순복음옥수교회는 이러한 현대 사회 속에서 가정교회를 통한 전도 사역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전도는 싸움이 아니라 사귄다.¹⁰⁶⁾ 가정교회 사역으로서의 전도는 인간 관계망을 따라 일상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기 위한 관계중심 생활전도를 가능하게 한다. 이들은 전도대상자에게 삶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의 중요함과 복음이 전해지는 구체적인 통로가 무엇인지 밝혀준다. 이것이 바로 인격 전도의 장점이다.

또한 현대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외롭다. 이 외로움에서 시작된 병폐적인 현상을 MK뉴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로움 공화국’이다. 극한의 경쟁과 스트레스, 치솟는 이혼율, 우울과 불안 등으로 인해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지난 10년 사이 2.38배나 증가했다. 평균 34분마다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셈이다.¹⁰⁷⁾

이미 한국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에 갇힌 지 오래다. 2000년 이후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더니 2010년에는 자살 사망자 수가 15,566명으로 하루 평균 42.6명을 기록했다.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가까이 된다.

106) “전도는 ‘싸움’이기보다 ‘사귄다.’” *미주뉴스앤조이*, 2010년 8월 15일자 인용.

<http://www.newsjoy.us/news/articleView.html?idxno=2048>.

107) “30분에 한 명 자살... ‘외로움 공화국’ 벗어나는 법?” *MK뉴스*, 2011년 11월 6일자 인용.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719202>.

불명예스럽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주변에서 자살 소식을 듣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우리 사회가 끔찍한 중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다. 자살의 원인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외로움이 청소년 자살률 중 3위, 노인 자살률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가정교회의 전도 사역은 현대인들의 이런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 교회 성도로서 공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성도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제 안에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간직한 채 사역을 하는 목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제는 더욱 진실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전도대상자가 이들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을 함께 나누게 될 때, 그 역시 그리스도의 도를 알고 싶어 하고, 경험하고 싶어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정교회 사역의 전도가 인격전도가 되는 것이다.

순복음옥수교회의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정교회는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사귀는 모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교회와 공동체의 신학적 의미와 일맥상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열방을 향한 선교

하비 콕스(Harvey Cox)는 그의 책, *썬속도시*에서 “교회의 과제는 선포, 봉사, 친교”¹⁰⁸⁾라고 한다. 교회란 선포적, 봉사적, 친교적 사명을 포함한 공동체이다. 선포적 사명은 교회에 주어진 케리그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한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자신의 증인될 것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셨다. 이는 교회의 일차적인 사명이 아닐 수 없다. 교회는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108) Harvey Cox, *썬속도시*, 민경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169.

순복음옥수교회의 선교는 아프리카 가나, 카자흐스탄, 필리핀, 중국의 대련, 홍성, 상해, 심천과 교단 세계 선교회 등 9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는 선교사를 도와주고 있으며 또한 그 지역 교회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각 목장에서 지역을 맡아서 선교지의 후원금, 물품, 등을 보내거나 선교사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선교 편지를 교환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등의 모습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이 순복음옥수교회의 선교가 좀 더 효과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전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서양에서는 자국의 식민지 국가들로 선교사를 보냈었다. 그리고 그들의 선교 방법은 좋은 문물을 통해 선교 대상 국가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모이게 하였다. 그들을 계몽하고, 그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선교를 행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제 3세계 국가들에게 도움과 원조를 줌으로써 자신들이 우위에 있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입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방식의 선교는 아닐 것이다. 경영용어 중에는 시너지(synergy)란 단어가 있다. 이는 시스템(system)과 에너지(energy)의 합성어이다. 이 단어의 뜻은 시스템이 창출하는 힘이다. 시스템이 논리적인 연결이 되었을 때 에너지를 발생하게 된다. 이는 선교에서도 해당하는 말일 것이다. 선교는 현지의 선교사와 국내 교회는 논리적인 연결을 이루었을 때 할 수 있다. 이 연결은 사귄 혹은 교제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교회에서 선교 활동비를 지원하고, 그 활동 비용으로 현지에서 선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선교사와 국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피상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요청에 부응하거나 선교 활동비를 지원받기 위해 현지의 선교 사역을 과장하여 보고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현지 선교사는 교회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물질로서 도움을 받지만, 기도로써 또 선교에 대한 열망을 실제로 제공하는 것 등으로서 교회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신 그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열망하는 그것이다. 교회는 다가올 완성될 나라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

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살고, 기다리고, 순례한다.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친교이다.

교회와 공동체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친밀한 교제이다. 선교 역시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순복음옥수교회와 해외 9개 선교지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비전을 공유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교제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순복음옥수교회의 역사와 비전, 목회적 상황, 가정교회의 사역,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논의하였다. 순복음옥수교회는 1968년 세워졌으며, 교회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의 교회, 중생교인 증가하는 교회, 성령 하나님 경험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신임 받는 임원을 갖춘 교회, 성경적인 재정정책을 갖추는 교회, 전문 직원이 함께 하는 교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초점을 영혼구원과 주님 제자 되고 예수 닮아가는 데 두는 교회이다.

순복음옥수교회의 목회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교회가 위치한 성동구는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인구가 감소하며, 인구 내에 노령자와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학생이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주민들의 학력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에 대해 살펴보면, 교회는 2004년부터 가정교회 사역으로 사역을 전환하였다. 이 가정교회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 땅에 세워진 원초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과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초점을 둔 가정교회를 통하여 신약 교회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가정교회 사역의 구조는 ‘목장’과 ‘연합목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가정교회의 교육 사역에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등의 필수과정과 부부의 삶, 부모의 삶, 교사의 삶, 예비 부부의 삶, 제자의 삶, 구약개관 등 선택과정이 있다.

가정교회 사역의 전도 및 선교 사역에는 목장과 남녀선교회와 함께 군대,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지급,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지원, 세계 선교회 등 9개 지역 선교활동 등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평가 및 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목장, 하나님 안에서의 인성 교육, 인격적인 전도, 열방을 향한 선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표인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가정교회 사역의 대안을 순복음옥수교회를 중심으로 모색할 것이다.

제 5 장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가정교회 사역의 대안:

순복음옥수교회를 중심으로

앞 장에서는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성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순복음옥수교회의 역사와 비전, 목회적 상황과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평가 및 과제까지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가정교회의 사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제 1 절 사례 연구 범위와 방법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좀 더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사례연구를 다룰 것이다. 먼저, 사례에 대한 연구 범위와 방법을 제시할 것이며, 계속해서 연구 대상 및 도구, 설문조사 방법 및 범위, 설문조사 기간, 설문 자료수집 절차와 제한을 통해 순복음옥수교회 가정교회 사역을 논할 것이다.

1. 연구 대상 및 도구

본 연구자는 공동체성 회복을 위하여 가정교회 사역의 대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순복음옥수교회에 현재 출석하는 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부록 1>에 있는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자료수집 도구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2. 설문조사 방법 및 범위

설문지는 일반사항, 가정교회 사역 전반, 예배, 교육, 기도, 전도, 선교의 범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이 범주 안에 속한 질문들은 주로 가정교회의 사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므로 그 범위는 교회 사역 전반이라기보다는 가정교회 사역에 집중된다.

3. 설문조사 기간

설문지 작성: 2012년 8월 30일-9월 14일

설문지 조사: 2012년 9월 23일

2012년 9월 23일 주일 예배 시간 이후에 설문조사를 하였다. 총 200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여자가 많았으며, 40-50대가 많았고, 기혼이며, 교회에 5년 이상 출석한 성도들이 참여하였다.

설문지 자료 분석 및 정리: 2012년 9월 24일-10월 10일

4. 설문 자료 처리 방법 및 제한

회수한 설문지는 각 문항별로 항목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고, 반응빈도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제 2 절 설문내용 분석

본 절에서는 순복음유수교회의 가정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 조사지를 회수하고,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1. 설문 자료 분석

본 단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얻어진 응답에 대한 결과들과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가정교회 사역과 교회 공동체성 회복과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하여 표를 사용할 것이다.

가. 일반사항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설문 조사 결과 순복음옥수교회 성도들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남자(82명, 41퍼센트), 여자(118명, 59퍼센트)이다. 본 설문 조사에 응답한 성도는 남자보다 여자의 수가 조금 더 높다. 교인 전체 여성의 인구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본 설문조사는 남녀 구별이 크게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2) 당신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나이에 관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중 45퍼센트는 50대(90명), 25퍼센트는 40대(50명), 17.5퍼센트는 30대(35명), 10퍼센트는 20대(20명), 2.5퍼센트는 60대 이상(5명)이라고 응답했다. 본 설문 조사에 응답한 인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전체 45퍼센트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연령대는 각각 25퍼센트와 17.5퍼센트로 40대와 30대이다. 60대 이상은 전체 2.5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는 연구 도구가 구조화된 질문지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60대 이상의 성도들도 많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당신은 미혼입니까, 기혼입니까?

성도들의 결혼 여부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85퍼센트는 기혼(170명), 15퍼센트는 미혼(30명)이라고 응답했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도 중 기혼자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이는 연령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기혼자의 비율이 높은 것과 목장 모임이나 예배 등의 참석에 있어서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있는 듯하다.

(4) 당신의 우리교회 출석 연수는 얼마입니까?

성도들의 출석연수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60퍼센트는 10년 이상(120명), 20퍼센트는 5년 이상-10년 미만(40명), 6퍼센트는 1년 이상-3년 미만(12명), 4퍼센트는 1년 미만(8명)이라고 응답했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도들 중 우리교회에 출석한지 10년 이상 된 성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

의 출석 연수를 가진 성도의 비율이 높다. 출석 연수가 1년 미만인 성도의 비율이 가장 낮다.

(5) 당신의 목자 봉사 기간은 얼마입니까?('목자'만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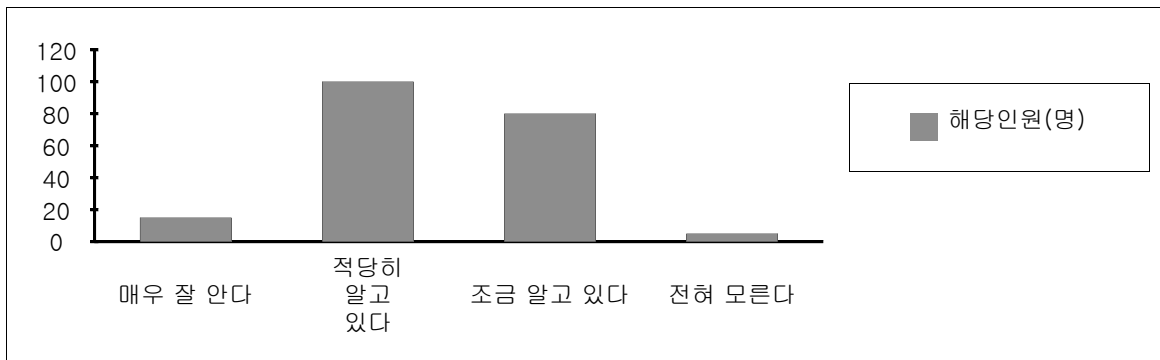
성도 중 목자들의 봉사 기간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87.5퍼센트는 5년 이상(35명), 7.5퍼센트는 3년 이상-5년 미만(3명), 5퍼센트는 1년 미만(2명)이라고 응답했다.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목자들의 봉사 기간은 5년 이상 된 목자들의 비율이 전체 87.5퍼센트로 가장 높다.

나. 가정교회 사역

(1) 당신은 목장 사역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목장 사역 인지 여부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50퍼센트는 적당히 알고 있다(100명), 40퍼센트는 조금 알고 있다(80명), 15퍼센트는 매우 잘 안다(15명), 2.5는 전혀 모른다(5명)라고 응답했다.

<표 7> 목장 사역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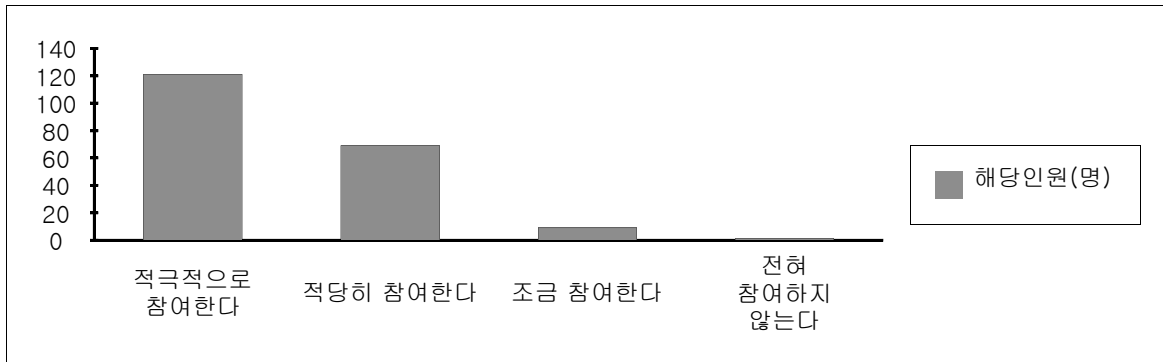


<표 7>에도 나타나듯이, 목장 사역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목장 사역에 대해 97.5퍼센트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순복음음수교회 성도들은 거의 목장 사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 당신은 목장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목장 사역 동참여부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60.5퍼센트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121명), 34.5퍼센트는 적당히 참여한다(69명), 4.5퍼센트는 조금 참여한다(9명), 0.5퍼센트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1명)라고 응답했다.

<표 8> 목장 사역 동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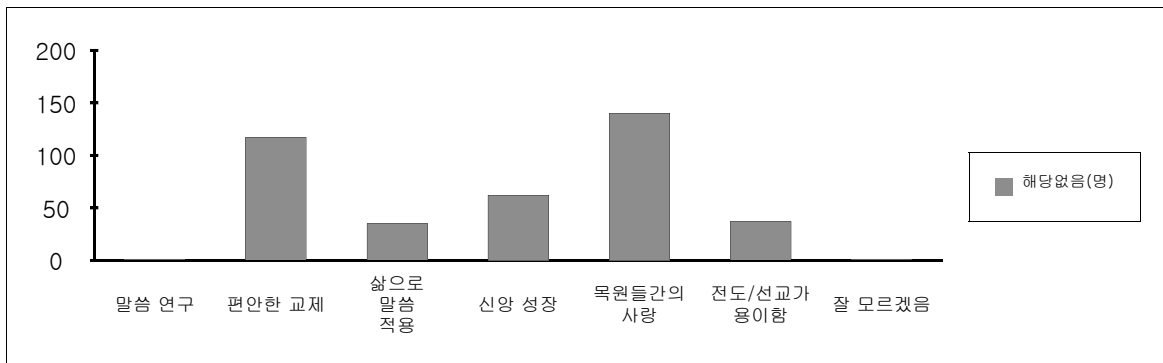
<표 8>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목장 사역에 참석한다고 대답한 성도의 인원의 비율은 60.5퍼센트로 가장 높다. 적당히 참여한다고 대답한 성도의 인원의 비율은 34.5퍼센트로 목장 사역 참석 여부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 비율은 95퍼센트에 해당한다.

(3) 목장 사역의 장점은 무엇입니까(중복선택 가능)?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장 사역의 장점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35.6퍼센트는 목원들 간의 사랑(140명), 29.8퍼센트는 편안한 교제(117명), 15.8퍼센트는 신앙 성장(62명), 9.4퍼센트는 전도 및 선교가 용이함(37명), 8.9퍼센트는 삶으로 말씀 적용(35명), 0.3퍼센트는 말씀연구 혹은 잘 모르겠음(각 1명)이라고 응답했다.

목장 사역의 장점에 대한 결과를 담은 <표 9>에 따르면, 목장 사역의 장점은 목원들 간의 사랑(35.62퍼센트), 편안한 교제(29.77퍼센트), 신앙 성장(15.77퍼센트), 전도 및 선교가 용이함(9.41퍼센트), 삶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음(8.9퍼센트), 말씀 연구(1퍼센트), 잘 모르겠음(1퍼센트) 순이다.

<표 9> 목장 사역의 장점



목원과 연관된 목원들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편안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4) 목장 사역으로 인해 당신의 신앙에 변화와 성숙을 가져온 요소는 무엇입니까?(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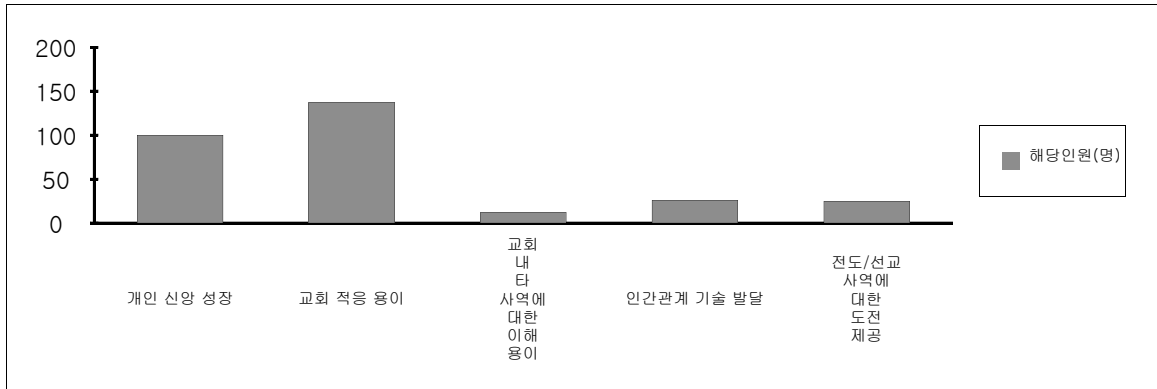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장 사역을 통한 신앙의 변화와 성숙의 요소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46.7퍼센트는 교회 적응용이(137명), 33.3퍼센트는 개인 신앙 성장(100명), 8.7퍼센트는 인간관계 기술 발달(26명), 8.3퍼센트는 전도 및 선교 사역에 대한 도전 제공(25명), 4퍼센트는 교회 내 타 사역에 대한 이해용이(12명)라고 응답했다.

<표 10>에 따르면, 목장 사역을 통해 교회 적응(45.66퍼센트), 개인 신앙의 성장(33.33퍼센트)이라는 신앙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온다. 또한 전도나 선교 사역에 대한 도전을 제공하고(8.33퍼센트), 인간관계 기술의 발달(8.66퍼센트) 등의 결과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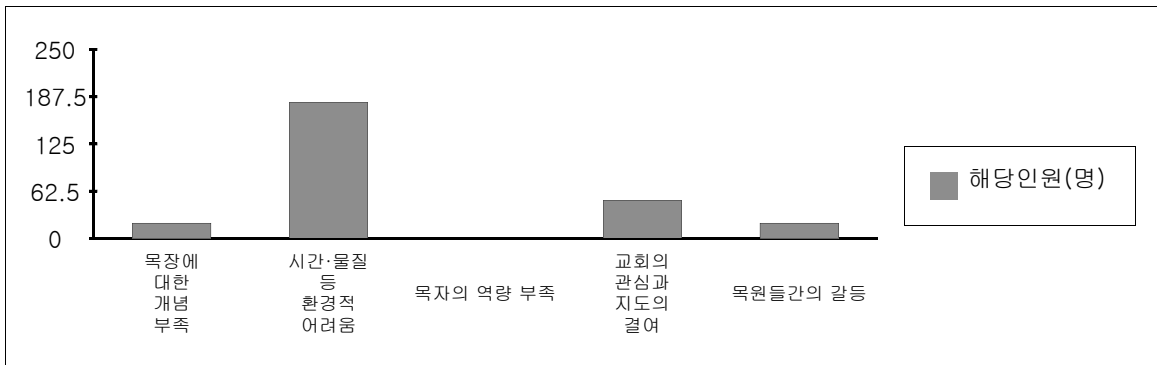
(5) 당신의 목장 사역을 막는 요인은 무엇입니까?(중복선택 가능)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장 사역을 막는 요인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66.7퍼센트는 시간·물질 등 환경적 어려움(180명), 18.5퍼센트는 교회의 관심과 지도의 결여(50명), 7.4퍼센트는 목장에 대한 개념 부족 혹은 목원들 간의 갈등(각 20명)이라고 응답했다.

<표 10> 목장 사역을 통한 신앙의 변화와 성숙의 요소



<표 11> 목장 사역의 장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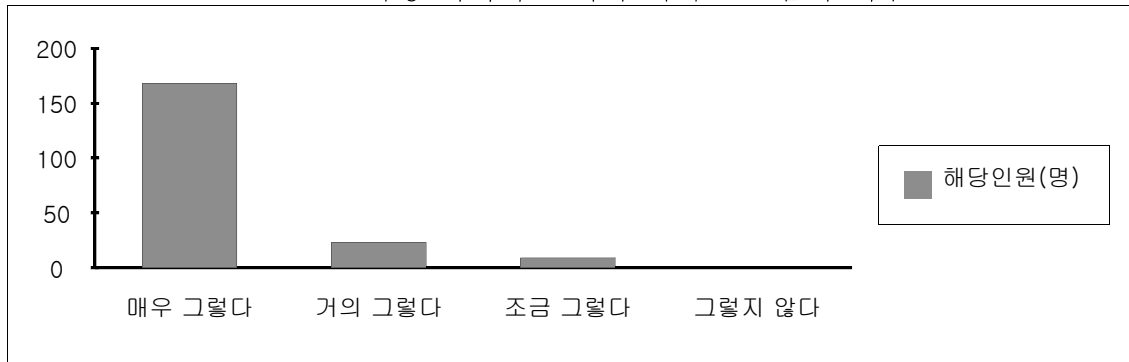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표로 만든 <표 11>에 따르면, 성도의 활발한 목장 사역을 막는 요인은 시간 및 물질 등의 환경적 어려움이 전체 비율에 66.7퍼센트에 달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기혼자들의 응답이 많은 것에 미루었을 때 가정생활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직장생활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며 전업주부의 경우 육아와 살림으로 인해 목장 사역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다.

(6) 우리 교회의 목장 사역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장 사역이 교회에 미치는 도움의 여부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84퍼센트는 매우 그렇다(168명), 11.5퍼센트는 거의 그렇다(23명), 4.5퍼센트는 조금 그렇다(9명)라고 응답했다.

<표 12> 목장 사역이 교회에 미치는 도움의 여부



<표 12>를 보면, 목장 사역은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00퍼센트이다. 그 도움의 양은 매우 그렇다(84퍼센트), 거의 그렇다(11.5퍼센트), 조금 그렇다(4.5퍼센트)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성도는 목장 사역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다. 예배

(1) 당신은 어느 예배에 참석하십니까?(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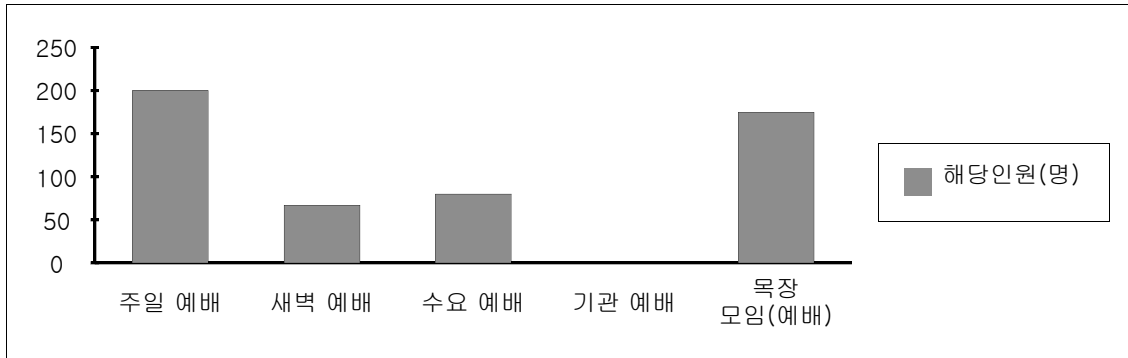
성도들의 참석 예배 종류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38.3퍼센트는 주일 예배(200명), 33.6퍼센트는 목장 모임(예배, 175명), 15.3퍼센트는 수요 예배(80명), 12.8퍼센트는 새벽 예배(67명)라고 응답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담은 <표 13>에 따르면, 성도들은 주일 예배(38.31퍼센트) 다음으로 목장 모임(예배)(33.52퍼센트)에 참석한다. 그 다음으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에 참석한다.

(2) 위의 예배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십니까?

성도들의 예배 참석 빈도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87퍼센트는 항상 참석(174명), 11퍼센트는 거의 참석(22명), 2퍼센트는 가끔 참석(4명)이라고 응답했다. <표 14>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다수의 성도들은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예배)을 항상 참석하며, 이 비율과 거의 참석하는 비율을 합하면 전체 98퍼센트가 예배에 꾸준히 참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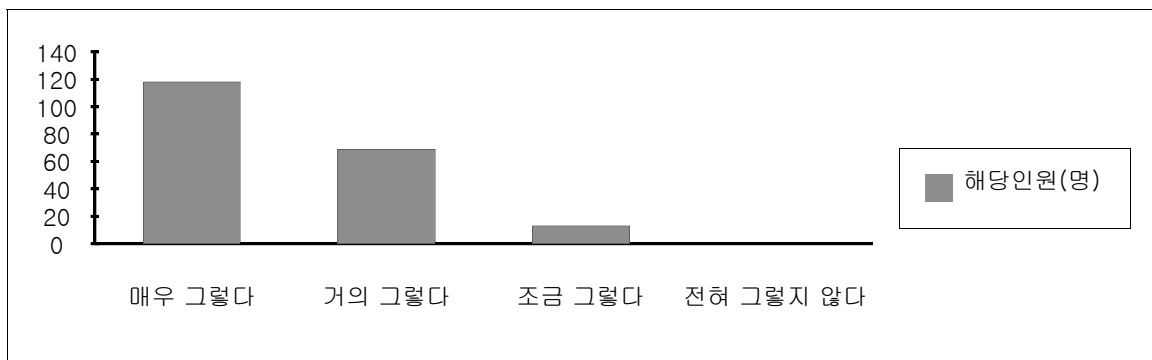
<표 13> 참석 예배 종류



(3) 목장 모임(예배)이 공예배 참석에 동기부여가 됩니까?

성도들의 목장 모임을 통한 공예배 참석의 동기부여 여부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59퍼센트는 매우 그렇다(118명), 34.5퍼센트는 거의 그렇다(69명), 6.5퍼센트는 조금 그렇다(13명)라고 응답했다.

<표 14> 목장 모임을 통한 공예배 참석의 동기부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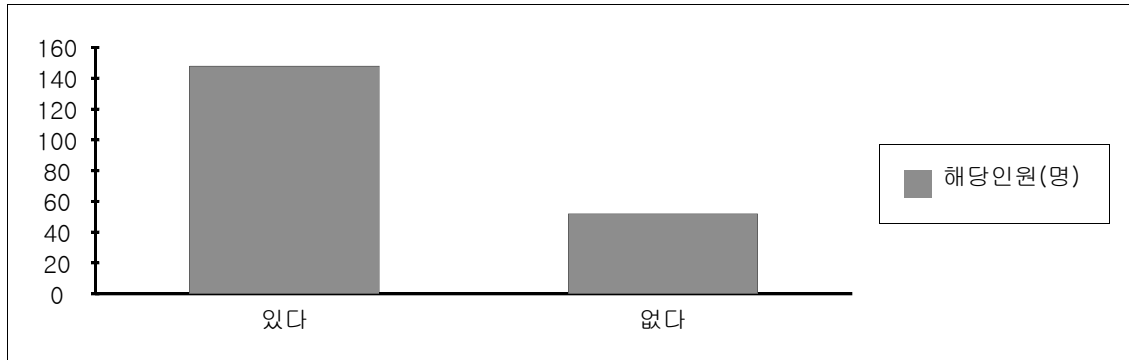
<표 14>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반수의 성도들은 목장 모임(예배)이 공예배 참석에 동기 부여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동기부여를 주지 않는다고 대답한 성도는 한 명도 없다. 목장 모임과 공예배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교육

(1) 당신은 삶공부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삶공부 교육의 참여 여부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52퍼센트는 있다(148명), 26퍼센트는 없다(74명)라고 응답했다.

<표 15> 삶공부 교육의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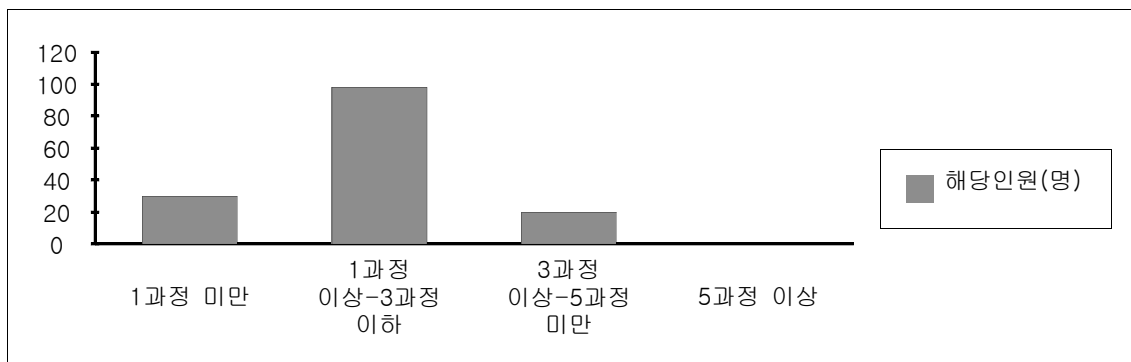


<표 15>를 보면, 성도들이 가정교회 사역의 교육 부분에 해당하는 삶공부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148명, 74퍼센트이다. 참여한 적이 없는 성도도 52명, 26퍼센트나 된다. 성도 대다수가 가정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성도의 비율이 높은 그 이유에 대해 교회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당신의 교육 기간은 얼마입니까?(삶공부 교육에 참여한 적 있는 자만 대답)

삶공부 교육에 참여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기간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66.2퍼센트는 1과정 이상-3과정 미만(98명), 20.3퍼센트는 1과정 미만(30명), 13.5퍼센트는 3과정 이상-5과정 미만(20명)이라고 응답했다.

<표 16> 교육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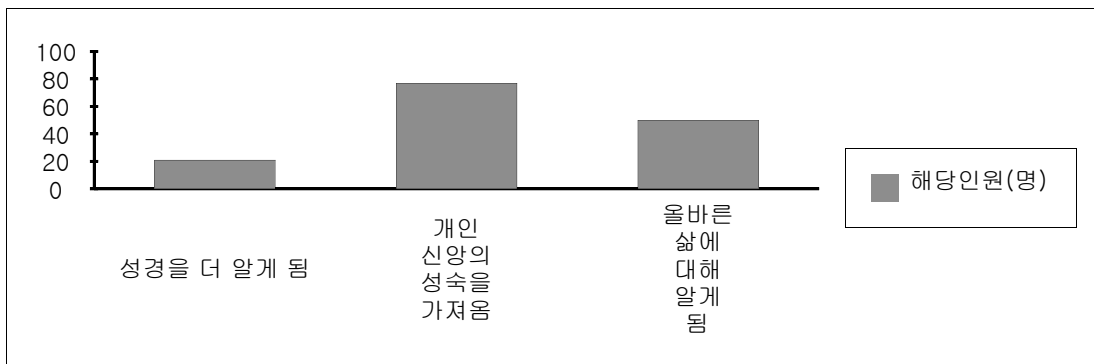
<표 16>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삶과정 교육에 참여한 자 중 1과정 이상부터 3과정 이하까지 수강한 자들이 전체 66.2퍼센트를 이룬다. 1과정 미만인 성도들의 비율

(20.27퍼센트)과 3과정 이상-5과정 미만(13.51퍼센트)을 수강한 자들까지 합하면 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100퍼센트에 달한다.

(3) 교육의 장점은 무엇입니까(삶공부 교육에 참여한 적 있는 자만 대답)?

교육의 장점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52퍼센트는 개인 신앙의 성숙을 가져옴(77명), 33.8퍼센트는 올바른 삶에 대해 알게 됨(50명), 14.1퍼센트는 성경을 더 알게 됨(21명)이라고 응답했다.

<표 17 > 교육의 장점



교육의 정점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담은 <표 17>을 보면, 삶공부를 통해 성도들은 개인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다고 대답한다(52.02퍼센트). 그 다음으로 삶공부의 유익은 올바른 삶에 대해 알게 되는 것(33.78퍼센트), 성경을 더 알게 되는 것(14.18퍼센트) 등이 있다.

(4) 당신의 교육을 막는 요인은 무엇입니까?(중복선택 가능, 삶공부 교육에 참여한 적 없는 자만 대답)

교육의 장애물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86퍼센트는 시간·물질 등 환경적 어려움(43명), 8퍼센트는 교회의 관심과 지도의 결여(4명), 6퍼센트는 커리큘럼에 대한 불만(시간 장소, 내용 등, 3명)이라고 응답했다.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정교회 사역의 교육의 부분인 삶공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시간 및 물질 등 환경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에서 살핀 대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은 기혼자이다. 성도들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기인하는 장애물로

인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5) 교육의 커리큘럼이 바뀐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삶공부 교육에 참여한 적 없는 자만 대답)?

교육의 커리큘럼과 교육 참석과의 관계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34.6퍼센트는 거의 그렇다(18명), 32.7퍼센트는 조금 그렇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각 17명)라고 응답했다.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의 커리큘럼이 바뀐다면 교육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 성도들은 67.3퍼센트에 달한다. 교회는 커리큘럼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6) 우리 교회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교육의 문제점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70퍼센트는 교사 부족(140명), 16퍼센트는 5교사 양성(32명), 9퍼센트는 재정 후원(18명), 2.5퍼센트는 시설 혹은 커리큘럼(각 5명)이라고 응답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성도들이 교육의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것은 교사의 부족이다. 즉 성도들은 교사로서 봉사하는 이들이 적기 때문에 교육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여긴다. 그 다음으로는 재정 후원이 적은 것이 문제점으로 여긴다. 교회는 교사의 수가 늘고 재정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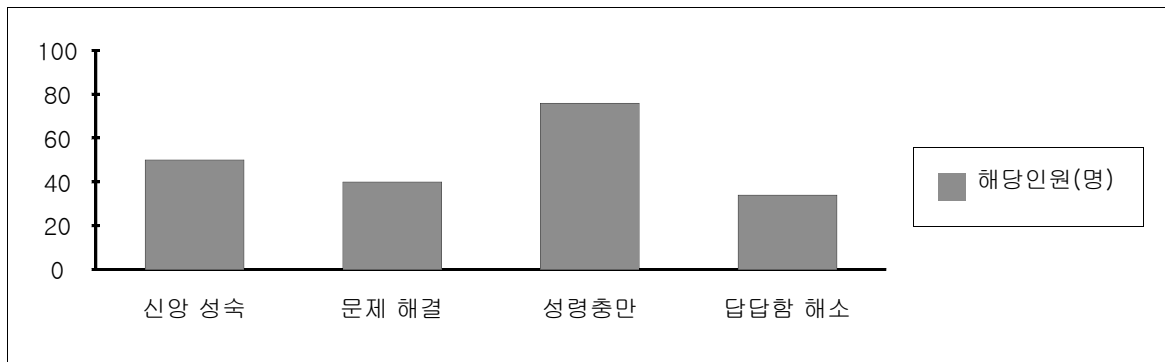
(1) 당신에게 있어 기도는 당신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습니까?

기도가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89.5퍼센트는 매우 그렇다(179명), 10퍼센트는 거의 그렇다(20명), 0.5퍼센트는 조금 그렇다(1명)라고 응답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성도들은 기도가 자신의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성도는 단 한 명도 없다.

(2) 기도는 당신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기도의 유익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38퍼센트는 성령 충만(76명), 25퍼센트는 신앙 성숙(50명), 20퍼센트는 문제 해결(40명), 17퍼센트는 답답함 해소(34명)이라고 응답했다.

<표 18> 기도의 유익



<표 18>에 나타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가져다준다(38퍼센트). 다음으로 신앙성숙(25퍼센트)과 문제 해결(20퍼센트), 답답함 해소(17퍼센트) 등의 유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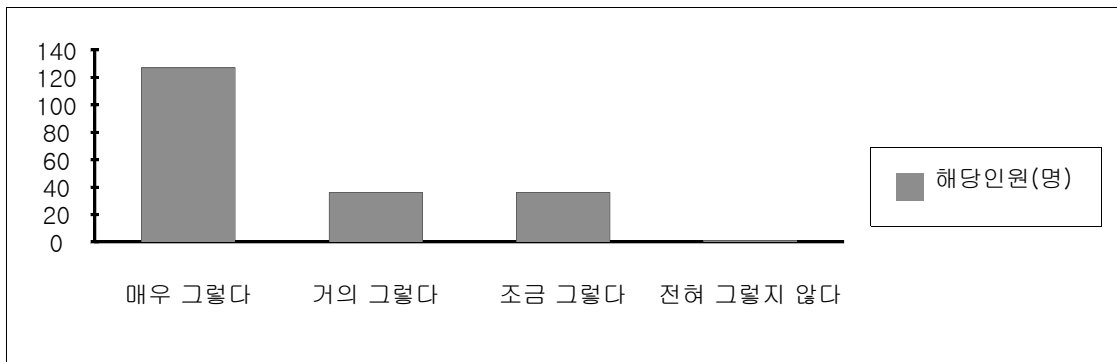
(3) 당신은 기도를 지금보다 더 하기 원합니까?

기도의 양 증가를 원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45퍼센트는 조금 그렇다(90명), 40퍼센트는 거의 그렇다(40명), 15퍼센트는 매우 그렇다(30명)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지금보다 더 기도를 하기 원한다고 대답한다. 이에 대해 교회는 성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당신의 목장 모임(예배)이 당신의 기도생활에 유익합니까?

목장 사역이 기도생활에 미치는 도움의 여부에 대한 여부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63.5퍼센트는 매우 그렇다(127명), 18퍼센트는 거의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각 36명), 6.5퍼센트는 전혀 그렇지 않다(1명)라고 응답했다.

<표 19> 목장 사역이 기도생활에 미치는 도움의 여부



<표 1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도들은 목장 모임이 기도생활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93.5퍼센트). 이 중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성도의 비율은 63.5퍼센트이다.

바. 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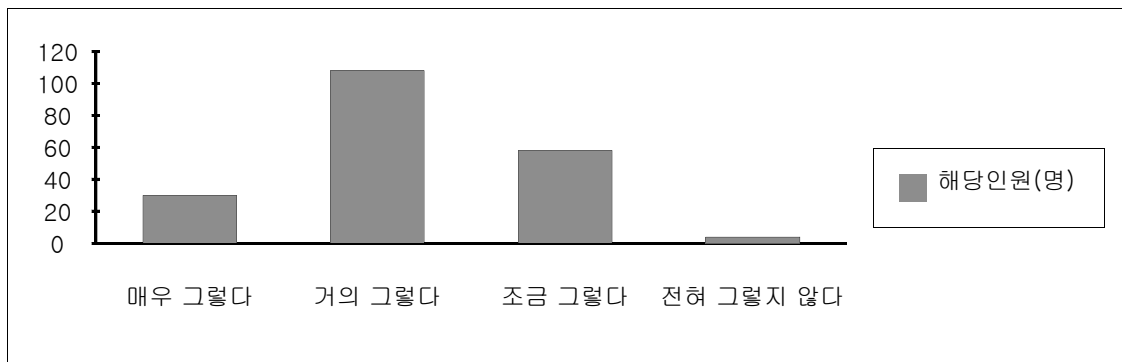
(1) 우리 교회의 전도 활동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전도활동 인지 여부에 대한 여부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79.5퍼센트는 조금 그렇다(159명), 10.5퍼센트는 거의 그렇다(21명), 7퍼센트는 거의 그렇지 않다(14명), 3퍼센트는 매우 그렇다(6명)라고 응답했다.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 내 전도활동에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금 그렇다가 차지한 비율은 79.5퍼센트이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추측할 수 있다. 교회는 성도들의 전도활동에 대한 정보를 증가하고, 성도들의 전도활동에 대한 참여를 증가하는 것에 대해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가정교회 사역으로 전도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교회 사역이 전도에 미치는 도움의 여부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54퍼센트는 거의 그렇다(108명), 29퍼센트는 조금 그렇다(58명), 15퍼센트는 매우 그렇다(30명), 2퍼센트는 전혀 그렇지 않다(4명)라고 응답했다.

<표 20> 가정교회 사역이 전도에 미치는 도움의 여부



<표 20>에서도 나타나듯이, 가정교회 사역으로 전도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98퍼센트에 달한다. 성도의 대부분은 가정교회 사역이 전도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 당신의 전도를 막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장애물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48.7퍼센트는 전도 기술에 대한 어려움(97명), 46.7퍼센트는 시간·물질 등 환경적 어려움(93명), 4.5퍼센트는 전도에 대한 필요성 부재(9명), 0.1퍼센트는 기타(1명)라고 응답했다. 본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도들은 전도 기술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전도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긴다(48.74퍼센트). 그 다음으로 시간 및 물질 등 환경적 어려움의 장애물이다(46.73퍼센트). 교회는 교인들의 전도활동을 위해 전도 기술의 교육 등과 같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 선교

(1) 우리교회의 선교 활동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선교활동인지 여부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57퍼센트는 조금 그렇다(114명), 31.5퍼센트는 거의 그렇다(63명), 8.5퍼센트는 전혀 그렇지 않다(17명), 3퍼센트는 매우 그렇다(6명)라고 응답했다. 본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교회 내 선교활동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금 그렇다가 차지한 비율은 57퍼센트이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추측할 수 있다. 교회는 성도

들의 선교활동에 대한 정보를 증가하고, 성도들의 선교활동에 대한 참여를 증가하는 것에 대해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우리교회의 선교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선교활동의 만족도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49퍼센트는 거의 그렇다(98명), 47퍼센트는 조금 그렇다(94명), 8퍼센트는 매우 그렇다(8명)라고 응답했다. 성도들은 모두 교회의 선교활동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대로 성도들의 선교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감안한다면 자세히 모르는 선교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이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교회는 염두에 두어 두어야 한다.

(3) 우리교회의 선교활동에 추가 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중복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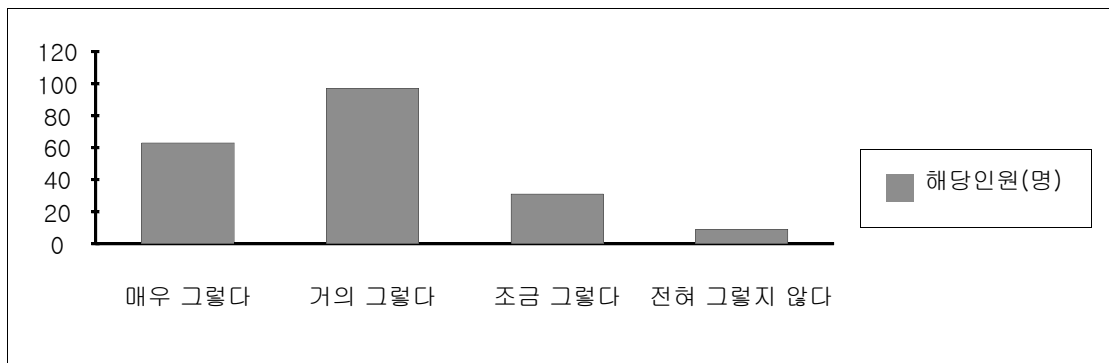
선교활동에 추가 되어야 할 사항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28퍼센트는 선교대상자와의 관계 강화(84명), 23퍼센트는 선교 관련 행사(69명), 21.3퍼센트는 목장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분위기(64명), 17.3퍼센트는 선교에 대한 교육(52명), 7퍼센트는 재정 후원(21명), 3.3퍼센트는 기도(10명)라고 응답했다. 또한 선교활동에 추가 되어야 할 사항은 먼저 선교대상자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28퍼센트). 다음으로 선교 관련 행사를 좀 더 활발히 하는 것(23퍼센트), 선교에 대한 목장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분위기(21.3퍼센트)가 필요하다.

(4) 가정교회 사역으로 선교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교회 사역이 선교에 미치는 도움의 여부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48퍼센트는 거의 그렇다(97명), 31.5퍼센트는 매우 그렇다(63명), 15.5퍼센트는 조금 그렇다(31명), 4.5퍼센트는 전혀 그렇지 않다(9명)라고 응답했다.

<표 21>에서도 드러나듯이, 가정교회 사역으로 선교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96퍼센트에 달한다. 성도의 대부분은 가정교회 사역이 선교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표 21> 가정교회 사역이 선교에 미치는 도움의 여부



(5) 당신의 선교를 막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선교의 장애물에 관련한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45.5퍼센트는 시간·물질 등 환경적 어려움, 39퍼센트는 선교 기술에 대한 어려움(78명), 10.5퍼센트는 선교를 함께 할 동역자 부재(21명), 5퍼센트는 선교에 대한 필요성 부재(10명)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시간 및 물질 등 환경적 어려움과(45.5퍼센트) 선교 기술에 대한 어려움(39퍼센트), 선교를 함께할 동역자 부재(10.5퍼센트), 선교에 대한 필요성 부재(5퍼센트) 등이 선교활동의 장애물이라고 여긴다. 시간 및 물질 등 환경적 어려움은 선교뿐 아니라 전도와 목장활동 등의 장애물과 중복된다. 교회는 성도의 환경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설문 자료 종합 정리

지금까지 총 32개의 질문에 대한 순복음옥수교회 교인들의 대답을 정리하여 보았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많고, 30대-50대가 주를 이루었다. 대부분의 성도는 기혼이었고, 교회에 출석한지 3년 이상 된 성도가 많았다. 이들 중에는 5년 이상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자들의 수가 많다. 본 설문조사는 이러한 기초적인 성도들의 사항을 바탕으로 가정교회 사역에 대해 진행하였고, 그들의 대답을 통하여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에 대해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었다. 순복음옥수교회의 성도들은 가정교회 사역 즉 목장 사역에 대해 거의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거의 가정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의 대답으로 미루어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의 장점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성도들이 가정교회 사역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행하지는 행사나 사역들에 대해 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면, 한 비전을 꿈꾸는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대로 응답자들의 97.5퍼센트가 가정교회의 목장 사역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목장 사역의 장점은 목원들이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목원들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각 지체임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인지하여 이를 발현한다. 성도들의 교회 내 기관에 봉사하는 기간이 길고, 목장 사역에 대해 대다수 알고 있으며, 동참하고 있는 것과 그들이 가정교회 사역의 장점으로 여기는 것의 관계는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가정교회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은 교회 적응을 쉽게 할 수 있고, 개인 신앙이 성장한다고 여긴다. 수평이동의 경험이 있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이동한 이유는 직장문제 다음으로 목회자, 이사, 봉사, 인간관계 순이다. 즉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직장문제와 이사문제는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목회자, 봉사, 성도들과의 갈등과 같은 교회의 문제이다.

성도들은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교회 내에서의 교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교회를 떠난다. 교회를 떠난 이유를 표로 정리한 <표 22>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교회 사역을 통하여 어느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앞에서 살핀 대로 가정교회 사역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사권의 공동체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교제를 바탕으로 하는 가정교회 사역은 성도들의 교회 적응 및 개인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준다. 이는 나아가 교회의 수평이동이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통해 교인이 정착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순복음옥수교회의 성도 대다수는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예배)을 항상 참석한다.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는 동기 중에는 목장 모임(예배)이 있다고 본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친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것은 예배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은 공동체성의 회복과

마찬가지 일 것이다. 예배의 참석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예배 참석에 대해 동기를 부여해 주는 가정교회 사역은 혹은 적어도 이 둘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가정교회 사역은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발현하는 것의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표 22> 이전 교회 이탈 이유(전체)¹⁰⁹⁾

이유	백분율(퍼센트)
직장 문제	23.1
목회자 문제	22.8
이사 문제	16.7
봉사 문제	3.8
사람 갈등 문제	6.7
예배 문제	6.0
교육환경 문제	4.2
헌금 문제	4.0
전도 문제	3.2
결혼 문제	2.6
친교/교제 문제	2.0

또한 가정교회 사역은 개인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교육에도 도움을 준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삶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신앙성숙의 교육이 장점이라고 여긴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삶교육을 이수해 본 경험이 있는 자들 중 79.8퍼센트는 1과정 이상을 이수하였다는 것이다. 교육이 주는 장점이 없었다면 교육 수강의 자율성이 있음에도 1과정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성도가 과반수를 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가정교회 사역 안의 교육을 통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또 그 얹이 삶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신앙의 활동이며 공동체 신앙의 활동이 될 수 있는 기도, 전도, 선교에도 도움을 준다. 성도들은 목장 모임(예배)이 개인의 기도생활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도와 선교 활동을 하는 것에서도 도움을 준다고 여긴다. 교회 공동체는 위에서 살핀 대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109) 홍영기, *교회 선택의 조건*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44.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활동은 전도와 선교일 것이다. 바람직한 공동체는 이런 활동이 끊임이 없어야 한다. 가정교회 사역은 이러한 전도와 선교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 순복음옥수교회 가정교회 사역의 단점에 대해 고찰해보면, 먼저 가정교회 사역의 일환인 삶교육에 참여하는 수가 가정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수에 미루어봤을 때 적다는 것이다. 성도들의 대다수는 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목장 모임(예배)에도 상당수 참석한다. 그러나 삶공부의 참여 여부를 물었던 질문에는 26퍼센트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는 시간 및 물질 등 환경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교육의 중심이 되는 커리큘럼과 교육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성도 중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에게 커리큘럼이 바뀐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고, 그 대답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67퍼센트가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이 중요한 것은 비단 순복음옥수교회의 경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평이동의 경험이 있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회 상 중 하나는 교육이 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23> 성도 유형별 교인의식 특성¹¹⁰⁾

	성도유형			
	수평이동성도 특징		회심성도 특징	
바람직한 교회상	기도와 찬양이 많아야	80.9	사회문제 적극 참여	30.8
			성도간 친교/교제	26.7
	교육이 잘돼야	78.6	설교가 좋아야	25.9
			자유롭고 편안함	25.3
	지역 사회 섬김/구제	76.6	전도와 선교가 살아야	23.9
			예배가 중요함	23.9

성도의 유형별에 따른 의식의 특성을 표로 만든 <표 23>에 따르면, 교회를 옮겨본 경험이 있는 성도들은 바람직한 교회상에 기도와 찬양이 많아야 하며(80.9퍼센트)

110) 홍영기, *교회 선택의 조건*, 110.

다음으로 교육이 잘되는(78.6퍼센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앞서서도 언급했다시피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은 기혼 여성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기혼 여성이 사회 및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육아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 살림일 수도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런 문제는 한국사회 도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추측해 보는 것이다. 교회는 기혼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4장에서 <표 4>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성동구의 유치원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대학원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환경에 놓인 교회의 교육 사역은 교회학교 학생 감소에 대한 대처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가정교회 사역의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정교회의 교육 사역은 성도들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커리큘럼을 조직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성도들의 교회 내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연계 활동을 계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위에서 살펴본 대로 커리큘럼 보다 교사부족과 교사 양성, 재정 후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교사의 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 교사 양성, 재정 후원 방안 등에서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순복음옥수교회 가정교회 사역은 기도 생활과 연관 지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도들에 따르면, 기도는 성령 충만, 신앙 성숙, 문제 해결, 답답함 해소 등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에 대한 대답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만 기도가 유익이 된다고 성도들 거의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도를 더 하기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거의 대부분은 ‘그렇다’이다. 성도들은 기도 생활을 더 하기 원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또한 성도들은 목장 모임(예배)이 자신의 기도 생활에 유익하냐고 물었을 때에도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복음옥수교회는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활동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복음옥수교회 가정교회 사역의 단점은 교회의 전도와 선교 사역에

대한 성도들의 인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에 따르면, 성도들의 과반수가 전도와 선교 사역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많은 전도 활동과 목장 사역과 연관되어 한 목장이 한 선교지와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이러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 사역들에 대해 성도들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전도와 선교 사역은 공동체 존립의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공동체이며 이런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 가정교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사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순복음옥수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도와 선교 사역에 대해 특별히 가정교회 사역과 연관된 이 사역들에 대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가정교회의 목장 사역 개발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핀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의 평가 및 과제에 대한 논의와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을 통한 내용을 토대로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 중 목장 사역 개발의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가정교회 사역의 주추가 되는 목장 사역과 연관된 리더십 개발, 교육, 전도와 선교 등의 사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칠 것이다.

1. 리더십 개발

본 단에서는 가정교회 사역 중 목장 사역 개발의 방법에 대한 연구 중 하나로서 리더십의 개발을 살펴보고자 한다. 리더십의 개발은 목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중요하다. 리더는 목장 모임이 변질되고, 중구난방이 되지 않고, 일반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자이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교회의 가교 역할을 하여 가정교회의 모습과 순복음옥수교회의 모습이 일치하며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가. 리더십의 정의

옥스퍼드 사전을 찾아보면, 영어 단어로 지도자(leader)라는 단어는 일찍이 1300년경에 출현했으나, 리더십(leadership)이라는 단어는 19세기 초반에야 등장하게 된다.¹¹¹⁾ 리더십의 어원은 앵글로 색슨 족의 ‘*ledan*(레단)’에서 나온 것으로 ‘*lithan*(리탄)’의 어근으로 ‘간다(to go)’라는 뜻의 동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리더란 앞선 사람, 지도하는 사람, 무슨 일을 먼저 행하는 사람, 먼저 이루는 사람, 그룹 앞에서 걸어가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선두자, 안내자를 뜻한다.¹¹²⁾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지도자라는 말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리더십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이는 접근하는 입장이나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¹¹³⁾ .

그러나 기독교적 리더십은 이런 관점과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다른 조직들과는 달리 인간 중심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가정교회는 주인이 존재하며, 그 주인이 중심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교회 모든 구성원은 그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는 무리들이 된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고 말씀한다. 가정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인체의 조직처럼 교회는 유기체적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가정교회 리더는 자신이 속한 가정교회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그 가정교회와 그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정교회의 리더는 자신의 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 가정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나. 리더십의 개발과 적용

가정교회 리더십의 개발을 위해 리더 선택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반드시 건전하면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증거는 지도자가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¹¹⁴⁾ 즉 어

111) 박상진, *교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168.

112) 신웅섭 외 5인 공저, *리더십* (서울: 학지사, 1996), 28-29.

113) 박상진, *교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168.

114) 김남식, *제자훈련을 통한 새 신자 양육론* (서울: 엠마오, 1991), 43-44.

떠한 분위기에서든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둘째, 회개와 믿음의 생활이 있는 것이다. 회개란 죄와 관계된 생활태도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께 귀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온 마음을 그 분을 향하여 개방하는 행위이다. 참된 믿음의 평온은 회개와 믿음에서 시작된다. 리더가 먼저 안정되어 있어야 타인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올바른 가치 판단 속에서 공동체를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는 누구보다도 먼저 항상 회개와 믿음의 자세로 자신을 정화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리더는 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감사하는 자라야 한다. 인간의 열망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는 바꿀 수 없다.

넷째, 복음 및 교리 지식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리더가 아무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여도 복음 및 교리 지식이 부족하면 어떤 기독교 공동체를 인도하는 것에 많은 장애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리더는 복음 및 교리 지식의 신장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공동체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가 점점 외적인 부흥을 통하여 지도자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인간은 여러 영역의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끊임없이 지도자를 찾고 있다. 성서와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며, 제자로서 모든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사람을 발견하실 때 그의 두드러진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정하여 훈련시켜 지도자로 삼아 사용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교회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개교회는 지도자의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본다면 문제는 교회 지도자의 모집과 자질 문제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도자의 모집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지도자들의 헌신과 봉사의 정신이 부족한 것에 있다. 지도자는 공동체 내

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부족한 자가 리더일 경우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리더들의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은 굳이 그것의 정당성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리더는 구성원을 교육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을 배우고 알고 있어서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셋째,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장래의 리더를 위해 조직적인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를 모집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것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 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¹¹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더모집 때에 선견지명이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회에서 리더모집에 대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에 주력해야 하며, 이러한 것을 통하여 교회의 봉사는 일부분의 사람만이 아닌 전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때 교인들은 교회의 모든 일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리더모집 위원회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분산하고 리더모집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리더를 모집하여야 한다. 리더 선정은 선택된 사람과 그 사람이 맡은 일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참된 리더는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그들은 권력이나 인간적인 영광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리더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리더를 선정할 때는 첫째,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하고, 계속 성장하는 교인이어야 하며, 둘째, 타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친교를 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셋째, 교인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을 즐겨서 배울 수 있는 평신도를 선택하면 된다.¹¹⁶⁾ 이렇게 해서 선발된 리더들을 채용하여 구체적으로 지도력 훈련을 시킬 때에 평신도들의 풍부한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

이상의 기준들을 살펴 볼 때, 지도력훈련을 위한 평신도 리더의 참된 자질은 성격의 타고 난 천부적인 재능보다는 전적인 헌신을 가지고 고난을 감수하고 훈련에 임

115) 감리교신학대학 한국선교교육연구원, *교회교육 핸드북* (서울: 대한기독교출사, 1977), 76-83.

116) Ibid., 40.

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과 더불어 순복음옥수교회의 리더십 훈련의 실제적인 면을 살펴보면, 순복음옥수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성동구에는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리더십 훈련을 통해 더욱 소통할 수 있는 리더를 세워야 한다. 교회 공동체에는 개개인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유기체와 같이 이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연관 속에서 리더는 소통을 해야 한다. 서로 다른 나이와 성별, 심지어 국가와 언어를 가진 성도들과 함께 목장생활 및 교회생활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이 바람직한 관계의 최종 단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발현하는 것이다. 가정교회의 리더 즉 목자훈련을 통해 그 목장 즉 가정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상호 침투하여서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성부와 성자는 성령 안에 거하시는 공재적 삶을 형성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다. 이는 가정교회 사역 특별히 리더 훈련을 통해 이루어져 질 수 있다.

2. 가정교회 구성원의 교육

가. 교육의 정의

교회의 교육은 교리 교육과 더불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경, 교회, 복음, 기도, 전도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배워서 논리적이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이며 폭넓은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

‘διδασκαλος(디다스칼로스)’란 말은 예수 당시에 사용했던 교육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이는 교사, 박사, 주인, 선생(요 3:10; 13:13)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특히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는 자를 의미하였다. 교회의 신앙 교육은 성도들이 교육을 받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알고 변화를 받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며,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8절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한다. 교육 받은 성도는 복음을 전

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야 한다. 교육은 성서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며, 예수의 사역이요, 성령의 지도며 교회의 사명이다. 예수님의 교육과정은 소명, 교육, 제자화, 파송, 제자의 재생산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교회 교육의 주체는 그리스도이며, 목표는 그리스도의 제자 양성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도덕성과 영성을 함양하고, 지식과 체험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다.¹¹⁷⁾

나. 교육의 개발과 적용

위에서 살펴본 대로 교회 내의 교육은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본 절에서는 인성 교육을 포함하여 순복음옥수교회의 삶교육의 커리큘럼을 재구성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인성 교육은 인간이 타고난 성품을 발현하도록 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4> 수정된 삶공부 과정 개요

필수과정	선택과정
① 생명의 삶(10주)	① 부부의 삶(10주)
② 새로운 삶(10주)	② 부모의 삶(10주)
③ 경건의 삶(10주)	③ 교사의 삶(10주)
④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5주)	④ 예비 부부의 삶(5주)
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10주)	⑤ 제자의 삶(10주)
	⑥ 인간의 삶(10주)

<표 24>는 이러한 전제 아래 본 교회의 수정된 삶공부 과정 개요를 만든 것이다. <표 24>에 나타나듯이, 순복음옥수교회의 본래 과정들에서 기간을 조정하고, 선택과정의 구약개관 과정을 생략하고, 선택과정의 인간의 삶(10주)과정을 삽입하였다.

117) 김덕복, *기독교 신앙의 본질* (서울: 쿰란출판사, 2006), 401-405.

<표 25> 인간의 삶 과정의 개요

필수과정	선택과정
① 생명의 삶(10주) ② 새로운 삶(10주) ③ 경건의 삶(10주) ④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5주) 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10주)	① 부부의 삶(10주) ② 부모의 삶(10주) ③ 교사의 삶(10주) ④ 예비 부부의 삶(5주) ⑤ 제자의 삶(10주) ⑥ 인간의 삶(10주)

<표 26> 인간의 삶 과정의 커리큘럼

<p>오늘 날 세상에서는 소위 ‘묻지마 범죄’, ‘괴물’ 등 과 같은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이 인성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비단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앎을 삶으로써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날의 교회는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이러한 일들을 타파하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됩니다.</p>			
기간	10주		
등록금	교재비 및 간식비		
재수강	다음의 경우가 되면 다음 학기에 재수강 해주십시오(등록도 다시 하셔야 합니다). · 두 강의를 놓치시는 경우 · 결석 일수가 4번 되는 경우		
주	내용	주	내용
1주	· 인성이란	6주	· 감사
2주	· 경청이란	7주	· 정직
3주	· 예절	8주	· 성실
4주	· 긍정적 사고방식	9주	· 배려
5주	· 자존감	10주	· 졸업고사

또한 <표 25>는 인간의 삶과정의 개요를 표로 만든 것인데, <표 25>에서 보여 주듯이 본 과정의 기간은 10주이고, 두 강의를 놓치는 경우, 결석 일수가 4번 되는 경우에는 재수강을 해야 한다.

<표 26>은 순복음옥수교회의 인간의 삶과정의 커리큘럼을 만든 것이다. <표 26>을 보면, 본 과정은 인간의 삶 즉 인간적인 삶을 위한 초석으로 인성 교육을 행한다는 서론을 바탕으로 개론 수업부터 졸업고사까지 10주 동안 인간됨의 근본이 되는 항목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 강의들은 오로지 인간적인 덕목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 덕목들에 대해 성서적 시각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교육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배타적인 가족 이기주의 이혼을 상승, 가족 해체 집단 이기주의, 패륜적 범죄, 묻지마 범죄 등 인간성이 상실된 것만 같은 범죄들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3. 가정교회 구성원의 전도와 선교의 개발과 적용

본 단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몸 된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가 어떻게 개발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몇 가지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가. 노인을 향한 전도

4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성동구의 인구 중 아동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노인과 아이를 향한 전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성동구 내의 노령자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노인을 위한 노인대학 사역을 진행한다.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는 노인들의 취미생활의 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속에서 성도와 성동구의 노인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노인대학 교사이면서 성도인 자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표 27>은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을 구상해 본 것이다.

<표 27> 노인대학 프로그램

학과	내용
보건 과정	건강에 관심이 많을 수강자들을 위해 기초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강의
노래 과정	함께 노래를 배우며 교제하는 강의
성경 과정	기독교의 진리를 노인들의 수준에 맞추어 쉽게 교육하는 강의
영어 과정	기초 영어 회화 교육을 제공하는 강의
게이트볼 과정	노인들에게 현재 인기 스포츠인 게이트볼 게임을 교육하는 강의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재정적 후원 뿐 아니라 교사를 준비해야 하는 인적 후원과 함께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교회는 현재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의 효과적인 전도 활동을 위해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소외된 자들을 향한 전도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외로움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로움은 소외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일 것이다. 외로움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외로움으로 인해 34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교회의 전도 사역은 외로움을 달래주어야 한다. 이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장 사역을 활발히 진행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교회의 목장 사역은 공예배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또한 교회의 목장의 구성은 기혼자와 미혼자, 남자와 여자, 성인과 어린이들을 혼합하여 구성되거나 연령, 취미, 특정 직업으로도 구성되어 있다.

1절의 설문조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목장 사역의 장점은 목원들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편안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이므로 교제에 참석하는 공동체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 전할 수 있다. 목장 모임의 순서는 <표 28>에 나타나 있다.

<표 28> 목장 모임 순서

순서	시간	내용
애찬	30분-60분	각자 반찬 하나씩 준비해 와 식사를 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가 설거지를 함
찬양	15분	자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순서를 돌아가며 찬양 인도를 하고 함께 찬양함
광고 및 환영	5분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성경공부	10분	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집으로 진행함
나눔	60분	애찬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하거나 진지한 내용의 나눔을 함
증보기도	10분	나눔을 바탕으로 그들을 지지해 주는 기도함
전도와 선교	10분	교회의 전도 및 선교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눔 혹은 기도
파송	5분	목원들이 돌아가며 한 목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및 기도를 하고 세상으로 파송함

<표 29> 목장 모임 범주

범주	내용
지역	비슷한 지역의 목원들 간
나이	비슷한 나이의 목원들 간
시간	비슷한 시간(낮/밤 등)을 선호하는 목원들 간
직업	비슷한 직업을 가진 목원들 간
취미	비슷한 취미를 가진 목원들 간
사역	비슷한 교회 사역을 하는 목원들 간
자녀 나이	자녀의 나이가 비슷한 목원들 간

목장 모임의 범주는 <표 29>에 수록되어 있다. 목장 모임은 목원들이 원하는 자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더욱 바람직한 모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자들을 정하는 것은 모두에게 쉽지 않다. 그러므로 <표 29>의 범주를 예로 들어주어 목원 자신이 원하는 목장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한 후 각 범주에 해당하는 목장을 찾아 그 목장의 목원이 될 수 있게 한다. 비슷한 점이 있을 때 서로 공유하는 정보,

생각, 가치관 등이 더욱 유사할 수 있고, 이렇게 될 때 목장 모임은 더욱 즐거워 질 수 있으며, 오고 싶어지는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는 도처에 외로운 자들이 있다. 이는 성동구 옥수교회 근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교회는 달래주고 어루만져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곳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교회 내에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사역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있다. 목장 사역을 통해 성도 개개인은 참 사랑을 전하고, 또 참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에 속한 아이를 향한 전도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에 속한 아이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회는 민감히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 내 한국어 강의를 진행하여 그들이 한국어를 배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교회 내에 한국인 성도가 외국인들의 보험이나 비자 등의 정보를 배워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이 되도록 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속한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의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어울리는 예배나 야외 활동, 취미 활동의 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회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에 속한 아이를 향한 교회 활동이 활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타 사역

4장에서도 이미 언급하였지만, 성동구 인구는 성동구의 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들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기가 힘들고, 또한 바쁜 사람들은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하고, 혹은 근본적인 문제로 인구 대비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체육시설 미비에 관심을 가지고, 미약하나마 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3장의 <표 6>에서도 보았지만, 성동구의 개인 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회는 교회에 예배가 없는 날 주차장을 구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교회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하여 지역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앞의 설문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 내에 기혼 여성들의 수가 많으나, 이 기혼 여성들이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 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공동 육아와 공동 살림이다. 교회 내에서 가능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순번을 정하여 공동으로 육아를 맡거나 밑반찬 등을 함께 만들어서 나누어 먹고, 장보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성도를 위해 함께 장을 보거나 함께 살림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일 등을 진행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사회의 기혼자들과 함께 진행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교회는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신약학자인 라이트(N. T. Wright)는 “교회는 예수를 주님으로 세상에 전하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¹¹⁸⁾라고 주장한다. 이는 순복음교회의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주님께서 순복음교회의 가정교회를 세우신 것은, 가정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God’s agent)로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정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가정교회 사역의 대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는 순복음교회의 목장 사역 개발을 위한 방안을 리더십 개발, 가정교회 구성원의 교육, 가정교회 구성원의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그 내용은 교회의 가정교회의 사역 중 목장 모임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귀는 공동체의 참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자신의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통일성이 있는 사귀어 가는 것처럼 목장 모임에서도 목원들의 개인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면서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한다.

리더십의 개발을 위해서는 리더를 선택할 때에는 리더가 건전하면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 회개와 믿음의 생활이 있는 것, 하나님

118) N. T. Wright, *Simple Christian: Why Christianity Makes Sense*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6), 204.

의 말씀을 알고 사랑하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감사하는 것, 복음 및 교리 지식의 신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는 개개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리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가정교회의 사역 중 교육의 모습은 교회와 공동체가 보여주는 서로 친밀한 사귀음을 이루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공동체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깊은 관계를 이루는 유기체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 양육은 친밀한 사귀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특별히 인성 교육에도 관심을 두어 성서와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자각과 함께 자신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자연의 생명체에 대한 존중함과 돌봄에 대한 삶의 정신과 태도를 갖게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10주 과정의 인간의 삶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커리큘럼을 제시하였다.

가정교회의 사역 중 전도의 모습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가정교회 사역으로서의 전도는 인간 관계망을 따라 일상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기 위한 관계 중심 생활전도를 가능하게 한다.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전도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관계를 통해 전도와 선교 활동을 할수록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서로 사귀음이 커지며, 더욱 친밀해 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본 장에서는 노인을 향한 전도, 소외된 자들을 향한 전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에 속한 아이를 향한 전도, 체육시설, 주차장, 공동 육아와 공동 살림 등 기타 전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목장 사역을 더욱 개발할 수 있고, 이는 순복음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이 개발 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이 될 수 있다.

제 6 장

결 론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와 나아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이는 한국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 되었다. 이것은 교회 내 개교회주의에서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로 인해 130년이 안 되는 짧은 개신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개신교 교단 수는 약 300개 가까이 이르고 있다. 이는 그만큼 개신 교회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에 분열을 거듭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분열로 인해 한국 교회는 사회에 본이 되지 못할 뿐더러 한국 사회를 향한 교회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가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이라고 본다.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성서가 말하는 교회와 공동체성을 이룰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분열된 교단이 서로 화합하고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교회 본연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것이라 본다.

한국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며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방안이 바로 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가정교회 사역은 친밀성과 개인의 존중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장점은 현대 사회에서 요청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공동체성을 고취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제 1장에서는 한국 교회의 분열의 내용을 포함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연구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먼저, 성서에서 말하는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면 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실현, 유기체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회와 공동체는 상이한 모든 부류가 모여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로 친밀한 사귀를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교회는 이러한 본질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가정교회의 사역을 실행하는 것을 제기하였다.

제 3장에서는 가정교회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가정교회의 정의 및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일반적인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와 가정교회의 기능 연구를 하여 공동체와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좀 더 부연하면, 먼저 가정교회는 독립된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지역교회의 기능을 평신도들에게 상당부분 부여하여 수행하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략하게 현대 사회에서의 가정교회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바탕 아래에서 현재 가정교회 사역을 살펴보기 위해 열린문교회와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고찰하였다.

제 4장에서는 순복음옥수교회 사역을 분석하였다. 교회의 설립과 역사, 비전, 목회적 상황, 2004년부터 전환된 가정교회 사역에 대해 살펴보고,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평가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평가 및 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목장, 하나님 안에서의 인성 교육, 인격적인 전도, 열방을 향한 선교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목장은 그 자체로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이 교회는 백성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회는 이를 더욱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목원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성 교육의 측면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유기체임을 기억해야 한다. 유기체는 서로 동등, 서로 존중, 서로 의존, 서로 신뢰해야 한다. 이를 더욱 바람직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특히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순복음옥수교회는 인성 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실행하여 참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자들의 모임을 해야 한다. 인격적인 전도의 특면에서 순복음옥수교회는 현대 사회 속에서 전도가 싸움이 아니라 사귀임을 기억해야 하며, 외로운 자들이 많은 사회에서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열방을 향한 선교의 측면에서 순복음옥수교회의 선교는 현지의 선교사와 국내 교회의 체계적인 연결을 이루는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즉 현지 선교사와 국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제 5장에서는 순복음옥수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가정교회 사역을 논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의 평가 및 과제에 대한 내용과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결과를 토대로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 사역 중 목장 사역 개발의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교회는 건전하면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소통을 하는 리더십의 개발을 해야 한다. 또한 현대 사회 특별히 성동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을 이루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소통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고,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전도와 선교 등의 사역을 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방안으로써 가정교회 사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가정교회 사역은 그 사역의 주된 특징이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방안으로써 좀 더 적절하다. 그리하여 많은 가정교회 사역을 진행하는 교회들은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가정교회 사역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정교회 사역을 위해서는 더욱 교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교역자, 교사, 봉사자 등의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자원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지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교회 사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본 연구를 마치려고 한다.

부록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설문지

본 설문지는 순복음옥수교회의 가정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지를 통하여 얻어진 성도님의 의견은 가정교회 사역에 관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인의 솔직한 생각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설문조사 작업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사항]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당신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3. 당신은 미혼입니까? 기혼입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4. 당신의 우리교회 출석 연수는 얼마입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목자”분만 답변 요망

5. 당신의 목자 봉사 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가정교회 사역]

1. 당신은 목장 사역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안다. ② 적당히 알고 있다.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전혀 모른다.

2. 당신은 목장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 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② 적당히 참여 한다. ③ 조금 참여 한다.
 ④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3. 목장 사역의 장점은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① 말씀 연구 ② 편안한 교제 ③ 삶으로 말씀 적용 ④ 신앙 성장
 ⑤ 목원들 간의 사랑 ⑥ 전도/선교가 용이함 ⑦ 없음

4. 목장 사역으로 인해 당신의 신앙에 변화와 성숙을 가져온 요소는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① 개인 신앙 성장 ② 교회 적응 용이 ③ 교회 내 타 사역에 대한 이해 용이
 ④ 인간관계 기술 발달 ⑤ 전도/선교 사역에 대한 도전 제공
 ⑥ 기타: _____

5. 당신의 목장 사역을 막는 요인은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① 목장에 대한 개념 부족 ② 시간·물질 등 환경적 어려움 ③ 목자의 역량 부족
 ④ 교회의 관심과 지도의 결여 ⑤ 목원들 간의 갈등

6. 우리 교회의 목장 사역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예배]

1. 당신은 어느 예배에 참석하십니까?(중복 선택 가능)

- ① 주일 예배 ② 새벽 예배 ③ 수요일 예배 ④ 기관 예배 ⑤ 목장 모임(예배)

2. 위의 예배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십니까?

- ① 항상 참석 ② 거의 참석 ③ 가끔 참석 ④ 전혀 참석하지 않음

3. 목장 모임(예배)이 공예배 참석에 동기부여가 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

1. 당신은 삶공부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아래의 1-①-1, 2 답변 요망) ② 없다((아래의 1-②-1, 2 답변 요망).

1-① 선택하신 분만 답변 요망

1-①-1. 당신의 교육 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1과정 미만 ② 1과정 이상-3과정 이하 ③ 3과정 이상-5과정 미만
④ 5과정 이상

1-①-2. 교육의 장점은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① 성경을 더 알게 됨 ② 개인 신앙 성숙을 가져옴
③ 올바른 삶에 대해 알게 됨 ④ 기타: _____

1-② 선택하신 분만 답변 요망

1-②-1. 당신의 교육을 막는 요인은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① 교육의 필요성 느끼지 못함 ② 시간·물질 등 환경적 어려움
③ 교사의 역량 부족 ④ 교회의 관심과 지도의 결여
⑤ 커리큘럼에 대한 불만(시간, 장소, 내용 등)

1-②-2. 교육의 커리큘럼이 바뀐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모두 해당)2. 우리 교회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① 재정 후원 ② 교사 부족 ③ 교사 양성 ④ 시설 ⑤ 커리큘럼

[기도]

1. 당신에게 있어 기도는 당신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2. 기도는 당신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① 신앙 성숙 ② 문제 해결 ③ 성령충만 ④ 답답함 해소

⑤ 기타: _____

3. 당신은 기도를 지금보다 더 하기 원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4. 당신의 목장 모임(예배)가 당신의 기도생활에 유익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전도]

1. 우리교회의 전도 활동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 가정교회 사역으로 전도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3. 당신의 전도를 막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전도 기술에 대한 어려움 ② 전도에 대한 필요성 부재
 ③ 시간·물질 등 환경적 어려움 ④ 전도를 함께할 동역자 부재
 ⑤ 기타: _____

[선교]

1. 우리교회의 선교 활동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 우리교회의 선교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3. 우리교회의 선교 활동에 추가 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① 재정후원 ② 선교대상자와의 관계 강화 ③ 선교 관련 행사 ④ 기도
 ⑤ 선교팀원 수의 증가 ⑥ 선교에 대한 교육
 ⑦ 목장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분위기
 ⑧ 기타: _____

4. 가정교회 사역으로 선교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조금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 당신의 선교를 막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선교 기술에 대한 어려움 ② 선교에 대한 필요성 부재
 ③ 시간·물질 등 환경적 어려움 ④ 선교를 함께할 동역자 부재
 ⑤ 기타: _____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감리교신학대학 한국선교교육연구원. *교회교육 핸드북*. 서울: 대한기독교출사, 1977.
- 고영민. *신약성서 헬라어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5.
-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유교적 가족주의를 극복할 공동체 교회가 답이다*. 성남: 브니엘, 2006.
- 김덕렬. “개혁주의 교회론으로 본 가정교회.”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 김덕복. *기독교 신앙의 본질*. 서울: 쿰란출판사, 2006.
- 김동준. “평신도 사역의 지평확대를 위한 가정교회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2001.
- 김명용. “교회를 위한 삼위일체신학.” *교회와 신학* (2001).
- 김세운. *예수와 바울*. 서울: 참말, 1993.
- 김의원. “하나님의 거할 처소: 가정교회.” *교회와 역사*. 총신대학교 출판국, 2003.
- 김주엽.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연세경영연구* (2004).
-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 박상진. *교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서울: 에벤에셀, 2004.
- 박영철. *셀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6.
- 박익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발전.” *기독교 사상*. 1989년 5월호.
- 박형룡. *교의신학-교회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3.
- 배승록.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복음과 문화*.
-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서울: 한길사, 1983.
- 서중석. *바울서신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손철송. 김용성. “현대건축의 유기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집*(1998, vol 20).
- 순복음옥수교회 편집사역부, *순복음옥수교회40년사*.

- 신응섭 외 5인. *리더십*. 서울: 학지사, 1996.
- 안병무. *민중신학 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 오성춘. *은사와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 웨슬레 사업회(편). *존 웨슬레 총서 제 10권*. 서울: 신출판사, 1979.
- 유승원, “그레코 - 로마 세계의 몸 메타포와 바울의 교회 공동체 개념.” *신약논단* (2001).
- 윤삼득. “가정교회 활성화를 통한 교회성장 방법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 윤철원. *사도행전 다시읽기*.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6.
- 이원우. *성서(거룩한 글들의 도서관)*. 서울: 살림, 2005.
- 전요섭. *그룹활동과 인간관계 훈련*. 서울: 은혜출판사, 1998.
- 최상태.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2005.
- _____.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2001.
- 크리스찬 아카데미 신학연구 위원회 편. *공동체 신학의 모색*. 서울: 전망사, 1992.
- 하문호. *기초교의신학: 교회론*.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0.
- 한정애. *교회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 홍영기. *교회 선택의 조건*.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 홍인규. “바울과 가정교회.” *KETS 제 4차 신약신학분과 논문발표회*. 2003년 5월.
- 황진기. *셀교회 사역의 성경적 원리와 적용*.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2. 번역서적

- Bank, Robert. *바울의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IVP, 2007.
- Banks Robert J. and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 역. 서울: IVP, 1999.
- Berkhof, Louis. *기독교신학개론*. 박희석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 Branick, Vincent, P.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홍인규 역.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5.

- Bultmann, Rudolf. *신약성서신학*. 허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76.
- Childs, Brevard S. *구약신학*. 박문재 역.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 Church, L. F. *매튜 헨리 요약 주석 9권*. 신현학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 Comiskey, Joel.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0.
- Cox, Harvey. *세속도시*. 민경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 Erickson, Millard J. *교회론*. 이은수 역. 서울: CLC, 1999.
- Foster, Richard, J. *영적훈련과 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 Harrington, S. J. Daniel J. *신약성서의 교회론*. 김동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Jimjon, Wolfgang. *가정교회: 침투적 교회 개척론*.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Küng, Hans.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Lohfink, Gerhard.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정한교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5.
- Moltmann, Jürgen.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 김관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6.
- Neighbour, Ralph W. Jr. *셀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 Nicholas, Ron.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2001.
- Schmidt, Werner H. *구약성서입문1*. 차준희 · 채홍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58.
- Wagner, C. Peter.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김선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 _____.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3.
- Watson, D. *교회의 진정한 표상*. 오광만 역. 서울: 여수문출판사, 1993.
- White, James, F. *예배의 역사*. 정장복 역. 서울: 쿰란출판사, 1997.
- Wolff, Hans, Walter.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6.

3. 외국서적

- Borg, Marcus, J. *Jesus in contemporary scholarship*.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4.

- Botterweck, G. Johannes, Ringgren Helmer,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rans, John T. Willis, Green David E. Grand Rapids: William Eerdmans, 1988.
- Crossan, John Dominic, *The Historical Jesus: the Life of a Mediterranean Jewish Peasant*. San Francisco: Harper, 1991.
- Eichrodt, Walth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1. London: SCM Press, 1975.
- Filson, F. V. "The Significance of the Early House Churches." *JBL* 58(1939).
- G. & C. Merriam Company.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Mass.: G. & C. Merriam Co., 1981.
- Perrin, Norman. *Rediscovering the Teaching of Jesus*. London: S.C.M. Press, 1967
- Robinson, H. W. *Corporate Personality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1964.
- Wright, N. T. *Simple Christian: Why Christianity Makes Sense*.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2006.

Vita of
ByongDo, Park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Eunpyeong Central Full Gospel Church

Personal Data:

Birthdate: April 25, 1970
 Marital Status: Married to Jeeyeon Oh with one son
 Home Address: 104-5, Eungam1(il)-dong, Eunpyeong-gu, Seoul
 Phones: 02-2291-7991(H) 011-9488-4527(S)
 Denomination: The Full Gospel Church of Korea
 Ordained: May 20, 1999

Education:

B. A.: Hansei University Kunpo-si, Kyeonggi 1998
 Th. M.: Soongsil University, Seoul, 2007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2

Personal Experience:

2011 to present: Senior Pastor
 of Eunpyeong Central Full Gospel Church.
 2003 to 2010: Assistant Pastor
 of Ok-su Full Gospel Church, Seoul
 1998 to 2002: Senior Pastor
 of Baumholder Full Gospel Church, Germany
 1996 to 1997: Assistant Pastor
 of Seoul Nambu Full Gospel Church, Seoul